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7월 27일(음력 6월 22일) 수요일 (주간) 제 536 호


종진 스님


마성 스님


혜능 스님


지운 스님


법혜 스님


철우 스님


각묵 스님


경성 스님


지관 스님

받기 어렵고 지키기는 더 어렵다?

계율, 사회속으로

동화사 · 本社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대법회' 개최

8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10회
계율 주제 첫 대중법회 '관심 고조'

어렵고 까다로운 것으로만 알고 있는 계(戒)와 율(律).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상당수 재가불자들 역시 계율을 승가의 통제 수단쯤으로만 여긴다.

하지만 계율은 스님과 재가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실천덕목이다. 뿐만 아니라 계율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생활규범이자 갈등을 푸는 가장 적합한 방편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의 장이 동화사에서 펼쳐진다.

동화사(주지 지성)는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와 공동으로 8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9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6시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법회에서는 종진(해인총림 율주), 지관(가산불교문화원장) 스님을 비롯해 철우(파계사 영산율원장) · 지운(동화사 강주) · 마성(팔리문헌연구소장) · 법혜(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혜능(해인총림 율원장) · 각묵(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 경성(중앙승가대 강사) 스님이 법주로 나서 계율의 근본의미와 계맥의 흐름을 전검하면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계율이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생활규범임을 보여주는 것도 이번 대법회의 중요 포인트다. 율(律)이 불자가 지켜야 할 규율이라면 계(戒)는 습관 성향 행위를 말하는 것임을 일깨워주게 된다.

특히, 대법회는 인류 현안의 해결 키워드가 계율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물질만능주의 팽배로 인한 생명경시, 빈곤, 낙태, 인권, 사회윤리, 도덕, 환경 문제 등 인류가 안고 있는 난제들을 푸는 열쇠가 계율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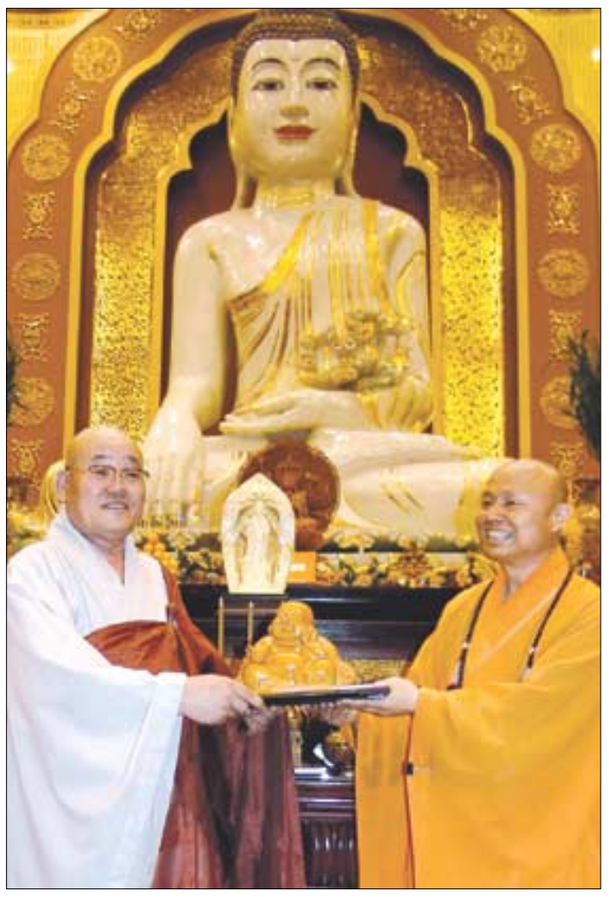
법주의 법문이 끝난 뒤 질의자들이 청중을 대신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논주 스님들이 답변하는 '쌍방향'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이번 법회의 특징이다.

이번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는 10월 9일 오전 10시 보살계수계법회로 회향한다. (053)985-4404
(더 자세한 내용은 buddhanews.com)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일정(법회시각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일정	법주	주제	논찬자(스님)	논찬자(재가)
8월 6일	종진스님	계와 율이 생긴 까닭은? – 성립과 그 의미	지현스님(송광사 율원장)	이자랑(동국대 강사)
13일	마성스님	상좌부 상가와 팔리율장	지관스님(용화사 주지)	임승택(경북대 교수)
20일	혜능스님	북방불교의 대승계에 대하여	덕조스님(길상사 주지)	백도수(동국대 강사)
27일	지운스님	계율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	일진스님(운문사 강원 학감)	박병기(한국교원대 교수)
9월 3일	법혜스님	계율과 청규	유진스님(동국대 교수)	신성현(동국대 교수)
10일	철우스님	경전속의 지계정신	덕문스님(파계사 강원 학감)	안양규(동국대 교수)
24일	각묵스님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율장정신	우경스님(동화사 강원 강사)	허남결(동국대 교수)
10월 1일	경성스님	율장정신에서 본 종단의 제도	지현 스님(송광사 율원장)	김호성(동국대 교수)
8일	지관스님	한국불교 계맥의 자주적 전승	무관 스님(조계종 계단위원)	목정배(동국대 명예교수)
9일	회향/보살계 수계 대법회 증명:보성(조계종 전계대화상) 진제(동화사 조실) 범룡(동화사 비로암 조실) 스님 3사:지관(전계) 혜정(갈마) 종진(교수) 스님 7증:지성 수성 지우 지하 도영 홍교 문인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타이베이 포광산사에서 7월 19일 국제불광회 세계총재인 신띵 스님(사진 오른쪽)으로부터 포대화상을 선물받고 있다.

"수행 · 생활 접목시키자" 공감

법장 스님 대만 방문…싱윈 · 신띵 스님 등 만나

"한국의 수행불교와 대만의 생활불교를 접목하면 양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7월 20일 타이베이 시내 채식전문 음식점에서 열린 주대만한국대표부 초청 환영만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법장 스님은 "조계종은 사실 수행불교 중심"이라고 전제하고 "한국불교의 수행전통과 대만불교의 대중적인 생활불교를 접목하면 새로운 포교방향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일 100여 명의 포광산사(佛光山寺) 신도들의 환영을 받으며 대만에 첫 발을 내딛은 방문단은, 20일 포광산사 타이베이 도량에서 열린 환영법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제불광회 세계총재이자 前 포광산사(佛光山寺) 주지 신띵(心定)스님은 "한국불교의 안거전통은 우리에겐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다. 한국 사찰에서 안거에 참여해 3개월 정도 수행정진하고 싶다"며 한국불교의 안거수행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방문단은 21일 오후 법장 스님과 포광산사 개산종장 싱윈(星雲) 스님 좌담, 22일 오전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과 대담 등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 귀국했다.(자세한 내용은 buddhanews.com) 대만=공동취재단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060-700-1080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우리이웃
1080 누르고 福 지으세요

'풀뿌리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본사-달라이라마 동북아사무소 한국지부 공동추진

본사는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일본 신주쿠 소재) 한국지부가 서울 청운동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에 설치된 것을 계기로 '한국-티베트 풀뿌리운동(Grassroots Movement)'을 전개합니다.

▶'한국-티베트 풀뿌리 운동'은?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 한국지부와 공동추진하는 '풀뿌리운동'은 한국과 티베트 간의 학술, 의학, 예술, 출판, 종교분야 등 범문화적 상호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불자들이 풀뿌리처럼 유대 해서 티베트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류를 맺자는 캠페인. 1대1 교류 및 단체 대 단체, 개인 대 단체 등 다각적인 인연맺기 운동입니다.

▶티베트 학인스님과 '인연 맺기 운동'

가덴장세(Gaden Jangtse Norling College), 드레풍 로세링(Drepung Loseling) 등 티베트의 전통사찰, 강원, 불교대학 등에서 정진하는 학인 스님들을 후원하는 '1인 1구좌 갖기' 운동입니다. 본사는 1차로 가덴 장세 승가대학과 더불어 비구니 교육기관인 잠양 쵸링(Jamyang Choling Institute)의 학인스님 30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덴 장세는 후원자 가입과 함께 1개월 이내로 보시금을 받는 스님의 인적사항을 담은 확인서가 후원자에게 보내집니다. 또 잠양 쵸링은 후원자가 직접 스님 명단을 확인하고 후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후원금은 3개월에 한번 씩 현지에 전달됩니다.

▶'인연맺기 운동' 동참 방법

1구좌는 1개월에 3만원. 이 1구좌로 티베트 스님 한 명의 한 달간 숙식 및 학비가 해결됩니다. 1개월 또는 1년(10개월 기준, 30만원) 단위로 보시가 가능하며 별도의 개인보시도 가능합니다. 후원자가 되면 본인이 후원하는 스님의 졸업식, 학위수여식 등에 초대됩니다.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 방문 시 후원사찰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 **동참 · 후원문의:** (02)2004-8220
● **후원 계좌:** 국민은행 006002-04-017992 예금주 엄윤정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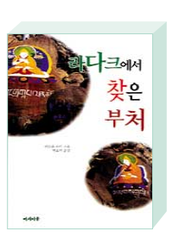
그림 · 조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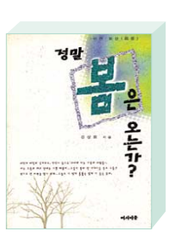
대정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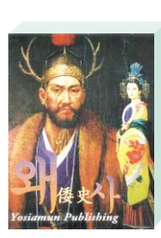
최고 30% 파격적인 할인에 무료배송까지!!
여름휴가를 여시아문 도서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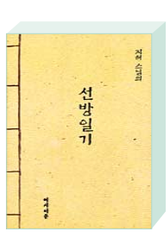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여시아문에서 발행된 도서를 파격적인 할인과 함께 무료배송서비스 혜택(30,000원 이상 구매시)까지 드리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올 여름휴가는 여시아문도서와 함께 불서 탐독의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사이트 www.yosiamun.com을 참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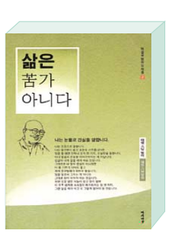
행사기간 : 2005년 8월 20일 까지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정가 12,000원
특별가 9,600원(20%)


정말 봄은 오는가
정가 9,000원
특별가 7,200원(20%)


왜 사
정가 25,000원
특별가 17,500원(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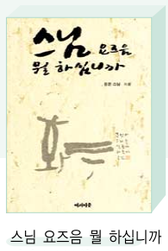

선방일기
정가 5,000원
특별가 4,250원(15%)


삶은 고가 아니다
정가 9,000원
특별가 7,200원(20%)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강좌
정가 6,500원
특별가 5,200원(20%)


스님이야기
정가 12,000원
특별가 9,600원(20%)


원각경
정가 9,500원
특별가 7,600원(20%)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정가 9,000원
특별가 7,200원(20%)


부처님께 재를 털면
정가 9,000원
특별가 7,200원(20%)

여시아문 http://www.yosiamun.com
yosiamun@buddhapia.com
전화주문 : 02_2004_8220 팩스주문 : 02_737_0696

조계종 각종 선거제도 '개선' 방향은?

현행보완 · 추대 · 직선제로 '가닥'

종회의장 법등스님 각계와 간담회 마쳐…9월 종회 앞서 공청회

"올 9월 임시중앙종회 상정을 목표로 선거법 관련 종헌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금권선거 관권선거 시비로 얼룩져 온 조계종 선거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지난 6월 11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시작으로 종책모임 일승회 · 화엄회, 금강회, 중앙종회 의장단 · 상임분과 위원장, 종정기관 소속 스님,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 등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선안 마련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간담회에서는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총무원장 선거의 경우,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나 일승회 · 화엄회 스님들은 선거인단 규모 '축소'(교구본사 주지+중앙종회의원)를 원했지만 종정기관 소속 스님들은 현행(중앙종회의원 81명+교구별 선거인단 240명)보다 '확대'를 원했다. 교구본사 주지는 산중총회나 운영위원회 등에서 '추대'하는 것으로, 중앙종회의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7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등 스님은 총무원장 · 교구본사 주지 · 중앙종회의원 선출 방식을 △'현행'대로 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 △종교 집단의 특성에 맞게 '추대' △보다 많은 종도들의 참여를 위한 '직선제' 등 3가지 안으로 선거법 관련 종헌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법 전문가의 손을 거친 뒤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여론 수렴도 할 계획이다.

교구본사 주지 선출과 관련 법등 스님은 "간담회 결과 80%가 추대를 원하고 있다. 대신 유명무실한 교구본사 운영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재산처분이나 예산관계 등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면 주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교구본사 주지와 운영위원장을 분리한다면 권력이 분산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대표성 부분에 대해서도 법등 스님은 "100% 문제점이 있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중앙종회의장 직책으로 선거제도 개선안 마련 공청회를 주최하자 일부에서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등 스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 법등 스님은 "그런 의혹이 선거법 개정에 장애요인이 된다면 공식 입장을 밝힐 용의도 있다"고 밝혔지만 "20여 년 동안 종단 덕을 입은 만큼 종단이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 역할을 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9월 임시중앙종회에 대해 법등 스님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공약을 점검할 계기도 될 것"이라며 "총무원에 집중된 권력을 본사로 이양하는 것(본사에서 승적 발급이나 임대 승인 등)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 '기대'

천태종, 개성관광 "환영"…8월 北과 회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7월16일 면담에서 개성관광 합의이후 영통사 성지순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현대그룹이 추진하는 개성관광특구 개발사업과 천태종이 추진하는 영통사 복원 및 성지순례 행사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서로 지역적인 연관성이 있는 만큼 현대아산이 8월 15일 시범관광을 통해 관광에 필요한 숙소, 관광비용 등 제반 문제에 대한 점검을 마칠 경우 영통사 성지순례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천태종은 연초부터 두차례에 걸쳐 조선불교도연맹 · 북측 영통사복원위원회와 실무회담을 갖고 복원불사가 마무리된 영통사 낙성식과 대각국사 의천 스님을 추모하는 학술세미나,영통사 성지순례 시기 및 횟수, 순례단 규모등을 논의해왔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개성관광에 대한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일정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천태종도 8월경 북한측과 영통사 성지순례를 의제로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 류상태 실행위원(왼쪽 앞)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손상훈 팀장이 서울시 교육청에 시정명령권 발동청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종교수업 더이상 강요말라"

종자연 등 교육청에 '시정 명령권 발동' 요청

서울 대광고의 종교 수업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과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공동대표 권진관 등, 이하 학자연)이 7월 19일 서울시 교육청에 시정명령권 발동을 청원했다.

종자연 손상훈 팀장과 학자연 류상태 실행위원은 이날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해 △5분 예배 폐지 △수요일 학년 예배 개선 △종교 수업 선택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권 발동을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 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서울시내 각급학교 종교 자유 침해 사례들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학자연 류상태 실행위원(前 대광고 교목실장)은 "더 이상 학생들이 종교문제로 학교에서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종교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종자연 손상훈 팀장도 "대광고를 비롯한 적지 않은 사립학교에서 종교편향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63조에 의거해 시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박인규 장학사(교과과정 담당)는 "각급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을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면서도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두 단체에 공식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글 · 사진=유철주 기자

강원필수교재 '절요' 발간

조계종 교재편찬위

조계종 교육원 교재편찬위원회(위원장 무관)가 7월 11일 강원 2학년 사집반 필수교과목의 하나인 <절요>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법집별행록절요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竝入私記)>는 당나라 규봉종밀 스님의 <법집별행록(法集別行錄)>에 보조지눌 스님이 자신의 의견을 편입하고 말미에 송나라 대혜 선사의 간화선을 응용하는 방편을 제시한 글이다. 교재편찬위는 학인스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화 현대화 원칙을 세워 <절요>를 새롭게 개편했다.

통도사 산중총회 개최

내달 22일 방장선출 위해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8월 22일 오후 2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영축총림 산중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소집공고를 냈다.

이번 산중총회의 안건은 영축총림 방장 후보자 선출의 건, 영축총림 임회회칙 개정의 건, 영축총림 임회회원 선출의 건이며 8월 12일부터 14일까지를 거주승 신고기간으로 공고했다. 구성원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통도사 종무소에서 가능하다. (055)382-7182

천미희 기자

제29기 행자교육원

내달 21일부터 직지사서

조계종 교육원은 제29기 행자교육원을 8월 21일~9월 12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는 7월 18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유나에 해인율원장 혜능 스님을 위촉했다. 이번 행자교육에는 남행자 108명 여행자 98명으로 총 206명이 입교를 신청했다.

조용수 기자

태고종 '에이엠에스' 社

18억에 매각

신용카드 제조업체인 (주)에이엠에스는 최대주주인 (재)한국불교 태고원 보유 주식 17만9650주(9.6%)를 신용호씨에게 넘겼다고 18일 공시했다. 신씨는 지분 인수 대가로 18억원을 지불했다.

한국불교 태고종 (재)태고원은 지난해 9월 24일 에이엠에스 지분 12.33%를 지병규씨와 함께 인수했었다.

김원우 기자

행자교육기간 2년으로 확정

조계종 승개추, 종단지정 시설에서 교육키로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종범 · 이하 승개추)는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갖고 행자교육 연한을 2년으로 확정했다.

지금까지 조계종의 행자교육은 출가사찰에서 출가자로서 지녀야 할 위의와 불전의식, 참회와 발심, 불교적 가치관 등을 습득하고, 최종 3주간의 집체교육(행자교육원 입교)으로 사미(니)계를 수지해왔다. 그러나 출가자로서 초발심을 돈발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기초교육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사 5개월+집체교육 3주'후 사미(니) 수계를 받던 기존 제도대신, 입산 후 종단에서 지정한 별도 교육시설에서 2년 간 행자교육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당장 행자교육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승개추 내 법제분과(위원장 영배)와 지도위원단의 검토를 거쳐 종무회의에서 제도개선안으로 최종 확정하고 중앙종회에 관련법개정을 상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연 400명 수준인 행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설행자교육원 시설 마련이 급선무다. 2년 간 800명을 수용해야 하는 상설 남 · 여 행자 교육원을 새로 신축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승개추는 각 400명씩 수용 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200명씩 수용하는 시설 2곳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800명을 기준으로 15명당 1명꼴로 필요한 교수사는 최소 54명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의 안정적 수급과 신분보장, 인건비, 시설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을 마련하는 것도 승개추가 풀어야 할 숙제다.

조용수 기자

승적업무처리 령 예고

8월26일까지 의견수렴

조계종이 승적업무 처리에 관한 종령 제정을 앞두고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승적업무 처리에 관한 령'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취적 절차 △승적기재사항 변경, 추가 절차 △법명개명 절차 △수계정정 및 추가기록 절차 △승적조회, 열람 절차 △승적 증명발급 절차 등이 있다.

이 중 "법명개명은 승적부에 등재가 잘못된 경우나 승려생활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명 신청할 수 있으며, 법명개명신청은 2회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눈에 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현고스님은 "승적업무의 처리절차를 정해 승적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라며 제정취지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축총림 대중스님께 드리는 글

영축총림 방장스님께서 입적하시고, 총림에는 방장유고에 따른 대중공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총림법통은 수좌가 상승해야 한다. 총림은 제도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 총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산중총회가 되어야 한다. 조속히 산중총회를 통해서 방장후보자의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등 이었습니다.

또한 방장선출의 근거가 되는 산중고유의 방식도 대중공사, 산중회의 등의 산중총의를 모으는 방식이어야지 방장의 지명으로 구성된 임회가 산중의 대표성이 될 수 없기에 임회에서의 방장선출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통도사가 방장, 주지, 임회의 의사결정으로만 운영되어 왔기에 그러한 구조 속에서는 대중의사 수렴이라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배제될 수밖에 없고, 문중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축총림은 종헌 · 종법이 규정하는 제도적 정비를 이루고자 합니다. 아직도 총림법에 의한 방장후보자 선출, 임회회칙 개정, 임회회원 선출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본사주지의 임기가 만료되어 감에 따라 차기주지 추천문제가 종헌 · 종법을 위배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납은 총림현안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통감하고, 아래의 내용과 일정으로 총림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가오는 8월 22일 산중총회를 개최하여 방장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간 두 차례의 총림공시를 통해 산중총회를 소집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산중의 뜻이 여법한 추대로 모아지지 않아 경선을 통해서라도 방장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하였지만, 방장선출이라는 총림공분 보다 차기 총림주지 선출에 관한 문중이기에 의해 산중총회는 의도적으로 무산되어 왔고, 그로 인한 결과는 총림혼란과 총림존폐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기에 조속히 방장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둘째, 임회회칙을 개정하고 임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총림법에서 각 총림은 임회회칙을 개정하고 새로운 임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영축총림은 시행 총림법에 준하는 회칙개정과 임회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무소는 그동안 산중내외에서 개진해온 의견취합을 통해 총림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 11장 64조의 개정회칙을 기초하였고, 임회회원 선출과 임회구성을 통해 총림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임회회칙 개정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임회가 인사규정과 후생복지등 총림의 중요종무를 협의 의결하는 총림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하였고, **제2장 직제**는 총림법 직제로 구성하여 수행기관별로「전문연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산중총회**는 영축총림의 대의기구가 되도록 하였고, **제4장 임회**는 총림법에 의한 회원구성과 자격으로 하였으며, 총림 종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와 중요사안에 대하여 임회가 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상임위원**은 임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제6장 원로원**에서는 총림에 원로원을 설치하여, 원로원장은 방장이 위촉하고 총림직제의 수좌가 되어 대중을 통어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로자격은 본사주지, 중앙종무기관장 등 중요소임을 역임한 승납 35세 이상으로 하였고, 원로권한으로서는 통도사 주지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 인사**에서 본사주지는 원로원이 주지후보자를 방장에게 추천하고 방장은 임회의 임면동의를 얻어 추천토록 하였으며, 주지임기는 4년으로 하였습니다. 말사주지는 본사주지가 임회의 임면동의와 방장재가를 얻어 품의하도록 하였고, 본사주지를 역임한 재적승은 총림관할의 말사 · 암의 주지 및 감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장 교육**에서는 비구계를 수지한 재적승이 전문과정을 이수할 시 총림이 연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장 포교**에서는 영축총림 교구발전을 위하여 전국에 포교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포교당 설립 시 총림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장 후생**에서는 비구계를 수지한 재적승이 장기입원 시 총림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축총림 장례규정도 두어 총림대중이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마쳤습니다.

셋째, 보광선원을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림의 대표적 수행기관은 보광선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광선원은 수행의 요체가 되는 선원의 수행환경으로서는 협소하고, 총림행사와 관람객들의 소란행위로 인해 수행처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광선원이 총림선원 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광선원을 옛 일승암터로 이전 신축하여 눈 푸른 납자들의 선불장 다운 정진처를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원의 수행환경 수호와 총림설치의 근본정신을 구현할 수 있기에 보광선원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넷째, 보광전을 원로원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통도사에 원로와 중진스님들의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총림에 위기가 있었을 때도 어른들의 역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총림 중요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원로의 참여와 권한이 제한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축총림은 원로를 중심으로 총림운영체계를 세워 총림운영의 주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림 원로스님들이 도제양성과 총림발전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보광전에 원로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민족정신문화의 수도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통도사를 대표할 수 있는 성지는 적멸보궁입니다. 그리고 수천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설법전이 있습니다. 정부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여 전 국민의 문화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사찰은 전법과 포교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일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남불교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천년의 불지종가가 되어 왔던 통도사가 국민정신교육과 민족교육을 위한 도량이 되어 개산의 큰 뜻을 찾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영축총림 대중 여러분
금번 총회안건은 방장후보자 선출과 임회회칙 개정 및 임회회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입니다. 총림법에서 임회는 총림직제의 장과 본사 중앙종회의원,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 3인은 당연직이고, 선출직은 승납 25세 이상 재적승으로 교구종회에서 11인에서 15인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 22일 산중총회에서 방장후보자와 직선 임회회원을 선출하여 본 총림의 의사결정기구인 임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회회칙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총림발전을 위한 제도적 운영계획도 구체적으로 천명하여 총림대중의 결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종무소는 총림체제와 운영구조를 제도적으로 이루고자 운영조례인 회칙 개정초안과 총림불사를 기초하여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의 내용은 대중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총림대중의 결의를 통해 시행되어야 함으로 아직은 많은 논의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림의 주요현안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이 없기에 본 납의 임기 내에 총림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림이 요구하고 총림이 가야하는 길에 총림대중도 함께하여 총림구성원 전체의 의지와 결단으로, 영축총림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불장으로서, 민족정신문화를 선창하는 수행도량이 될 수 있도록 산중총회 참여를 기원합니다.

불기 2549년 7월 25일

영 축 총 림 통 도 사 주 지 현 문

수경사 아동학대 여부 논란 확산

교계단체 · 종회의원, 보도 공정성에 의문 제기

아동단체 "명백한 아동학대" 검찰 수사 비판

수경사 아동 학대 논란이 계속 번지고 있다. 아동매매와 학대 여부 등을 놓고 불교계 단체들과 아동단체들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며 다투고 있고 이에따라 여기에 조계종 일부 종회의원들도 SBS 보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수경사 언론보도 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혜총, 이하 수경사 불교 대책위)는 7월 18일 국가인권위에 수경사 아동학대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수경사 불교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 △학대 내용의 사실여부 △인신매매 여부 △아이들 목욕문제 △언론 최초제보자 신원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했다. 수경사 대책위는 이와 함께 위장 봉사자의 몰래카메라 촬영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아이들을 불교단체가 다시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경사 불교 대책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며 "국가인권위 조사를 지켜본 뒤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관 스님 등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유철주 기자

같은 날 아동 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경사 아동학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홍강의, 이하 수경사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경사 사건은 명백한 아동학대 사건"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수경사 학대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경사 대책위는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아동복지법에 명백히 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수경사 대책위 이명숙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에도 △아동학대 인식 교육 제고 △전문가 조언 체계 마련 △검 · 경의 아동학대 전담 부서 신설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 정황과 수사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7월 15일 일면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8명은 수경사 문제와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수경사 스님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원력과 자비심으로 보호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스님들은 방송이 "내용의 사실과 주장이 혼동되고 있으며, 양육방식과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작의적인 유도질문과 화면조작 등이 드러났다"며 은평경찰서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 SBS의 해명을 촉

부처님 가르침 영어로 배워요

전국 사찰서 열리는 영어법회 · 여름캠프

"내 아이가 영어와 친숙해지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젖어들도록 만들고 싶다"

여름 방학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법회가 열린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는 7월 25일~8월 12일 영어교실을 연다. 대상은 초 · 중학생이며 초등부에서는 영어연극과 지혜 동화 등을 통해 영어와 친숙해지도록 유도한다. 중등부에서는 자비수관, 영어회화와 문법 등을 시청각 교재로 학습한다. 또 서유기를 포함한 다채로운 불교 설화와 노래 등을 영어로 배운다. (02) 511-6070

대전 자광사(주지 청아)는 매주 일요일마다 어린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교영어학교를 열고 있다. 불교영어학교는 사찰 내에서 원어민 강사와 예불, 포행, 산행 등을 함께 하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 (042)822-9220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연중 상시로 어린이 영어법회를 열고 있다. 매주 월, 수요일 1시간가량 진흥원 불교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또한 7월 25일~30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단기 영어캠프 '펀앤펀 잉글리쉬 캠프'를 열린다.

진흥원과 E · C WORLD가 공동 주최하는 '펀앤펀 잉글리쉬 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2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매일 8시간의 영어수업을 받으며, 24시간 원어민 강사와 함께 생활한다. 또 불교설화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어로 배우는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심성교육도 받는다. (043)833-7789 www.dabopia.net

이밖에도 화계사 국제선원은 매주 일요일 '영어참선법회'를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 스님들이 참선지도와 법문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또 매주 일요일 오전에는 초심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회화강좌를, 오후에는 현각 스님의 '영어회화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02)900-4326

또 김포 용화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초등학생과 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불교영어법회'를 열고 있다. 3개월 코스로 진행되는 불교영어법회는 예불을 영어로 본다. (031)984-3234

이은비 기자



일산불교병원 한방병원 진료 시작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6월 29일 개원한데 이어 한방병원(원장 이원철 · 인터뷰 15면)이 7월 18일 개원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양 · 한방 협진의 초대형 불교종합병원이 완성돼, 지역주민은 물론 불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방병원은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여성의학과, 한방소아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등 총 8개과를 갖추고 있다. 뇌졸증, 보양, 소화기, 순환기 홧병, 부인병, 소아비만, 알레르기 등 한방 특화 치료가 가능한 전문센터가 양 · 한방 협진으로 가동되는 것이 특징이다. (02)1577-7000

조용수기자

원불교, 군부대서 종교활동

육군부사관학교에 교당 건립…논란 일듯

육군 부사관학교와 군학협정을 맺고 부대 내에서 군사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불교 종립대학 원광대가 7월 3일 군교당을 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원한 것으로 알려진 교당은 원광대 군사학과 학생들의 강의실로 허가를 받은 후 일원상 등 원불교 상징물들을 설치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군대내 종교시설 이외 지역에 교당을 건립한 것은 일종의 규정을 위반이다.

그러나 부사관학교장이 지난 3월 원불교의 종교 활동을 인정한 만큼 이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3대 종교 이외 소수종교의 군내 종교 활동이 사실상 제한돼 있는 현실에서 국방부가 원불교 등 신흥종교들의 본격적인 군 포교활동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강유신 기자

北 신계사 만세루 복원 불사

8월5일 착수…실무자 등 파견

금강산 신계사 만세루 복원불사가 8월 5일부터 진행된다. 또 신계사 사무를 담당할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들도 같은 날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종상)는 7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8월 5일부터 정면 5칸, 측면 3칸, 총 41평 규모의 만세루 복원불사를 시작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신계사 사무과장과 법당관리, 포교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 9명도 선발했다. 자원봉사자들은 3인 1조로 편성돼 한달씩 금강산 현지에 머물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부장 정념 스님은 "대웅보전 복원을 담당했던 최현규씨가 현재 만세루 복원에 필요한 목재들을 다듬고 있다"며 "만세루 복원에 이어 62평 규모의 요사채와 약 2평의 산신각도 순차적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계사 기도 스님에는 정현 스님(수덕사 강원 강사)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철주 기자

청교련 농촌일손돕기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 청소년 위원회 그린비와 동대문청소년독서실 청소년 자치위원회가 함께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7월 26~28일 충남 연기군 금남면 영내리 마을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 지도자 및 회원 30여명이 참여했다. (02)735-8165

이은비 기자

해외포교잡지 'Clear Mind' 창간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사찰 소식을 전하는 월간지 <Clear Mind> 창간호가 나왔다.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가 펴내는 <Clear Mind>는 뉴욕사원연합회가 지난 2년 여간 발간한 월간 포교잡지 <뉴욕불교>의 제호를 바꿔 복간한 것으로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발행을, 하림 스님이 편집을 맡았다.

하림 스님은 창간사에서 "교포들에게는 한국의 문화와 불교를 알리고, 국내 불자들에게는 해외 불교의 현황을 알리는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잡지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창간호에서는 도법 스님(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의 '생명평화의 길, 생명의 실상과 그 질서'와 미황사 템플스테이 소개, 한국불교계

대불련총동문대회 개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회장 성기태)가 창립 42주년을 맞아 7월 30~31일 단양 구인사에서 총동문대회를 개최한다.

청년불자의 역할과 자비실천, 복지사회건설 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동문대회는 '대불련인의 자비실천과 새로운 사회복지의 방향' 세미나와 1자1배 <반야심경> 사경, 한여름 밤의 산사음악회, 요가 태극권 강습, 걷기명상 등 신행프로그램등으로 진행된다.

강지연 기자

'연꽃과 아시아 문화축제' 워싱턴서 열려

연꽃에 깃든 아시아 문화의 아름다움을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한 '연꽃과 아시아 문화축제'가 워싱턴 DC 연방수생식물원에서 열렸다.

미주 현대불교(발행인 김형근)와 연방수생식물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라오스 태국 스리랑카 티베트 캄보디아 스님들과 불자, 백인 불자를 비롯한 5천여 미국인들은 독특한 한국불교와 아시아 문화를 듬뿍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뉴욕 정명사 무용 스님, 뉴저지 원적사 성오 스님, 보리사 원영 스님 등을 비롯한



아시아 문예축제에서 종이컵 연꽃을 접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

한국인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미국 언론의 관심을 모아 <워싱턴포스트>지가 주말 섹션에 행사를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강유신 기자

산 중 총 회 소 집 공 고

종헌 제 105조 및 산중총회법 제 6조 2항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영축총림 산중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산중총회 구성원에 해당되는 스님들은 종무 다망하시더라도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및 장소
- 불기 2549(2005)년 8월 22일 (월요일) 14:00시
- 장소 : 통도사 설법전

2. 안 건
- 영축총림 방장 후보자 선출의 건
- 영축총림 임회회칙 개정의 건
- 영축총림 임회회원 선출의 건

3. 구성원 자격

가. 비구계를 수지한지 5년을 경과한 제15교구 재적승
나. 임명일로부터 1년 경과한 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인 비구
다. 15교구 관할 말사 주지인 비구, 비구니
라. 비구계를 수지한지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주민등록상 2년이상 15교구 본사에 거주하고 있는자



4. 거주승 신고기간
- 불기 2549(2005)년 8월 12일(금) ~ 8월 14일(일) 09:00 -17:00시

5. 구성원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불기2549(2005)년 8월 17일(수) ~ 8월 19일(금) 09:00-17:00
나. 장소 : 통도사 종무소

6. 문의처
- 제 15교구 본사 통도사 종무소
- ☎ 055)382-7182

지난 1, 2차 산중총회는 구성원 미달로 무산된바 금번에는 재적 스님들의 다수 참석을 바랍니다.

불기 2549(2005)년 7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통도사 주지 현문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맞춤포교의 선두주자, 직장 · 직능 불교. 같은 직장,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로 신행공동체를 형성한 직장 · 직능 분야는 짧은 기간 새로운 영역을 일구어내며 신행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일터불자들은 종단과 직 ·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종단과 동떨어진 운영으로 제도권으로부터 소외 받아온 것이 사실. 게다가 포교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그들만의 신행’에 머무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직장 · 직능 단체 불자들이 자생적 신행의지를 포교원력으로 회향하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 글 싣는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자방담

신행 – 포교는 하나!
마인드를 바꾸자


일터불교는 거사불교의 진원지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지않은 신행에만 치우친 활동을 펼치는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직장 · 직능불자들이 2002년 열린 환경살리기 걷기대회에서 걷기대회 ‘만생명을 위한 서원’을 낭독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90년대 중반 자발적 신행공동체로 정착
거사불교 진원지…교육 · 포교 시스템 부재
직장전문포교사제 도입 등 동기부여 案 필요

450여단체…자발적 신행모임

1980년대 초반 직장 · 직능 신행단체가 하나둘 생겨나면서 직장 · 직능 불교의 태동을 알렸다. 그러나 직장 · 직능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 직장 · 직능 불교라는 단어도 이 때 비로소 등장했다.

직장 · 직능 단체는 전국에 450여곳이 분포해 있다. 이 가운데 400여 불자회가 공무원, 철도, 전력인, 의료인, 경찰, 금융단, 운전기사, 교정인, 산악인 등 분야별 연합단체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가장 많은 소속단체를 보유한 단체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120여 경찰불교회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50여 불자회가 연합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정인불자연합회와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 전력인불자연합회, 금융단불자연합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도 적게는 10개 단체에서 많게는 50여곳을 아우른 신행조직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대한 조직의 이면에는 운영 자체도 버거워하는 개별 모임의 어려움이 그림자로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인재양성, 회원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내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결과다. 직장 · 직능 분야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포교는 없고 신행만 있다

직장 · 직능 신행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발적인 신행모임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찰이 아닌 일터에서도 도반을 만나는, 이른바 개별적인 신행활동에서 공동체적 신행활동으로 변화하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 또한 직장 · 직능 불교는 거사불교를 일으키는 진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남성불자들이 주축을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 직능 불교는 실질적인 불교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일터불자들이 포교를 위한 각종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데다가 ‘직장포교’라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큰 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터불교는 법회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신행활동 외에 포교활동을 따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일터불교의 전반적인 수준이 기본적인 신행은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신심을 필요로 하는 포교는 불가능하기 때문.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터불교가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부 단체에서는 대부분이 초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승기신론> <구사론>과 같은 어려운 논서를 공부하는 왜곡된 형태를 보이기까지 한다. 이는 불교와 모임을 ‘악세사리’로 여기는 잘못된 신행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일터불교 지원, 큰 틀이 필요하다

직장 · 직능 불교 태동 이후 ‘일터불교’라는 큰그림을 바탕으로 이에 맞는 교육 · 포교 시스템을 갖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스스로 생겨나 일정한 틀이 없이 유지되는 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따라서 종단에서 개별 단체들의 창립에서부터 법회 운영, 회원 교육 등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어 일터불자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종단은 일터불자들을 관리하기보다는 지원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법사 없이 열리는 현 직장법회 풍토와 ‘우리 불자회’라는 영역에 갇혀 있는 일터불자들의 ‘그들만의 신행’도 개선돼야 할 과제다. 김태영 문사수법회 상임법사는 “직장불자들은 자신의 신심과 신행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그들만의 세계를 활짝 열어줄 수 있는 내적 구성원과 신행을 지도해줄 지도법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터불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육성하는 종단 차원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과 일터를 방문해 일터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순환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올바른 교육과 인재 양성은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

불교대학과의 연계교육, 사찰과의 자매결연 등 지역불교와의 연계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안양시청 불자회의 경우 인근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대학과의 연계로 회원들의 불교적 소양을 심어줌으로써 회원들이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윤정택 안양시청 불자회장은 “불교대학과의 연계교육 이후 회원들이 자신의 신행은 물론 포교활동에 매진, 회원이 30% 가량 늘었다”고 소개한다.

포교시스템 · 인식 전환 필요

일터에도 불교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불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조계종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품수받은 이들도 100여명을 넘어선다. 그럼에도 그들이 포교활동에 나서지 않거나 활동이 미진한 이유는 동기 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직장전문포교사제도는 좋은 대안이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곽임호 포교사는 “직장불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고시를 거쳐 직장전문포교사 자격을 부여한다면 지금보다 포교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장전문포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직장 · 직능 분야의 신행 · 포교체계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터불자들의 신행마인드 변화는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핵심과제다. 일터불자들은 ‘일터 신행모임’이라는 인식이 강해 법회, 성지순례와 같은 신행 중심의 제한된 활동을 펼친다. 회원 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불자회가 없는 현 상황은 이를 반증한다.

최근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는 현상은 신행의 범위가 개인에서 가족으로 확대돼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우리’로 신행의 범위를 확대하고 ‘나’를 위한 불교에서 ‘남’을 위한 불교로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은행 불자회 지도법사 법현 스님은 “조직적인 체계와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일터불자들의 신행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일은 요원하다”며 “불교계는 일터불자들을 교육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세워나가고 일터불자들은 신앙심을 구체화하는 신행혁신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봉영 · 김철우 기자

● 모범사례 ●

‘사람’이 중심이다
주인의식 · 결속력 ‘탄탄’

#1 한국은행 불이회

‘금융계 불자회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불이회(회장 하용이). 1985년 금융계에서 처음으로 창립된 불이회의 전통은 20년 째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법회를 봉행해온 점이다.

이 같은 불이회의 저력은 단연 ‘사람’ 중심의 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잦은 인사이동에도 안정적인 불자회 운영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사 섭외, 법회 공지 및 집전, 기획, 참석 독려 등을 40여 회원들이 맡은 소임별로 ‘알아서’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불이회가 이처럼 구축한 인적 인프라는 동종 업계의 불자회 결성에 도화선이 됐다. 80년대 직장불자회가 흔하지 않던 때에 ‘일터불심’을 일으켜, 국내 20여개 금융기관 불자회 결성의 모태가 됐다.

불이회 하용이 회장은 “회원들이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먼저 찾아서 척척 해내기 때문에 모임이 잘 굴러갈 수밖에 없다”며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결속력이 불이회의 가장 큰 성장엔진”이라고 말했다.

‘할 일’을 만든다
‘환경 · 봉사’로 관심 폭 넓혀

#2 철도공사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복지부’ 조직, 매월 소년 · 소녀가장 생계비 지원. ‘교화부’ 결성, <선가귀감> <초발심자경문> 등의 경전강의 및 3천배 철야 정진 봉행. ‘승만부인회’ 구성, 법우회원 부인과 지역 여성 불자들이 열차안전운행 캠페인 정기적으로 전개.

한국철도공사 서울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우락)가 ‘하는 일’이다.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법우회의 조직특징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할 일’을 만들어 놓고, 단위 부서들을 조직한다는 점이다. 이는 ‘관심 폭’을 확대시켜 법우회원들의 활동 영역을 넓힌다는 의미다.

이 같은 ‘할 일’ 중심의 인프라 구축은 법우회 활동을 지역 포교, 환경 운동 등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정찬연 교화부장은 “법우회는 신행, 환경, 사회봉사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단위조직을 구성했다”며 “이 같은 구성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 속에 천둥, 번개칠 때의 대기정화 방식
새로운 기술방식의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연의 원리를 재현한 ‘Living Air’의 특성”
無병균 천둥,번개가 일어날 때 지구를 정화해 주는 원리를 도입하여 실현된 100%살균 능력으로 신선한 공기 생성.
無필터 신소재 린트스크린 방식으로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성능의 저하를 막아 줍니다.
無소음 Thunderstorm Theory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작동의 소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반영구 후면 신소재 스크린과 카드플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 으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이동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뢰성 미국과 캐나다환경 보호청 및 국내 산업공해연구소의 시험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조절가능 5평에서 84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자연의 신선한공기 우리가 꿈꾸는 내일
자연에서는 공기가 천둥번개와 비로 인하여 깨끗해진다. 천둥번개는 오존을 생산하고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을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 한다. 비는 오존과 이온을 지구표면에 가까이 내려오게 한다. 오존과 이온은 대기의 오염물질에 부착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지상에 떨어지거나 산화 시킨다. 리빙에어는 야외의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기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공기를 여과하거나 나쁜 증세를 가리거나 희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청정한 상태로 정화하는 것이다. 이온화는 공기 중에서 먼지입자와 오염물질을 충전시켜 더 끌어당기게 함으로서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한다. 입자는 계속적으로 더 큰 입자로 커지다가 결국 그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오존은 먼지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해 준다. 이 모든 순수한 오존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Living Air의 생성 및 Fan에 의한 송출방식으로만 유지된다.

미국 Ecoquest사 제작 수입완제품이며 탁월한 기술력으로 스피커만한 크기로 84평까지 청정지대로 유지하며, 필터가 없으므로 교환의 수고가 없고 구입 후 별도의 유지비가 전혀 없음

인증서
▶ 산업공해시험성적서 : 오존수치(세계안전 오존(O_3) 안전수치 0.05ppm이하)
▶ CSA : 캐나다 표준협회 발행 산업안전규격 승인청
▶ EPA : 미국 환경보호청(검사인증서) ▶ 미국방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발행 분진, 수은 검사 측정결과서

다중 시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사찰 및 복지기관에 꼭 필요합니다.

TEL : (02)2055-0202
FAX : (02)2055-027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www.o2air.net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55-1114

불교 테마파크 조성 '붐'

군위 인각사 · 통영 연화사 · 양산 통도사 등 해당 지자체서 '적극'

군위 인각사, 통영 연화사, 양산 통도사 등지의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불교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장기계획이 속속 발표되면서 불교를 테마로 한 관광지 개발 붐이 일고 있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곳으로 유명한 경북 군위 인각사 일대 2만1천500평 부지에 조성될 '일연 테마파크'는 경북도와 군위군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장기 사업. 총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연 테마파크는 인각사의 역사적 재조명과 체계적 정비 · 복원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화북댐 건설과 관련 주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각사 주변 정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다 국비, 지방비 등의 예산도 매년 5억~10억 책정돼 있어 인각사를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 조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편이다.

일연 테마파크는 대웅전, 국사전, 승방, 일연학연구소 등의 전통사찰 공간을 중심에 두고 편의시설, 교양학습공간, 휴식공간 등이 가장자리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교양학습공간은 수련원 · 유물전시관 및 영상매체관, 도예체험장, 노천강당, 보각국사상 등으로 2개소에 분산 · 배치된다.

또한 통영 연화도 연화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연화도 불교테마공원 조성 계획도 눈길을 끈다. 통영시는 2010년까지 138억원을 들여 욕지면 연화도 1만여㎡에 불교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장기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연화도 연화사 주변에 조성되는 불교테마공원은 극락, 인간세계, 지옥세계를 상징하는 공간을 해수관음상 둘레에 조성하고 상봉으로 오르는 연화로에는 부처님 일대기를 테마 조각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연화도인 토굴터를 복원해서 동상을 모시고 그 옆에는 사명대사 토굴터도 복원해서 사명대사 동상도 모시게 된다. 이 밖에도 불교의식 체험장, 부처님 상, 만불상, 상징광장과 전망대 등으로 꾸며진다. 이는 최근 연화사를 찾는 기도객들이 급증하자 통영시도 연화도 불교테마공원이 관광수입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연화도 불교테마공원의 경우, 사업비 확보를 위한 투용자 심사 과정을 남겨놓은 상태로 아직은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사업의 현실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불교문화를 중심 테마로 하는 테마공원 조성이 포교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자칫 불교성지의 관광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관광특구 지정'도 예산확보 불투명, 불교 성지의 관광지화라는 지적 속에 표류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군위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은 "사찰을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단순관광지로 전락해 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단순히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수립 여부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수립 후 불교성지에 맞는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다방면의 프로젝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미희 · 배지선 기자

'귀신 잡는 해병' 근원지 넋 기리는 집 세운다

통영 두타사 '해병혼의 집' 건립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근원지인 통영 무전동 원문전적지에 한국전쟁 통영상륙작전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는 해병혼의 집이 건립된다.

통영 두타사(주지 자용)와 통영해병전우회(회장 조영규)는 8월 17일 55주년 통영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즈음해 해병혼의 집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해병대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와 천도재도 함께 봉행한다.

통영상륙작전에서 희생된 영가들의 위패를 봉안하는 해병혼의 집은 통영 용남면 삼화리 두타사에 30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통영상륙작전에서 희생된 영가들의 명단을 받아 모시게 된다. 해병혼의 집은 내년 낙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낙성식과 더불어 제2회 위령제와 희생영령들의 나라사랑을 기리는 부대행사도 구상 중이다. (055)648-1477

천미희 기자



한여름밤의 음악법회 21세기 불교수행공동체 백장선원(이사장 원구스님)이 주관한 한여름 밤의 음악법회가 7월 16일 1000여명의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구 허브언덕에서 개최됐다. 마하야나합창단과 서봉사, 성화사 합창단의 찬불가, 시명 스님과 가수 이동원, 무형문화재 제45호 김경애 선생 등이 출연했다.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의 어린이들은 최광철씨의 색소폰 연주에 맞춰 반야심경을 봉독해 여름밤 허브언덕을 장엄하며 눈길을 끌었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통도사 IC 불보종찰 이미지 반영을"

양산시의회 도로공사에 요청

양산시의회가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말까지 이전 건립하게 되는 경부고속도로 통도사 IC를 불보종찰인 통도사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조형물로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양산 IC도 양산의 지역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고 7월 14일 건의문을 제출했다.

양산시의회는 "양산과 통도사 등 2곳의 톨게이트는 시의 관문인 만큼 양산톨게이트에는 관광 · 문화 ·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를, 통도사톨게이트는 불교관광지라는 특성을 각각 부각시킬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5년 말까지 경부고속도로 부산~언양간 37.83㎞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면서 기존 양산과 통도사 톨게이트도 이전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원효 스님 영정 모시기 불사 추진

원효사상실천승가회, 고산사 영정 표준 삼아 제작

원효사상실천승가회(회장 가은)를 중심으로 원효 스님 영정 모시기 불사가 진행된다.

원효사상실천승가회는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려 바른 불법을 중흥시키고 원효 사상을 중심으로 청년불교운동을 새롭게 일으키고자 영정 불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깊은 수행력과 수행을 통해 드러나는 원만구족상과 기품이 자연스럽게 풍겨나는 영정을 조성해 원효 스님을 세계적으로 소개하는 표준 영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에 봉안된 것으로 조사된 원효 스님의 영정 12개 중 고산사에 모셔진 원효 스님 영정을 표준으로 삼고, 설씨 문중의 골격을 반영한 영정을 조성키로 결정했다.

2004년 국내에서는 사라져버린 원효 스님의 저서 <열반경종요> 필사본을 영인하여 국내에 최초로 소개한바 있는 원효사상실천승가회는 영정 불사와 더불어 원효 스님의 사상을 재조명하고 논리적, 체계적으로 재정립하는 노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051)637-3696 천미희 기자

연등축제 회향법회

합창단 연합회장 취임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는 7월 21일 코모도호텔에서 봉축 시민연등축제 회향법회 및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올 봉축 제등행진을 결산하는 자리로 부처님 공양물을 매년 준비해온 성불사에 감사패를 전달한 것을 비롯 개인택시반야회, 부산여성불자회, 부산불교대학 수화반 심여회,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등 제등행렬에 도움을 준 10개 단체에 공로패를 전달했다.

회향법회와 더불어 열린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취임식에서 김귀련 신임회장은 "화해와 화합의 마음으로 한층 더 정진하는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 두송복지관과 키르기즈스탄 부산시민서포터즈 회원들은 7월 17일 두송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등 300여 지역민들에게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오늘은 복지관 아닌 종합병원"

두송복지관, 주민 위한 무료진료

7월 17일, 부산 두송복지관(관장 지현)에 일일 종합병원이 개원됐다.

두송복지관과 키르기즈스탄 부산시민서포터즈 회원이 함께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실시한 것이다. 이날 의료 봉사에는 HELP의료봉사단을 주축으로 구성된 의료봉사팀의 의사 간호사 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등 300여 명의 지역민들이 안과 산부인과 이빈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15개과의 무료진료를 이용했다.

두송복지관 무료진료는 2003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저소득층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상 무료진료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갈 엄두를 못내고 병을 방치해오던 주민들은 이날 두송복지관에 열린 깜짝 종합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외출이 불가능한 거동불편자들을 위해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무료로 영양제를 투여하는 등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펼쳤다.

한편 이날 무료 진료를 받은 이들 모두에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 봉사자들이 비지땀을 흘렸으며 복지관에서 준비한 무료 영정촬영, 이미용 서비스, 주방칼 연마, 전자제품 수리 등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봉사활동들이 호응을 얻었다. 천미희 기자

창립 1주년 기념법회 봉행 대불련 대구경북동문회

대불련 대구경북동문회(회장 임해수)가 창립 1주년을 맞아 7월 15일 대구 보현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동문회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을 벌였다.

임해수 회장은 "창립 1주년을 맞아 참회와 더불어 대분심, 대의심을 내고 크게 발심해 동문회발전을 위해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회 후 '동문회 발전을 위한 기본과제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념발제에서는 수행, 포교, 재정 등 다방면에서 발전방향이 논의됐다.

이수찬 동문회 조직위원장은 동문연계를 위한 인맥지도를 작성과 리더십 있는 핵심 인적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안미정 재정위원장은 고정적 회비수납과 기금마련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발제에서는 대학생 포교사업 지원을 위한 포교전문기관 설립, 각 대학 대불련 방문, 지도교수 초청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배지선 기자

불교위원회 발대식 대구 열린우리당

대구 열린우리당이 불교위원회를 결성하고 7월 20일 대구시당 사무실에서 공식 발대식을 가졌다. 이로써 대구 열린우리당 불교위원회는 공식기구로서 대구지역 불교민심을 중앙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 김태일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불교계 인사와 당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대식에서 대구 열린우리당 불교위원회는 전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사무국장 이세호씨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구 열린우리당 불교위원회는 회원 수행정진과 불교문화재 보호, 사찰환경 정화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구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시 지정 문화축제로 승격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일 계획이다. 또 공원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찰환경을 조사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들에 대한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가시는 길. 부담되고 싶지 않은 부모마음, 고인이 되더라도 편히 모시고 싶은 자식마음,
이제 안심하십시오. 미래의 여유, 국민상조가 함께 합니다.



리무진 행사차로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최고의 서비스를 단돈 하루 660원으로 해결!! 한달 20,000원씩 99회면 걱정 끝 OK!!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조이행 보증보험가입"



감동의 서비스 국민상조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사 진행으로 마치 내 가족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최상의 서비스와 마음 깊은 친절과 봉사로 최고의 감동을 제공합니다.



경제적인 서비스 개인 행사시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평소에 적은 돈으로 불입하여 행사 발생시 최저 비용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며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물가상승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크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서비스 365일 일년 내내 전화상담요원을 배치, 행사 발생시부터 종료시까지 장례에 필요한 사항들을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며, 장례지도사가 그때그때 도움을 드려 모든 부분을 산속하고 친절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심 서비스 세월이 흐르면 물가변동도 예측할 수 없고 행사진행은 제대로 치루게 되는지 불안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상조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차질없이 모든 행사를 치루며, 규정대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한 걱정은 안심하십시오.

장의 무료서비스(국민상조 회원용)

제 공 상 품	내 용
관	오동나무 1치 5푼
수의(순창포 대용직물)	삼베(명주) 세마포
초론, 수시, 염습, 입관, 출상	무료봉사
도포, 원삼, 천금, 지금, 명정, 관보, 결관보(외울베)	무상제공
상복, 굴건 제, 복조끼	무료직계상주
행전, 두건, 작지, 요절, 수절	무상제공 10EA
혼백함, 위패, 습신, 리본, 첩지, 운아, 폐백, 다라니경, 입관충관물 양초 향, 짚신, 축문, 부의록, 선도차 장식	무상제공
영정바구니, 근조기, 병풍, 조등, 향로, 촛대, 잔대	무료대여
케딜락 또는 장의버스 중 택일 특별무료 전국운행	알선서버스(공원묘지, 납골당, 장제비신청, 장의버스, 장례식장, 이장안내)
1급장례지도사 2명 행사도우미 1명	파견

※ 효력 발생은 1회차 불입 후 부터이며 일주일 내 회원증서와 회원카드를 보내드림.(본 증서로 원하는 분 누구에게나 양도 가능)
※ 회원의 빈소, 손님 접대와 음식, 장지만 준비하시고, 나머지 모든 절차는 저희가 책임지고 내 부모님 모시듯 열과 성의를 다해 봉사하겠습니다.(일체의 봉사료는 사절합니다)

KS kookminsangjo

· 본사 서울시 양천구 목 2동 131-119 KS빌딩 · 팩스 : (02)2654-1414
· 전국 어디서나 1544-4110 · H.P : 011-581-8851(대표 남광일)
· www.kookminsangjo.com · www.kookminsangjo.co.kr · www.국민상조.com

불화 속 문양 생활용품에 접목

나주 심향사 '불화강좌' 인기

불화가 박정자씨 직접지도 매주 일요일 무료로 진행



나주 심향사 '불화강좌'는 불교문양을 생활용품에 활용하려는 불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불교문양이 생활 속에 살아나고 있다.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는 만다라, 칠보, 연꽃, 당초문 등의 불교문양을 티셔츠, 다포, 식탁보, 기와 등 생활용품에 활용하는 불화 강좌를 열고 있다.

지난달부터 백설당에서 매주 일요일 진행되고 있는 불화 강좌는 회를 거듭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수강생이 늘어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강의는 나주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불화가 박정자(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후보) 씨가 직접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화는 시왕초를 비롯해 등긋기 3000장을 해야 필력이 붙기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붓 잡을 힘만 있다면 유치원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배워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박정자 씨의 설명이다.

박씨는 심향사 불화강좌에서 이를 실증해 보이고 있다. 누구나 시왕초, 등긋기 강의를 3~4번 받고나면 광목에 밑그림을 그릴 수 있고, 눈썰미 있는 수강생은 채색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실습에 앞서 '불화의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 강의는 불화이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불교미술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심향사 불화강좌는 수강생들에게 또 하나의 수행으로 다가간다.

평소 급한 성격을 탓하던 회사원 조성문(52)씨는 시왕초, 등긋기에 열중하면서 한결 느긋한 자신을 발견했다.

"붓을 들고 등긋기를 하다보면 정신집중은 물론 마음이 차분해 지는 것을 느낍니다. 올 가을에는 친구들에게 제가 만든 연꽃문양 다포를 선물하고자 하는데 아마 모두들 놀랄 것입니다"

심향사 불화강좌는 복권지원기금의 후원으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9월 4일까지 열리는 불화강좌에는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1)334-2880

글 · 사진/나주=이준엽 기자



광주시 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된 덕림사 명부전 지장보살상과 시왕상.

광주 덕림사 지장·시왕상 지역문화재 지정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 명부전 지장보살상이 광주시 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7월 19일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고 덕림사 지장보살상과 시왕상 및 권속 26구를 시 유형문화재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불상 조성연대와 화주 및 조각승이 밝혀졌고, 지장보살이 독립된 전각에 모셔지는 명부신앙이 유행하던 17세기 자료란 점에서 한국불교미술사 및 불교신앙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덕림사 지장보살상과 불구일체는 1680년 화순 영봉사에서 색난(色難) 스님과 제자들에 의해 조성됐으며 조선후기 사찰이 폐사되어 화순 유마사와 보성 대원사를 거쳐 1945년 광주 덕림사로 옮겨져 봉안됐다.

이준엽 기자

구품연지 · 구화루 복원 완료

제주 법화사 30일 연꽃축제

천년전 탐라불교와 해상을 주도했던 법화사 구품연지가 복원됐다.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는 구품연지와 구화루를 복원하고 7월 30일 제1회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해상왕 장보고 대사 추모 다례재를 시작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대웅전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연꽃음악회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한마당 축제가 펼쳐진다.

구품연지와 구화루에서는 연차, 연자약밥 등 '연'과 관련된 음식과 사찰 전통음식 체험장이 개설된다. 또한 저녁에는 구품연지에 소망연등을 띄우고 야외에서 '달마야 놀자' 영화를 상영한다.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은 "1982년부터 여덟차례에 걸친 법화사지 발굴로 구품연지와 구화루 등 옛 당우를 복원했다"며 "연꽃 축제를 통해 법화사의 역사를 되새기고 지역민과 하나되는 문화전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지장보살 삼존불 점안 영동 반야사

영동 반야사(주지 성재)는 7월 17일 '지장보살 삼존불 점안 및 우룡 큰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반야사 주지 성재 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반야사는 승방 29동 법당 9동의 대가람이었다"며 "복원이 완료된 대웅전과 지장전, 문수전을 중심으로 가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인사했다.

학성선원 조실 우룡 스님은 법어를 통해 "말과 글은 부처가 돼 극락세계에 가 있지만 불자들은 실천하는 모습이 부족하다"며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당부했다.

유철주 기자

장안산서 산상기도 봉행 장수 죽림정사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는 7월 19일 장수 장안산에서 '동헌완규 조사 탄생 110주년 기념 산상기도'를 봉행했다.

백용성조사 유훈실현 후원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산상기도에서 참석자들은 일체영가를 천도하며 국민통합과 평화를 발원했다.

죽림정사 총무 무언 스님은 "용성 스님과 스님의 수제자 동헌 스님을 추모하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기도를 진행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날 기도에서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의상조사 <일승발원문> 200권을 참석자들에게 보시하기도 했다. 유철주 기자

원주 법천사지 사적 지정 예고

원주 법천사지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7월 12일 법천사지가 2001년~2004년 진행한 4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건물지 19동을 비롯 금동불입상, 연화대석, 각종 자기류 등의 유물이 발견되면서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돼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사천왕문 복원 추진 광주 증심사

광주 증심사(주지 진화)는 동구청과 함께 5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앞으로 2년 동안 사천왕문을 복원한다.

증심사 사천왕문은 1609년에 세워진 정문 누각 '취백루(翠栢樓)' 1층에 사천왕 4기를 두고 있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화재로 소실됐고, 이후 취백루는 1998년 복원돼 현재 법당으로 쓰이고 있지만 사천왕문 복원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용인 용덕사

포교·수행 기반시설 잘 갖춰



용덕사는 지난 3월 대웅전을 완공하고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이와 함께 용덕사는 불교회관과 시민선방, 복지시설 건립을 통해 종합도량으로 거듭나게 된다.

신라 문성왕 때 영거선사가 창건하고 신라말 도선국사가 중창한 전통사찰인 용인 용덕사. 불과 5년 전만 해도 용덕사는 전통사찰이라는 명맥만 유지해왔을 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저 그런 사찰에 불과했다.

하지만 성효 스님이 주지로 부임해 오면서 용덕사는 바뀌기 시작했다. 사찰 진입로가 새로 놓여졌고, 대웅전, 일주문, 주차장, 화장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격을 갖췄다. 그리고 올 가을에는 지장전을 완공, 신라 당시의 모습을 어느 정도 되찾게 된다.

사찰체험 위한 회관 건립 등 분주 재소자 자녀 양육 시설 10월 완공

하지만 용덕사가 꿈꾸고 있는 모습은 단순히 사격을 갖추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흐름과 불자들, 지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도량이다. 그리고 지금 용덕사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회관 건립. 전통양식의 4층 규모로 지어질 회관은 완공 직후부터 템플스테이와 주말 사찰체험 프로그램의 수련시설로 사용된다. 시민선방 건립도 추진된다. 내년 안에 마무리될 예정인 시민선방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공간 외에 스님 전용 선방까지 마련,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여성 재소자들의 자녀양육시설을 올 10월 완공, 복지에도 뛰어든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이 복지시설은 20명 내외의 여성 재소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성 재소자들이 불교에 귀의,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용인 시내에 포교당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용덕사까지 와야 하는 지역 불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또 이곳에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이런 일련의 계획에 담긴 뜻은 바로 불교의 사회화다. 사실 용덕사는 불사를 진행해오는 가운데에서도 신행단체인 복지회를 구성해 결식아동과 독거 어르신 등 불우한 지역민과 북한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사회를 볼 수 있어야만 불교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역불교 발전도 결국 지역발전이 선행돼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효 스님은 불교의 사회화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 그 신념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용덕사 종합도량화 계획. 멀지 않은 장래에 이뤄질 용덕사의 꿈은 바로 불교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031)332-0426

용인=한명우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6일개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7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권기종(동국대교수) · 김형준(근본불교원장)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종석(금강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 (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5년 7월 1일~ 2005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5년 8월 6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5년 9월 6, 7, 8일 개강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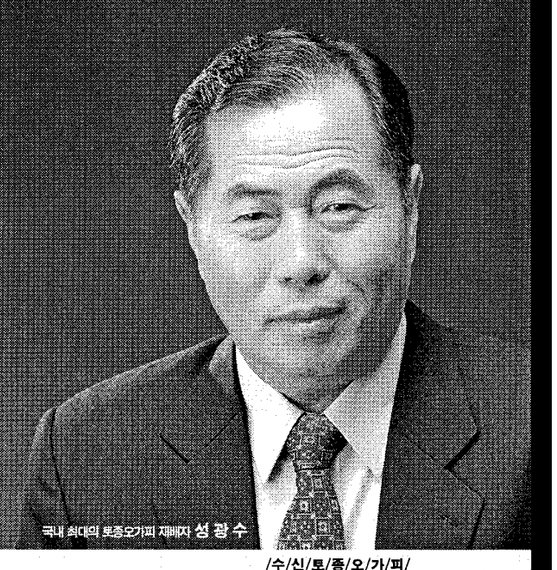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토종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24년의 기다림 !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헌 禮獻

/수/신/토/종/오/가/피/

품질로 평가받겠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과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오직 900분께만 매월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갑을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오가피에서도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갑만 생산할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때문입니다.

수신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복제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월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안겨드립니다.

※ 산삼베양근이 함유되어 있다는 모 업체의 오가피 제품은 성광수씨나 수신오가피와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예가 서병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청다완을 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여주 지역 유일한 불교계 복지시설인 여주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율동을 배우고 있다. 여주 신륵사는 여주노인복지관을 통해 지역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불교 가꾼다

경기 양평 · 여주 · 하남

열고 있는 보우국사 추대식 및 어사행렬 재현 행사 역시 이제는 빼놓을수 없는 지역문화축제가 됐다.

마지막으로 양평 불교를 대표하는 용문사 사나사 상원사 세 사찰이 지역불교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다.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이 전무하고, 군청을 포함해 각급 지역 단체에서 구성된 신행단체도 없다.

이에 따라 용문사는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겸한 포교당(선재정사)을 불교회관 형태로 활용해 시민선방이나 교양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평

산 좋고 물 좋기로 이름난 양평. 어떤 사찰엘 가도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그래서인지 10여 년 전 30여 곳에 불과하던 사찰 수가 지금은 100여 곳이나 될 정도로 양평 불교는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요인은 사암연합회의 활발한 움직임이다. 50여 개의 사찰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이 가운데 30여 곳의 사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매년 사암련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과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장학사업을 벌이면서 지역민들에게 '베푸는 불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또 사암련이 군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양평사암연합회는 많은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여주와 이천의 사암연합회와 함께 군법당 지원을 위한 불교협의회를 구성해 지원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다. 사암연합회가 연대해 군포교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두 번째로는 불교축제가 곧 지역문화축제이자, 지역문화축제가 불교축제라는 등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해마다 음력 3월에 열리는 용문사 은행나무 축제는 남한강 영산재로 유명한 상원사 등 여러 사찰들이 참여하면서 지역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사나사가 격년으로 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런 이유보다는 지역불교를 이끌어나갈 리더가 없고, 이것이 사암연합회의 활동 저하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반면, 사암련 차원에서는 양평 · 이천 사암련과 함께 군불교위원회를 구성해 군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고, 사암련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을 내고 불교회관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희망적이다. 특히 사찰들이 돌아가며 여주교도소에서 교리강좌를 열고, 사암련과 신륵사가 전 · 후반기로 나눠 찬불가 경연대회를 여는 등 교도소 포교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여주 불교를 대표하는 신륵사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군불교를 후원하고 지역 복지에도 나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재어린이집과 연꽃어린이집, 여주노인복지관 운영, 문화강좌 등을 통해 교육 · 복지 · 문화사업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나옹백일장과 합창단 활동을 통해 불교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신행과 복지 등 불자들과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의 활동폭을 넓힐 경우 여주 불교는 순식간에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주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여주 불교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 가장 어울릴 것 같다. 여주 불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다할 특징도 없는데다, 다소 침체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많은 사찰들이 재원부족으로 인한 활동

양평 군법당 지원 활발…장학사업 전개

여주 교도소서 교리강좌 · 찬불가 경연대회

하남 침체속 사암련 재건에 고군분투

하남

하남 불교는 상당히 침체돼 있다. 사암연합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름만 남아있을 뿐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웬만한 지역에서는 빠뜨리지 않고 하는 부처님오신날 행사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지 못했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열지 못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침체돼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남의 사찰은 25곳 정도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찰은 하남의 대표사찰 정심사를 비롯해 상불사, 광덕사, 다보사, 성법사 정도다. 이 가운데에서도 정심사는 시민선방인 '검단선원'과 성철 스님이 생전에 신도들에게 적극 권유한 기도법인 '아비라 기도'를 통해 수행 과 신행 문화를 고양시키고 있고, 상불사는 가족법회와 어린이 · 청소년 법회로 지역 포교에 나서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암련 재건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부 스님을 제외하고는 '의지' 자체가 없다.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선뜻 나서는 스님이 없다. 하남 불교가 안고 있는 숙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불교 화합 · 군 포교 매진

청봉 스님 (양평 용천사 주지)



1992년 용천사를 창건하고 사암연합회 활동과 군 포교에 참여하고 있다. 양평사암련 회장을 역임하고 양평경찰서 경승을 맡아 지역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청봉 스님은 요즘도 태고종의 경기동부교구종무원장, 중앙법규위원,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맡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역주민에 무료 개방

의정 스님 (양평 용문사 주지 · 상원사 용문선원장)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장을 맡아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2003년 용문사 주지로 부임, 부주지 보인 스님과 함께 도량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정 스님은 용문사가 관람료 사찰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암련 활동에 매진

법송 스님 (여주 법천사 주지 · 여주사암련회장)



3년째 여주사암연합회장을 맡아 여주 불교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법송 스님은 법천사 활동 보다는 사암련 활동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을 정도로 사암련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최근에는 침체된 여주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천사 차원에서 군부대와 여주교도소 포교에 나서고 있다.

지역 불교발전 동분서주

화암 스님 (양평 사나사 주지 · 양평사암련회장)



화암 스님은 양평사암연합회장을 연임하면서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광동학원 이사, 서울지하철법우회 지도법사, 철불협 상임법사, 여주교도소 교화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조계종 중흥조인 태고보우국사 조사전을 건립중이며, 지난 5월 화재로 소실된 요사채를 복원하는데도 전력을 쏟고 있다.

새싹포교 · 사회참여 힘써

세영 스님 (여주 신륵사 주지 · 여주노인복지관장)



세영 스님은 11년째 신륵사 주지로 있으면서 신행, 복지, 어린이 청소년, 군, 교도소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연꽃어린이집과 선재어린이집을 열고, 초 중 고생들을 위한 백일장을 개최하는 등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적극적이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사 복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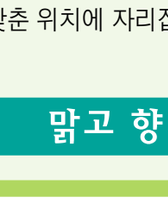
호산 스님 (양평 상원사 주지)



1996년 주지로 부임한 이래 상원사 용문선원을 외호하면서 상원사 복원에 주력했다. 진입로를 개설하고 선원 2개동과 요사채 등을 건립했다. 최근 호산 스님은 20사단 수색대대에 군법당을 지어주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6년째 산사음악회를 열었으며, 올해 6회째인 달마배 스노보드대회 등 포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사부대중위한 선방 건립중

혜성 스님 (여주 신고달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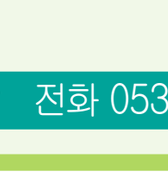


혜성 고달사지에서 20년을 넘게 지내다 지난 1996년부터 대웅전 불사를 시작, 신고달사를 창건했다. 현재는 200평 규모의 선방과 100평 규모의 요사채 및 식당을 짓고 있다.

혜성 스님은 현재 짓고 있는 선방이 완공되면 스님과 재가불자들에게 개방해 누구나 와서 편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불교대학 개설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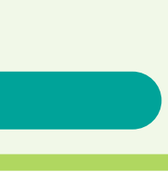
무상 스님 (하남 광덕사 주지)



2000년 광덕사 주지를 맡은 무상 스님은 도로를 포장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등 도량을 정비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협소한 대웅전을 새로 건립하는 등 지역민들이 편안히 기도하고 신행할 수 있는 도량으로 가꿔나갈 생각이다. 내년에는 불교대학 개원도 예정하고 있다. 도심포교를 위해서는 불자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생활속 실참도량 가꿔

원영 스님 (하남 정심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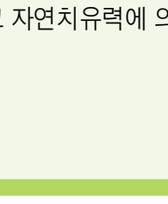


원영 스님은 2003년 미국 뉴욕에 보리사를 창건, 국제포교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불자 청소년들의 어학연수를 돕고 있기도 하다.

수행이 가장 중요한 신행이라는 소신으로 정심사를 '생활 속의 실참도량'으로 가꾸었다. 지역의 결식아동 20여명에게 매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어린이 포교에도 관심이 높다.

양평불교의 '손과 발'

성운 스님 (양평 법림정사 주지 · 양평사암련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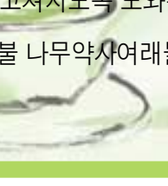


양평불교의 '손과 발'로 불린다. 양평사암련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총무와 재무 등을 맡아오고 있다.

성운 스님은 80년 법림정사를 창건, 사찰 자체활동보다 사암련 활동에 주력하면서 지역불교 현안을 실질적으로 도맡아왔다. 올해부터는 법당 규모를 늘리는 한편 교리 강좌등을 개설해 신도들의 신행을 원활히 해주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봉사단체 '보현회' 이끌어

문성 스님 (여주 구호정사 주지)



여주 불자들의 봉사단체인 '보현회'를 만들어 지역 불자 신행 및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보현회는 1993년부터 소쩍새마을 등 복지시설을 매달 한 차례씩 빠지지 않고 방문해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문성 스님은 실버타운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다. 또 인근 창명여자중고등학교에 불교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포교를 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톡톡튀는 포교 '눈길'

동효 스님 (하남 상불사 주지)

톡톡 튀는 프로그램으로 왕성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법회와 학생 한자교실 등에 주력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가족법회로 연결해 상불사의 모토대로 '한마음 쉬어가는 도량'을 가꾸어 나가고 있다. 상불사 한글법요집을 만들정도로 적극적인 동호 스님은 자라나는 새싹포교를 위해 어린이집을 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맑고 향기로운 세상 자연식의 집

자연식 식이요법 암(癌) 성인병전문요양원 – 음식물과 생활을 바꾸지 않는 限 근원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달성 가창 우미산 황새골에 위치한 자연식의 집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공기 우미산과 삼성산 사이에서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 따스한 햇볕 다양한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어 숲속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산림자연 쉼터이며, 요양원으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원은 자연치료원리에 의한 자연 식이요법과 원장님의 30가지 처방에 따라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성인병 및 질환에 일체의 약물 조미료를 쓰지 않고 생활환경과 습관을 개선하여 인체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키고 면역기능을 향상하며 조직의 향상성을 높여 질병의 증상을 예방하고 자연치유력에 의하여 병이 스스로 고쳐지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맑고 향기로운 세상 전화 053)767-0036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이창근 10,000원 윤선애 10,000원
안현정 10,000원 조근영 1,000원

총 누적금액 41,624,050원

백혈병 투병 민수를 응원해 주세요

3차 항암치료 힘겹게 끝내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일까?

7월 11일, 한 달여 만에 다시 민수(4)를 찾았다. 민수는 부산대학병원 일인 병실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었다. 1차 항암치료를 받을 때만 해도 희망적인 전망을 했는데 독한 항암 주사를 맞은 후 민수의 백혈구의 수치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감염 위험 때문에 4일전 급히 일인 병실로 옮겨졌다.

일반적인 경우 1, 2차 항암치료에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민수의 경우는 3차 항암제 투여가 끝나고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주사를 아홉 번째 맞고 있지만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었다.

민수의 항암 치료가 길어지면서 같은 병실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 둘 퇴원하고 민수만 남겨졌다.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민수의 백혈구 수치는 정상치를 되찾기는커녕 20, 30까지 떨어져 주위를 긴장시켰다. 혈소판수치마저 낮아지면서 한번 피가 나면 잘 멎지 않았고, 항암제 투여, 백혈구 높이는 주사, 혈소판 수혈 등이 반복되는 동안 민수의 입은 헐고, 고통을 참느라 깨문 입술에 고인 피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알코올 솜으로 닦아내야 했다. 독한 항암제가 장을 꼬이게 만들면서 민수는 변을 보는데 곤란을 겪었고 엉덩이는 헐어서 앉지도 못하게 돼 버렸다.



투병생활 중인 민수는 하루하루가 힘겹다. 민수 아버지 김형찬씨는 응원해주고 지켜봐주는 이들과 더불어 민수가 하루 빨리 일어서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러나 민수아버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 "독한 항암제도 잘 견뎌내고, 또 백혈구 수치가 20밖에 안되는데도 백혈병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고열도 없는 걸 보면 민수는 운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 꼭 낫겠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민수 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민수를 응원하는 이들의 마음이 통한 듯, 며칠 뒤부터 민수의 상태는 호전되기 시작했고 7월 21일에는 입원 3달여 만에 3일간의 퇴원이 이뤄졌다. 백혈구 수치는 7천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혈소판, 혈색소 수치가 턱없이 낮은 상태에서 시도된 퇴원. 아직 안심은 이르지만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간 가족들의 기쁨은 컸다.

지금 민수는 3차 항암 치료를 끝내고 백혈구 수치 안정과 혈소판, 혈색소 수치를 올리기 위한 주사 투여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상태를 지켜본 후, 골수 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민수의 부모에겐 치료비 부담도 부담이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아들을 지켜보는 일이 형벌처럼 남겨졌다. 완치를 향한 민수의 힘겨운 투병에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누구보다 마음의 묘용을 잘 아는 우리들이기에.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글 · 사진/부산=천미희 기자

도봉서원복지관, 희망나눔 바자회

이웃들을 위한 장터 한마당. 복지관에서 벌어진 조그만 장터였지만 의류나 장난감 등 제법 요긴한 물품들이 갖춰져 있어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았다.

서울 도봉서원종합복지관(관장 전승범)은 7월 6일~7일 복지관 1층에서 '희망나눔 미니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진행된 바자회 수익금 86만 500원은 도봉서원복지관에서 저소득 와상장애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정서지원프로그램 '손에 닿는 세상'의 사업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교계 복지관 하나로 통한다

부다피아, 인터넷 '복지 네트워크' 구축

"복지계 소식을 한 자리에서 볼 수는 없을까?"

복지계 뉴스와 봉사활동, 성금 기탁 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소식들을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없다는데 아쉬움을 느꼈을 것이다. 복지 소식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본사 부다피아가 7월 7일 '복지네트워크(www.buddhapia.com/welfare)'의 문을 열었다.

부다피아 '복지네트워크'는 불교계 복지관들을 하나로 이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복지계의 정보와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게시판에서는 복지 이슈별, 대상자별로 나눠 관심분야를 손쉽게 만들어볼 수 있도록 했다. 불교복지관의 진정한 네트워크를 주도할 '우리단체 이런행사' 게시판은 현재 부다피아에서 진행 중인 '무료 웹 빌더' 사업과 함께 진행돼 각 복지관에서 부다피아 홈페이지 소식이 한꺼번에 검색 가능하다.

'복지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관의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열린마당'에서는 이웃들의 따뜻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뤄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부다피아 사회복지팀은 '복지네트워크'를 통해 추후 복지관련 정부간행자료와 학술 자료를 계속 보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02)2004-8285

김강진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자비의 집 침술봉사회

"얼굴만 봐도 건강 바로 알지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강북구 미아6동 '자비의 집(원장 이금현)'은 금요일에 유난히 붐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아오는 까닭이다. 아침부터 찾아온 지역주민들로 3층 사무실은 어느새 만원이다.

주민들이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드는 주인공들은 벌써 13년째 '자비의 집'을 찾은 침술봉사자들이다. 7월 15일, 침술봉사자들은 꼼꼼하게 환자 차트를 챙기는 것으로 '진료'를 시작한다. 진료카드에는 아픈 사람들의 증세는 물론이고 시술자들의 그날 그날도 담겨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인 김동기(80) 거사는 한 아주머니에게 "살이 많이 빠졌다"며 말을 건넨다. 이제 '자비의 집'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무슨 병을 앓아왔고, 어디가 안 좋은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단박에 알아챈다. 오랜 침술봉사 경험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금요일마다 침 맞으러 와요. 감사하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여기 보다 좋은 곳이 없어요. 잘 해주시는데다 무료거든요."

6년 전 중풍에 걸리게 된 김주래(53)씨는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치료비가 모자라 그만두게 됐다고 한다. 김씨에 따르면 '자비의 집'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이라 병에 걸려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는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나마 현상유지라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침술 한 번이 절실하거든요."

김씨의 마비된 왼쪽 몸을 어루만지며 침을 놓아주던 침술봉사회 팀장을 강재구(80) 거사는 지치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고 싶어 고령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그만 둘 수 없다고 말한다. 이제 이들에게는 어려운 이웃이 '식구'들인 셈이다.

맨 처음 마음 그대로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침술봉사자 이순구(65) 보살은 "나이는 들었지만 봉사가 운명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침술봉사에 매진할 뜻을 넌지시 전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침 하나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 '자비의 집' 침술봉사자들. 7월 15일에도 침봉사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자비의 집'이 북적였다.

침구와 부항기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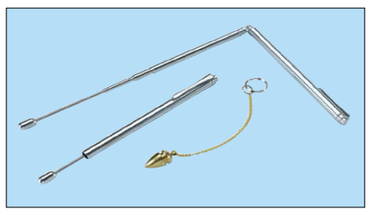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침술을 펼치고 있는 자비의 집 침술봉사단은 자비의 집에 필요한 물품으로 생필품과 식료품을 먼저 꼽았다. 그러나 자비의 집 이금현 원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면서 쓰고 있는 침구와 부항기가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침술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02)945-4200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면 유망

출장수맥감정비 30만원 개업 또는 부업 노후 대책도 안정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인까지 있어수맥감정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명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수다. 수맥탐지 기술만 있으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 투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것이다. 氣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미세한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보편적인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銀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 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 같이 된다면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엘로드가 오작동을 하므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氣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추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65,000원 문의(02)741-4477

수맥파 차단 카드

아침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가족 건강위해 인기



(크기 8.5cm×5.5cm)



맬토차단캡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 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병원을 신축할 때 수맥파를 차단하는 동판을 깐다. 병상밑에서 발산되는 수맥파로 인해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맥파는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중증질환과 중풍, 치매, 만성피로, 수면부족, 오십견, 집중력 저하, 불면증등에 시달리고 수험생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며 정리를 못하고 짜증을 낸다. 수맥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발표가 있따르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수맥파 차단카드 설치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러시아 과학자가 발견한 멜토에너지는 모든 유해파를 중화시키는것으로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는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 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켜 20평APT나 주택은 완벽하게 차단된다. 수맥파차단카드는 6개월에 한번씩 햇볕에 3시간 충전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대단히 가뿐해진다. 가격7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02)741-4477
농협입금053-12-102911

평생 부자지갑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불경에 입각해 부처님법구제작 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들어낸 영험의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관세음보살 수진언 영험중 1번으로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 금은 보화가 들어오며 땅을 소유하고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는다는 영험을 담고 있다.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내부구조가 일반지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섬세하게 꾸며져 있다. 지갑앞면에는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고 영험의 불력으로 금은 보화를 들어오게 하는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부착해 자신감을 갖게했다. 여성용장지갑에는 귀금속 장신구 지퍼주머니가 내부에 만들어져 있고 신분증을 꽂는 창 3개와 신용카드 11개를 꽂을 수 있으며 지갑 뒷면에는 동전 지퍼주머니가 별도로 있는 복지갑으로 안과 밖이 고급 천연소가죽으로 최고급 지갑이다. 축원불공을 마치고 판매하고 있는 관세음 복지갑은 출시 100일도 안되어 신비의 영험이 나타나, 안돼던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도직전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벌고, 되는 노릇이 없던 가정이 잘되는 등 윤년이 끝나고 관세음보살 축복 시대의 문이열리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보화와 보물을 모은다는 뜻에서 보라색으로 여성이 보라색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보화가 끈이지 않는다는 영험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며 남성용중지갑 5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이다.

■문의전화:(02)741-4488
농협:053-12-102911

대구불교방송
캐나다 공립학교 영어연수
7.26 - 8.21(4주간)
선착순 15명 모집
www.dgbbs.co.kr
053)427-5114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아는 만큼 보이고 본만큼 감동한다!



해인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해인사의 옛 모습이 담긴 안내판을 보고 있다.

7월 16일 토요일, 다가올 무더위를 예고하는 빗줄기가 간간히 흩뿌리는 가운데도 해인사를 찾는 이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일주문을 지나면 봉황문, 불이문이 나타나고, 화엄도량의 면모가 눈앞에 확연히 드러난다.

"이곳이 바로 해인사구나. 그런데 도대체 팔만대장경은 어디 있지?"

해인사를 찾는 탐방객들은 누구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팔만대장경부터 찾기 마련. 하지만 불이문을 들어서서도 팔만대장경을 찾을 수가 없다. 도량을 한바퀴 훑고 다시 팔만대장경을 찾아 구광루로 향했다. 구광루 1층, 모든 탐방객들이 멈춰 섰다.

해인사 종합홍보관이다.

활짝 열린 문에는 해인사와 고려팔만대장경 주말 특별안내에 대한 알림판이 있다. 토 · 일요일 오전 10시, 12시 30분, 오후 2시, 오후4시에 가야산국립공원 자연환경안내원이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안내한다. 홍보관에서 자료와 영상물을 보고나면 해인사 최고의 탐방코스가 될 것이라는 소개다.

처음 해인사를 찾은 탐방객들은 종합홍보관에 대한 호기심과 안도감으로 기웃기웃 안으로 들어갔다.

해인사 종합홍보관에 가보니…

팔만대장경의 비밀 등 해인사 정보 한눈에
인터넷 검색, DVD 상영 등 탐방객에 인기 '짱'
불교 알림 역할 톡톡…자료 · 인력 부족은 과제

해인(海印)의 뜻을 아시나요?

"해인사에서 해인(海印)의 뜻이 뭔 줄 아니?"

홍보관에 들어서자마자 양경철(32 · 합천 야천리)씨가 친구들에게 대뜸 물었다.

"해인은 일렁임이 없는 바다에 만물의 형상이 그대로 비치는 것과 같이 번뇌가 없는 마음에는 만물의 이치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화엄경의 해인삼매(海印三昧)에서 비롯된거래."

해인사에 처음 온 안효성(32 · 서울 서초동)씨의 눈이 커졌다. 해인사에 왔으면 해인의 뜻은 알고 가야 하는데 친구가 어떻게 알았을까? 감탄하는 눈빛이다. 고등학교 때 해인사를 다녀간 적 있는 안희수(31 · 경남 사천)씨도 처음 듣는 소리다.

며칠전 해인사 홍보관을 다녀갔던 양경철씨가 씨익 웃으며 벽면에 걸린 해인사 안내판을 가리켰다. 눈 덮인 해인사의 절경, 매화꽃이 흐드러진 경학원 등 해인사의 멋진 풍광을 담은 사진과 해인사 창건, 산내암자, 가야산에 대한 안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 저기 원당암에도 한번 가보자."

효성씨는 해인사 탐방코스를 잡기도 했다.

'장경 보존' 8백년의 비밀이 궁금해요

"팔만대장경을 자작나무로 만들었구나. 정말 이렇게 조각을 했을까?" 홍보관을 둘러보던 양은현(33 · 경기도 하남)씨가 호기심을 드러냈다.

"물론입니다. 옛 선조들이 절을 하며 한자한자 새겼습니다. 게다가 한사람이 모두 새긴 것도 아니예요. 모두 각각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새겼는데 글씨가 이렇게 고르다는 것은 탄복할 일이지요"

홍보관 안내 도우미 신세정(30)씨가 얼른 나섰다. 홍보관에 모인 10여명 탐방객이 모두 흥미있는 눈빛으로 설명에 집중했다.

"팔만대장경이 800여년 동안 썩지 않고 보존이 된 것도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영상실에서 팔만대장경 보존의 비밀에 대한 8분짜리 DVD를 상영합니다.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세정씨가 영상실로 안내를 했다.

몇 해전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보고는 별로라고 생각했다는 황미희(37 · 대구 시지동)씨는 "DVD를 보고 팔만대장경의 진정한 가치를 새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황씨는 오늘 팔만대장경의 진정한 가치를 찬찬히 살펴보고 느껴볼 예정이다. 황씨는 이제야 '보물'을 보는 눈을 조금 뜨게 됐다며 기뻐했다.

인터넷 검색, 해인사관련서적 한눈에…

홍보관에 들어서면 한눈에 띄는 것이 컴퓨터다. 비록 3대에 불과하지만 가야산 골짜기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다. 최첨단 정보화시대에 해인사를 찾는 이들을 위한 배려다. 한 켠에는 해인사 관련 서적을 모두 모아 놓았다.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부터 한글팔만대장경까지 골고루 갖춰져 있고, 해인사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엽서들도 전시돼 있다.

해인사는 종합홍보관을 해인사를 찾는 이들에게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는 물론, 해인사를 대표하는 다양한 기념품 전시도 생각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쇄문화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팔만대장경이 있는 만큼 인경체험장 등을 두어 인쇄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공간으로의 활용까지도 구상중이다.

올바른 사찰탐방문화 정착 필요

해인사 홍보관은 지난 5월 1일 문을 열었다. 팔만대장경 보존을 위해 5월 1일부터 장경판전 개방제한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면서 팔만대장경을 직접 보지 못한 탐방객을 위해 마련한 것. 그러나 해인사 종합홍보관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진다. 올바른 사찰탐방문화를 이끌고 정착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해인사는 한국의 대표 사찰로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불교성지이며 강원 율원 선원 염불원을 갖춘 종합수행도량이다.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관광사찰'로의 전락 위기를 맞고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가꿔온 한국불교 고유의 정신문화를 모두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심각히 대두된 것.

해인사는 종합홍보관을 통해 사찰에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알리고, 우리고유의 불교문화와 정신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시켜 우리의 보물을 스스로 지켜나가게 만들어야한다는 취지다.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규제도 단행할 생각이다.

사실 세계의 유명 종교성지나 관광처에는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정신을 지키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조차 규제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 또, 탐방시간 제한은 당연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오히려 수많은 외국인들이 세계문호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이대로 방치하는데 대해 의구심을 가질 정도다.

해인사 홍보국장 종현 스님은 "이제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문화재에 담긴 정신을 느끼고 계승할 수 있도록 국민의식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더 많은 준비로 더 큰 일 할 터

해인사가 종합홍보관이 문을 연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모든 운영이 훌륭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뗐을 뿐이기에 많은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해인사 관련 동영상도 부족하고 안내 자료도 미흡하다. 전문화된 안내 인력은 더욱 준비되어 있지 않다. 동영상에 외국어 자막이 없다는 것도 지적됐다. 그리고 해인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맞물려 가면서 포교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우리문화재를 지키고 올바른 사찰탐방문화를 이끌어 한국불교의 고유한 정신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첫발이기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먼 미래 오늘날 해인사 종합홍보관의 첫걸음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그 걸음마가 성숙될 즈음에는 우리의 문화수준이 한 층 높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종합홍보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불교문화재와 한국불교의 정신을 사랑하는 따뜻한 시각에서 많은 조언도 당부했다.

www.haeinsa.or.kr (055)934-3161

글/합천=배지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팔만대장경과 판전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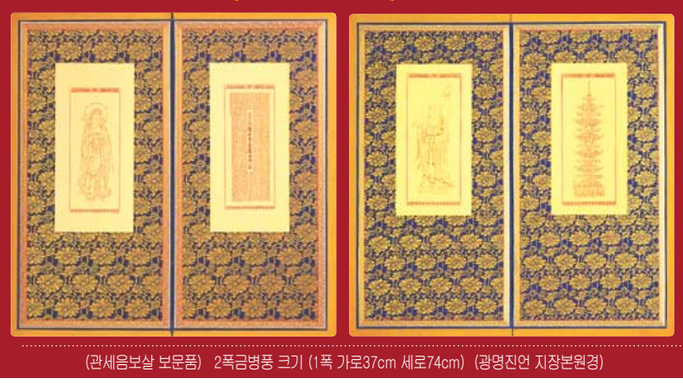

인터넷을 통해 해인사 홈페이지를 둘러보는 참배객들.


해인사 종합홍보관이 있는 구광루.

불경,금책,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 ·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호신용 소장용 영가천도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하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生命의 氣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모래 만다라의 완성 그리고 무상 속으로…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규토 사원 스님들이 7월 15일부터 1주일간 작업해 완성한 모래만다라(사진 위)를 21일 한강으로 흘려 보내고 있다. 달라이 라마 동북아 사무소 한국지부 개소를 기념해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제작 전시된 모래만다라는 마지막 의식을 통해 무상(無常)의 도리와 부처님 가피가 세상 곳곳으로 가닿음을 보여준다.한편 모래만다라 전시회는 다시한번 7월 25~29일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다.

사진=고영배 기자

선재마을의료회 ·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첫 활동

함께 힘모아 자비 실천합시다



선재마을의료회와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는 7월 17일 경기도 연천 장남면사무소에서 첫 봉사활동을 펼쳤다.

연천군 장남면서 '무료진료' 의료활동 통해 일체감 느껴

"오늘은 면사무소에서 무료의료봉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가림시설이 늘어선 인삼밭이 펼쳐져있고 논에서는 벼가 한창 익어가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250가구 600여명이 모여 사는 조용한 마을 곳곳에 7월 17일 아침부터 사이렌 소리와 '무료진료'를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진다.

주민들이 방송을 듣는 시각, 면사무소 2층에서는 무료진료를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장남면 주민들을 위해 이른 아침 자리를 털고 나온 선재마을의료회(회장 김주현)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단원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서울 봉은사와 부천 석왕사, 서울역에 각각 진료소를 마련해 정기 의료봉사를 하는 것은 물론, 농촌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선재의료회원들과 봉사원력으로 뭉쳐 각 지역 복지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노란조끼' 부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봉사자들의 만남. 두 단체의 '장남면 회동'은 5월 발족한 긴급재난구호봉사대의 첫 활동이기도 했다.

원당 1리에 살고 있는 유청기(65) 할머니가 몸 이곳저곳이 저려 중풍은 아닐까, 걱정스런 마음에 진료소를 찾아왔다.

"할머니는 일을 조금 줄이셔야겠네요. 중풍 아닙니다. 너무 일을 하셔서 생긴 병이거든요. 몸이 건강해야 일도 더 많이 하실테니 우선 몸부터 추스리세요."

선재의료회에서 입담으로 유명한 이문호(50 · 성남 오렌지한의원) 한의사는 할머니의 손발에 침을 놓으며 일을 쉬엄쉬엄 할 것을 권한다. 침술이 끝나고 부항을 뜨는 것은 복지재단 김용철(53) · 홍관표(42) 거사의 몫이다.

이렇게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선재의료회 의료진과 복지재단 봉사자들은 어느새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함께 돌본다는 '일체감' 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

'긴급재난구호봉사대'는 재난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계종 복지재단이 상설기구로 창립한 봉사 체계. 꾸준히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집단이지만 '긴급 재난구호' 활동은 그저 재난 활동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번 활동을 기획한 것도 긴급 상황에 필요한 순발력과 서로간의 믿음은 '봉사대'의 이름을 걸고 함께 활동해야 쌓아지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부장은 "앞으로도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소속 의료 · 단체들과 사회복지재단 소속 봉사자들이 유대관계를 맺어 활동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예산 · 서천경찰서 불교회 결성

충남 예산경찰서와 서천경찰서에 불자회가 생겼다.

자체적인 동호회 모임이었던 예산경찰서불교회(회장 최석기)는 7월 15일 청내 회의실에서 법회를 열고 신행모임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또 경찰불자들의 신행지도를 위해 수덕사 재무국장 효성 스님과 대련사 주지 자명 스님을 경승으로 위촉했다.

앞서 7월 12일에는 서천경찰서불교회(회장 김구환)가 경승단 충남지단장 장곡 스님 등 100여명의 경찰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서천경찰서불교회는 앞으로 경승실 개원, 월 1회 정기법회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간다.

서천경찰서불교회 창립은 독실한 불자인 김황재 서천경찰서장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후배불자들에게 남겨준 선물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김황재 서천경찰서장은 창립 직후인 7월 15일 총경급 인사에서 정년 대기 발령을 받았다. 박봉영 기자

고대 · 중대병원 불자회 첫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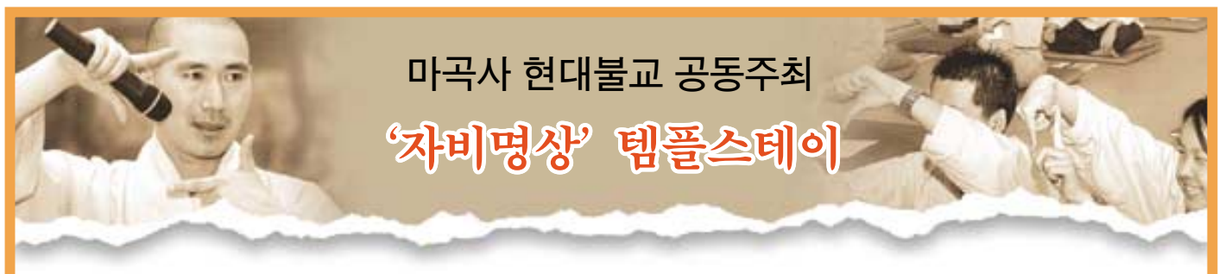
7월 7일 창립한 고려대의료원불자회(회장 김우주)가 7월 29~31일 첫 활동으로 순천 송광사에서 의료봉사활동을 벌인다. 또 여기에는 불자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대병원 불자의료진이 동참해 의미를 더한다.

템플스테이와 겸해 열리는 이번 의료봉사에는 고대의료원 안암 · 구로 · 안산병원에서 근무하는 불자회원들과 중앙대병원 불자회 창립준비위원, 고대의료원불자회 지도법사 지현 스님 등 50여명이 참가한다. 봉사단은 송광사 선방 수좌와 강원 학인 등 스님들을 대상으로 내과 · 외과 · 안과 등의 진료활동을 펼친다. 박봉영 기자

27일 서울 봉은사서 공동법회

대한불자가수회와 해병대불자회는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봉은사에서 공동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공동법회는 두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흥국 씨의 주선으로 성사됐다.

이날 법회에 이어 11시 30분부터 불자가수 20여명은 봉은사 신도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모든 것을 부처님 대하듯 하면

화(火)는 곧 화(和)가 됩니다

3차 일반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상생과 조화'를 깨닫게 하기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 '손에 손잡고'. 한 사람은 눈을 감고 다른 한 사람은 부축을 하며 징검다리를 건너는 모습.

자비(慈悲). 중생을 그지없이 넓고 큰 사랑으로 감싸 안은 부처님의 마음.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을 닮고 싶고 또 그렇게 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늘어나는 적금통장과 내 집 마련이라는 속세에서의 기쁨을 접고 '자비행'을 실천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 감사의 마음과 베푸는 삶의 방법을 깨닫게 하기위해 마곡사와 현대불교가 마련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이 자리에 모인 각인각색의 참가자들.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다르지만 '행복한 마음 찾기 공부를 이루어 보겠다'는 뜻만은 모두 한결같다. 2박3일간 그들이 체험한 '자비명상' 프로그램 가운데 감동과 깨우침이 있는 네 가지를 들여다봤다.

상생과 조화 깨닫게 하는 '손에 손잡고'

땅거미가 지고 있는 태화산 마곡사. 수련복을 입은 10여명이 기우뚱 기우뚱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다. 앞을 볼 수 없는 이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나? 자세히 보니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다른 동료가 부축하며 징검다리를 건너게 해주고 있다. 무슨 영문일까? 바로 마곡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하나인 '손에 손잡고'.

템플스테이의 진행을 맡은 마가 스님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눈을 감은 참가자를 다른 참가자가 부축해 개울을 건넘으로 해서 '눈을 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를 체험해 보는 시간이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눈을 감은 사람이 부축하고 있는 동료를 믿지 못하면 두 사람 모두는 개울을 건널 수 없듯이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상생과 조화'를 깨닫게 하기 위한 궁극적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푸른하늘(템플스테이 참가자의 별칭)씨는 "눈을 감고 개울을 건너려니 발을 헛디뎌 행여 물에 빠지면 어쩌나, 저 사람이 날 제대로 안내해 줄까라는 걱정과 의심이 앞섰지만 '그래 한 번 믿고 건너 보자'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맡기니 쉽게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며 "세상은 혼자만 잘 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합심해서 사는 것이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해 본 기회였다"고 말했다. 체험을 마친 후 참가자들에게 마가 스님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어리석음을 빗댄 '공명조 전설'로 상생과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몸에 머리가 두 개 달린 공명조가 있었다. 탐욕과 질투로 가득 찬 한쪽 머리는 배려심 많고 지혜로운 다른 머리에게 항상 불만이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독차지 하는 저 녀석만 없애 버리면 나 혼자 사랑과 먹이를 독차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마음먹은 한쪽 머리는 다른 한쪽 머리에게 독약을 먹였다. 결국 자신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탐욕과 질투의 한쪽머리도 함께 죽고 말았다. 마가 스님은 "세상을 살다보면 우리는 '공명조의 오류'에 빠질 때가 많다"며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징검다리를 건너는 동안 상대방을 배려하며 믿고 따랐던 그 마음으로 부모형제와 부부, 자녀, 친구들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자비명상이다"고 말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화 다스림 명상



화(火)를 화(和)로 바꾸어 생각해 보는 '화 다스림 명상'.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 일세."

훈장 선생님처럼 청명한 목소리로 마가 스님이 한 문장 한 문장 게송을 읊으면 참가자들도 숙연한 마음으로 따라한다. '화 다스림 명상'의 핵심은 화(火)를 화(和)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신의 마음작용을 공부하는 것.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구나' '~겠지' '감사합니다'의 순서로 생각해 보고 또 그렇게 행동하라고 주문한다. 또 "법당에 계신 부처님만이 부처가 아니다"며 "인연 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자비명상이다"고 말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신과 타인의 존귀함을 깨닫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프로그램.

'우주만물이 곧 부처다'고 선언한 부처님의 말씀 '천상천하 유아독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위해 마련된 '천상천하 유아독존' 프로그램. 참가자 한명 한명이 좌단에 앉으면 마가 스님과 묘운 스님 그리고 나머지 참가자들이 그를 향해 삼배를 하고 연꽃을 공양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은 진행됐다.

마가 스님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부처님처럼 존귀한 존재인 만큼 서로에게 삼배를 하는 시간을 가져 봄으로서 내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중요성도 깨달아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마친 후 참가자 '빛'씨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은 처음이다"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고고'씨는 "오~ 해피데이"라며 유머러스하게 소감을 말하기도 해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마가 스님은 "여러분들이 마곡사 템플스테이를 찾은 이유는 '날마다 좋은 날'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며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무엇인가를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 한 잔의 명상



묘운 스님이 참가자들에게 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노초(10억 분의 1)의 시대를 넘어 피코초(1조 분의 1)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자신의 존재를 탐구하고 남을 배려해 줄 시간은 더더욱 모자라기만 하다. '차 한 잔의 명상'은 차 맛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느껴보는 시간이다.

다시 말해 '차나 한 잔 드세요'라는 말의 의미는 '번뇌망상을 내려놓으세요'라는 이중적 의미의 불가의 다도를 통해 행복한 마음 찾기 공부를 배워보는 것이다.

묘운 스님은 "차 맛을 느끼는 것과 사람의 맛을 느끼는 것도 같은 이치다"며 "부모형제, 부부, 친구 등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히 그 관계를 유지하고 이해할 때 그들의 소중함과 자신의 존재 이유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041)841-6221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00 /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원.예술대학
사)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준 보유자 진하 큰스님

※ 재반의식교육 실시
각 사찰 모든 행사를 성심껏 사정에 따라 진행함
기초 불공의식 · 천도재 · 49재 · 바라무 · 작법무
051)556-1715 진하 문도회장 대명합장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 (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 전수자 모집
기초부터 특수반까지 여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무 작법무 기타 법무
개인지도 각 행사 대행해드림
영남불교전통범음범패전수원
051)554-1518
011-849-0961

친환경 한지 영가옷
순수 한지로 제작
일반 영가옷과 치수동일
그들음 냄새 전혀 없습니다
한지는 질겨 잘 찢어지지않음
도심지 사찰에 사용하기 좋음
실용실안 26799호 의장등록 22988호
054)972-9933
전호번호 메모하세요!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 02)720-5719/720-5682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사주명리학 확실하게 배우실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기타
주2회(화,금요일) 2시간씩 5개월간
초보(입문)에서 예행, 연수까지 책임완성
수료후 재청강은 무료, 개업 부업 적극지원
6호선 망원 전철역 2번출구 인근
해동명리교육원 02)336-8484

① 출가에 뜻이 있는 행자를 찾습니다.
→ 천일기도 후 수계함(40세 미만)
② 사찰에서 생활할 노부부를
모십니다(보시금 없음)
③ 총무 소임으로 사찰을 관리할
비구나 비구니를 찾습니다
011-9803-6301
041-566-0722
033)334-0730

사찰운영(동업) 같이 하실분 모심 (스님 처사 보살)
1. 위치: 경주 2. 사찰규모 :
(토지: 약500평, 건물: 330평)
3. 참여하실분(소자본 투자가능
한분 사찰부동산 같이 등기함)
4. 교통 환경 너무나 좋습니다
010-7228-481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50대~60대
011-483-5639

부전스님 모십니다
유서깊은 도심사찰
금법당 수국사 사부대중 합장
02)356-2001,
011-746-8698

어렵게 불사하시는 스님들에게 달마그림 보시해드립니다 오셔서 받아가세요
010-6462-0343
주강합장

공양주 구함
▷충북 제천
019-648-3898

행자(18세~29세 이하)님과공양주 보살님(50~60대)을 모십니다
▷조계종 전통사찰
031)826-3573
017-503-3573

조용한 기도 산사에서 스님 모시고 본인기도 겸 공양주 하실분 모십니다
▷ 경남
017-553-520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전통사찰(충남)
010-2202-8090

경치좋고 조용한 불교 명상센터 한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보살구함
▷ 속리산
054)535-0378

평생 절에서 수행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이상)
▷ 경북구미
018-587-2363

공양주 · 총무보살님 구합니다
▷ 40~50대 이상
031)978-9782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나이제한 없음
숙식 가능, 경기도 파주
대한불교조계종
010-4875-9626

포교당안내
● 위치: 울산 남구 신정시장내
2층 70평 방3개, 시설A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 즉시법회가능
011-9798-8460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 4동 암사역 2분거리
• 평수: 48평(5층 건물중 2층)
• 시설: 사존불외 집기일체
후불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배란다.
시설완비
대로변, 역세권 유동인구 많고 위치 좋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2천7백만원
010-7324-5115

사찰안내
● 위치 : 부천시 오정구 원종1동 부근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 산신탱화, 법당 집기 일체
● 단독주택, 법당 약15평, 방3개, 화장실, 주차장 완비 ● 가액 : 전세 3,000만원
011-395-2682
011-9047-3636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 총평수 1,570평. 법당 30평.
삼성각 20평. 요사채 2층 70평.
별채 10평. 구옥 한채 있음.
● 가액 : 7억 3천만원
011-9017-2545

포교당 안내
● 위치 : 목동사거리 남부시장 옆
● 약 53평. 3층건물의 3층
● 법당, 방2, 부엌, 목욕탕,
베란다, 삼존불
● 가액 : 보증금 2천5백만원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2)2645-4200
011-621-9216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랜드지역
● 토지면적 2450평
건축허가면적 1000평
총공사비 소요 5억 ● 가액: 3억
061)783-0408
018-312-0108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대지 : 220평,건평 60평, 법당, 요사채 2동
● 전세 : 2억5천(절충가능)
02)762-2204 / 02)745-6939
011-244-2083

행자모집
천년고찰이며 전통수행도량인 본 사찰에서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신심과 원력을 가진
수행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설악 백담사 033)462-6969

해외포교에 관심있는 분 모심
한국사찰로서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종교국으로 부터 설립허가를 득한 사찰입니다.
한국인이 제일 많고 한국기업만 10,000여개의 회사가
상주한 중국 청도에서 포교의 꿈을 실현할 50세 이상
주지경험이 있는 비구스님을 모십니다.
FAX 031)906-5108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행자 [예비스님, 남 · 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남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탈종공고

● 사찰명 : 내원사
● 주 지 : 손중식
● 주 소 : 대전시 서구 도마동 424-1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한국불교태고종에서
탈종을 공고함

2005년 7월 27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매매 잔금 대출
● 불사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대구]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TEL. 053)426-1037
H P. 011-527-1037
(서서열 전무)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7-242-0808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기적의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시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 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친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세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 법당: 30평
- 요사: 60평
- 부지: 11000평
- ※ 농작물 년수입 4000만
- 가액: 10억

- 위치 : 전북 전주
- 법당: 25평
- 요사: 60평
- 부지: 440평
- 가액: 2억5천

- 위치: 서울 강북구
- 임법당: 40평
- 부지: 61평
- 가액: 3억5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① 서울시내大사찰-45억
② 경기명산사찰터-평당5만원
③ 여주사찰2000평-3억
④ 양평산속사찰3000평-8억
⑤ 원주명당사찰1000평-5억
⑥ 천안여법한절3000평-9억
◆ 대작불사,노후투자상담환영
※ 직원.공양주.부전스님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부산 강서구 녹산동 부근 경내에 500년생 괴목 2그루 (부산시 보호수)있음
- 법당. 요사(큰방1, 각방3) 등기필
- 가액: 3억5천만원

010-5655-1250
051)973-4562
051)941-8989

포교당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삼존불,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031)826-0376

포교원(철학)안내

- 위치: 서울 강서구 화곡동 (2, 5호선 1분거리)
- 4층건물중 2층 평수 30평 유동인구 많은 시장입구위치 모든시설완비, 법당최상급 삼존불모셔있음,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시설금 합 5천2백만원 월 70만원

010-8527-8747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땅 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18평 외 미륵불
- 요사: 23평, 용왕전
- 급매 1억2천, 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40평
- 법당 : 12평
- 요사 : 12평
- 가액 : 2억 3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
- 3층 건물에 3층 70평 법당30평, 주지실, 사무실, 총 방5개, 참선방 4칸,주방, 욕실, 화장실 3개(실내외)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66만원,시설비2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969-9895
032)572-7508

신 축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대전 20분거리)
- 대지: 200평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목조) 요사채 18평 11평
- 옥천읍 5분거리에 270호의 촌락의 끝이면서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사찰로써 비구니스님께 적합
- 가액: 1억1천만원

011-9405-8186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37평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 9백만원(집기일체)

043)211-7893
019-656-2766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7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평수: 600평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 (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7층석탑 전망좋고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7억3천만원

011-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내
- 부지: 600평
- 법당: 20평(목재)
- 요사: 40평
- 가액: 3억(융자가능)
- ※ 산세좋음

- 위치 : 경남 김해시내
- 대지: 150평
- 요사: 40평
- 가액: 1억5천
- ※ 산세좋은 토굴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 천년고찰 아래 마을
- 건물 : 주택 30평, 불상 모심 대지 500여평, 1600여평
- 가액 : 2억

043)832-6144
043)832-2090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동 2층건물의 2층
- 법당 15평, 전체 32평 시설일체 완비
- 가액 : 보증금 2백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8백만원

016-640-8133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부근
- 대지 68평, 건평 35평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269-8688
052)223-8617

사찰안내

- 위치: 전남 순천시 부근
- 대지 250평, 건평 25평 완전목조, 대웅전, 신축건물, 화장실, 교통편리
- 가액: 2억5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61)742-8977
017-875-6712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구미시 소재
- 부지 : 140평(3층 건물중 3층)
- 법당 : 100평 (방4개, 옥상 사용 100평)
- 가액 : 1억 9천만원
- 특징 : 도심 포교당으로 법당 시설비만 1억이 투자된 멋진 도량임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부지 : 70평(사용평수:200평)
- 법당 : 25평(기와, 단청:임법당)
- 요사 : 15평
- 가액 : 1억 7천만원
- 특징: 숲과 계곡이 있는 도심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 평수: 110평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시설비 별도)
- ※ 능력있는 분에게 좋은 조건으로 양도

011-436-009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150평, 법당 목조 12평 요사채 벽돌 25평
- 가액 : 8천5백만원

016-652-7547

사찰안내

- 위치: 충북 단양
- 전체 430평중 대지평수 290평 요사채, 대웅전, 지장전 시설일체완비
- 가액: 1억4천만원

011-9567-5300

포교당 안내

- 위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 평수 : 22평
- 삼존불, 각단탱화, 에어콘 및 집기일체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전세+시설비포함 3500만원

011-380-5611
031)251-5615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14억
-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6248-734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인접지역
- 단독 2층(20년 전통사찰) 법당 2층 30평 요사 1층 50평
- 전세 보증금 3천만원 시설비 : 내방후 절충

031)536-0403

사찰안내

- 위치: 원주 미륵산 산세최고 명당터 사찰
- 원주 충주 10분거리 중간위치에 있음
- 평수 종교부지 포함 123평
- 법당 요사 건물 2동 40평 등기 외 부속건물 3동
- 가액: 7억3천만원

011-371-5567

암자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금호읍 양남1리 시내에서 5분거리 영천IC에서 5분거리
- 대지 약 100평, 법당 1개, 요사채 1
- 가액: 5천3백만원

054)338-8202
011-379-4442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의령
- 종교부지평수 600평 +400평(1000평)
- 건물: 요사채1동 임법당 가기와1동(별도)
- 가액: 총 4천만원
- 스님불사관계로 인연되시는 분께 드림

055)573-7832
010-3189-3525

암자(급)안내

- 위치: 경기도 가평군(가평읍에서 20분거리)
- 앞 수려한 경관, 뒤 울창한 산림의 수행터. 자연식수물과 큰 물이 흐르는 오래된 암자.
- 법당 1동, 요사채 70평, 정각2동, 산신각, 용왕전, 용화전, 기타 목욕실 화장실 등 전체 2,530평에 국유지 3천여평 사용가능.
-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용도관계 없음.
- 전화상담 후 현지답사. 가격결정

011-9126-2266

포교원 적합한장소 안내

(포교원 최적지 상가건물 3층)

- 구미지산동 고층아파트 윗 주택가
- 평수 : 40평 ● 가액: 7300만원
- ※ 월세 원하시는 분
- 보증금 1천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권리금 없고 선착순

- 김천 352평 평당 8만원
- 별장 밀집지역. 청정계곡접
- 국도에서 도보로 1분거리

-사찰 주말 농원-

010-4512-4248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묵2동 243-24호 2층
- 평수: 30평 방2개 법당1 욕실겸 화장실1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500만원 (A급)
- 몸만오시면됨

02)972-3123
011-9093-8766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고성읍내
- 대지: 192평
- 법당: 30평
- 요사채: 30평
- 산신각 각 10평(2층)
- 가액: 2억4천만원

011-879-7551

포교당 안내

- 위치: 인천 서구 관내
- 법당 50평. 시설일체 완비
- ※ 스님 노환으로 급히 안내 20년간 운영해 왔음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시설비 직접내왕 절충

010-9790-1761

암자 터 안내

- 위치: 경주시 산내면 건천I.C에서 10분거리
- 평수 : 1,160평
- 건축허가면적- 주택 25.7평, 창고 14평
- 가액 : 평당 7만원
- ※ 조용하고 물이 좋음

055)337-77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 평수: 30평. 3층건물중 3층
- 시설: 사존불외 일체. 후불, 지장, 신중,산신 탱화, 방1칸, 주방, 화장실, 베란다, 에어컨 시설완비
- 유동인구 많음, 배 300여척 드나듦
- 가액: 보증금+시설비 3500만원 월 30만원
- 역술하는분 환영

010-7181-7569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교통편리. 텃밭있음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70,000
3. 마(국내산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4. 면 : 풀 안해도 됨(먹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5. 울 · 모시론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 250,000
7. 가사 大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8. 신도용 조끼 · 바지(모직 황토 먹물염색)

■ 시원한 차이나 남방, 모지, 걸망,손가방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9-438-010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동방대학원대학교 문 화 교 육 원

200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모 집 과 정

서화예술 분야	역경명리 · 풍수 분야
한문서예 1/2/3/4 한글서예 · 사군자 수묵화 · 문인화 채색화 · 현대채묵화	사주와 심리학1/2 · 기문둔갑 실전사주명리학 초급/중급/연구 풍수지리학 형기론/이기론 복서육효학 · 육임학 초급/중급 정통점성술 · 자미두수
자연치유 분야	**불교예술 분야**
한방과 사주학 입문/연구 비전한방론 · 실전치유기공 실전스포츠마사지 청소년 상담 · 실전교정요법(학) 오행식이요법 · 요 가	불교기초교리 대승불교 교리와 불교 문화예술 사찰기초의식 · 범패실기 불교무용 · 진도북춤 불화단청 실기
외국어 분야	**♣ 특별과정 ♣**
중국어 회화 1/2 일본어 회화 한자교육 지도사	• 명리학 최고 전문가 과정 • 실전사주명리학 특별속성 • 불교 교직자 특별과정 • 민화진채 전문인 과정

모 집 안 내

▷ 접수 및 등록기간 : 2005. 6. 27 ~ 8. 26
▷ 수강대상 : 일반성인 남 · 여 / 학력 제한 없음
▷ 개 강 : 2005년 8월 29일 월요일 (총 16주)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사진(3cm×4cm) 2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www.dongbang.ac.kr
136-8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Tel. 02)745-2142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유년은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 구 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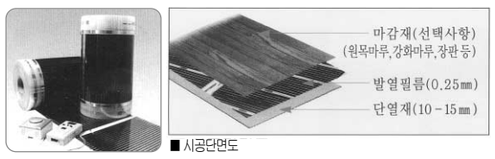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웰빙난방 기존 난방비의 80% 절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미국칼로리규사 직수입품입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시공전문업체)

041)545-5593, 010-8120-3592

회암사지부도 '무학대사부도'로 이름 바꿔
(가칭)

무학대사의 사리가 봉안돼 있는 '회암사지부도(보물 제388호)'의 명칭이 변경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무학대사의 것이 분명한 부도를 '회암사지부도'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명칭변경을 요청한 봉선사(주지 철안, 회암사의 본사)의 민원을 수용키로 결정, 명칭변경 추진 계획을 최근 봉선사측에 전했다.

바뀐 이름에는 '양주회암사무학대사부도(가칭)'와 같이 '무학대사'가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부도의 주인공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지)부도'라 불리는 부도들의 명칭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도란 고승의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사리를 모셔 조영한 승탑이므로, 이름에 주인공을 명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부도의 주인공은 선문의 개산조를 비롯해 한국불교사의 대표적인 고승대덕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당호는 사찰의 전통과 특성을 드러내주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칭이 결정된 무학대사부도를 소유하고 있는 회암사(주지 각원)에는 고려말 · 조선초의 대표적 승려인 지공 · 나옹 · 무학스님의 부도가 모여 있다. 하지만 '지공선사부도(경기유형문화재 제49호)' '나옹선사부도(경기유형문화재 제50호)'와 달리 무학대사부도만은 '회암사지부도'로 불림으로써 오랜 기간 회암사에 주석하며 왕사의 역할을 수행한 무학대사의 자취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 점을 아쉬워한 봉선사측은 △부도의 주인공이 밝혀질 경우 그 승려의 이름을 명칭에 반영하는 것이 명명의 원칙이라는 점 △3대화상 가운데 '무학대사'만이 문화재명칭에서 빠져있는 점 △회암사지의 '회암사지부도탑(경기유형문화재 제52호)'과 혼동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경 양주시청에 명칭변경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5월경 다시 문화재청에 민원을 냈고, 해를 넘겨 7월 5일에서야 문화재청으로부터 민원 수용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다만 정확한 명칭은 현재 작업 중인 '문화재명칭부여기준' 마련 후, 확정될 예정이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되면서 32년간 '회암사지부도'로 불려온 무학대사의 부도가 머잖아 바른 이름을 찾게 될 전망이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봉선사 지난해 민원제기 … 문화재청서 수용
주인공 확실한 부도, 명칭 변경 이어질 듯

봉선사측이 명칭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만도 1년 남짓한 기간이 소요된 데서 알 수 있듯 문화재의 명칭변경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변경을 요구하는 측은 주장을 확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 · 제시해야 하고, 이를 심의하는 문화재청 또한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그 자료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하기 때문이다.

명칭변경의 절차는 문화재지정 절차와 거의 같다. 즉 변경요구를 접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이를 검토한다. 여기서 명칭변경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기간이 지나면 다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변경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게 된다.

무학대사부도의 경우 아직 명칭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명칭이 확정되고 고시되기까지는 앞으로도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명칭변경을 원칙적으로 수용한 것은 문화재 제자리 찾기 차원에서 좋은 선례라는 지적이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학대사부도처럼 주인공이 분명히 밝혀져 있음에도 '○○사(지)부도'로 불리는 부도는, 지정문화재로 관리되는 부도(부도군 포함) 133건 가운데 6건이나 된다. 하동 쌍계사부도(보물 제380호), 양양 선림원지부도(보물 제447호), 석조부도(보물 제351호, 이화여대소장), 강릉 굴산사지부도(보물 제85호), 울진 불영사부도(경북문화재자료 제162호), 천안 광덕사부도(충남문화재자료 제253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쌍계사부도의 주인공은 우리나라 범패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진감선사며, 선림원지부도는 홍각선사, 이화여대소장 석조부도는 대경화상, 강릉 굴산사지부도는 범일국사, 불영사부도는 양성당선사의 것이다. 또 광덕사부도는 진산화상의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고승의 당호를 문화재 명칭에 반영하는데 무관심한 문화재청의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무관심하기는 불교계 역시 마찬가지다.

이 같은 무성의한 이름붙이기의 결과, '석조부도'라는 똑같은 이름의 부도가 이화여대 1점, 경북대박물관에 2점(보물 제135 · 258호) 등 총 3점이나 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빚어진다. '광덕사부도'라는 이름 또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진산화상의 부도 외에도 충남유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부도군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쯤이면 문화재명칭으로서의 기능마저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봉선사의 이번 민원을 주도한 혜문 스님은 "고승 대덕의 부도에 바른 이름을 찾아주는 것은 사찰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며 "불교계가 부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문화재청, '문화재명칭부여기준' 만든다

일관성 통일성 주기로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이 '문화재명칭부여기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재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명칭부여기준'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 이 같은 작업은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그때그때 명명되다보니 문화재의 명칭에 일관성이 없고,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부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같은 문제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가령 사리탑의 경우 부도와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혼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주사세존사리탑(충북유형문화재 제16호)과 같이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탑을 사리탑이라 명명한 듯하지만, 장유화상 부도 또한 사리탑(장유화상사리탑)으로 불리고 있다.

'부도'라는 명칭의 적절성 여부도 문제다. 부도는 불자나 승려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 경우가 많으며,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불탑을 부도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도는 스님의 사리를 모신 탑에 한정된 명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승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문화재명칭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 채수희 사무관은 "문화재명칭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을 아끼며 "적절한 시기에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공정율 97.3%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은 개관을 100일 앞둔 7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관준비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박물관 건립 공정율은 97.3%로, 헬기장지역 조경 및 옥외화장실 공사를 남겨두고 있으며 야외석조물 28건도 복원이 완료됐다. 8월 9일에는 경천사지10층석탑의 복원을 기념하는 낙성식을 가질 예정이다.

교통편의 관련해서 박물관측은 "기존 2개 노선이던 시내버스를 5~7개로 확대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4~5개 신설하기 위해 서울시 · 경기도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9>

시 · 청각과 벽암록 한 구절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는 반야심경에 '무(無)안이비설신의'라는 귀절이 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그리고 뜻을 내는 기관인 눈 · 귀 · 코 · 혀 · 몸(피부), 그리고 뇌 신경조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참으로 기막힌 말과 같이 들린다.

게다가 이 기관이 느끼는 색 · 성 · 향 · 미 · 촉 · 법 또한 없다고 선언하니 더욱 놀라울 뿐이다.

눈과 귀는 우리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관이다. TV를 볼 때나, 전축, 핸드폰 모두 눈과 귀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 눈과 귀의 지각 메커니즘은 매우 흥미롭다.

외부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은 파동을 통해서다. 파동이란 파도와 같이 높낮이가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 빛이나 소리 모두 파동의 모습으로 다른 지역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 주파수는 이 높낮이가 1초에 몇 번 정도 변화하는가(이를 헤르츠라고 한다)를 나타낸다. 빛의 주파수는 약 10의 15제곱 헤르츠 정도이고(1억의 약 100만 배)이고, 소리의 주파수 중 약 16헤르츠부터 20킬로 헤르츠 정도를 귀로 들을 수 있다. 재미있게도 외부 세계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파동의 주파수 영역을 보면, 대부분 빛과 소리 영역에 있다. 즉, 태양에서 만들어지는 빛, 그리고 자연에서 만들어 지는 소리에 맞추어서 눈과 귀가 이 주파수에 반응하도록 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반야심경에서 주장하는 '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눈과 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없다는 것일까. 우리가 듣고 있는 방식의 한계를 일깨워주는 것일까. 아니면 집착하는 '나'라는 물건이 없다는 과학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관세음보살은 듣는 것(파도소리)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 위대한 성자다. 파도소리를 예로 들어보자(꼭 파도소리가 아니어도 좋다). 밀려들어오는 소리, 다시 물러나가는 소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빈 공간이 연속해서 들려온다. 우리는 밀려들어오는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나가는 파도소리를 예측한다. 밀려들어오는 파도소리를 명료하게 듣고 있다기보다는,

빛과 소리의 파동에 눈과 귀 주로 반응
듣는 순간 어느새 집착하는 나 끼어 들어

여기서 우리는 밀려들어오는 파도소리와 함께 듣는 내가 같이 개입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하나의 파도소리에서 그 소리에서 '집착하는 나'가 같이 끼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바로 듣는 것으로부터 항시 존재하는 집착하는 하는 '나'에서 해방됨으로써 부처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벽암록> '제46칙'에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문답을 주고받는 경청 화상과 제자가 등장한다. 무대는 아마 요즘과 같이 무더운 여름이었을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제자에게 묻는다. "문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빗방울 소리입니다." 이에 스승이 질책한다. "중생이 전도되어 바깥



그림 : 문병성

제18기 전생 · 빙의/영 치유법 특별강좌!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면-전생 · 빙의/ 영치유법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 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빙 의 치유법	◎ 빙의 진단법 ➡ 빙의령확인 ➡ 영가와의 대화 ➡ 영가천도 ➡ 천도확인➡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 악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를 통한 원격제령 천도법 ◎ 신도가 자기 몸 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도 있다.
전생요법	◎ 전생과 현생은 천륜보다 질긴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고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 통 사 주 명리학	◎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심리치료, 자율훈련, 최면 명상법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 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 치유력 활성법 등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 영가의 생전시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원인 모를 불임시에도 낙태 영가를 의심해봐야 한다.

본 강좌 개강 8월 4일(매주 목요일) 오전10시~18시까지 7회 과정
▶신청요령 : 전화접수 및 방문신청
▶교 육 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 한국의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지원

통신교육 방식
통신 (VIDEO) 교육과정
▶전생 · 빙의/영치유 전체교육내용을 실황 녹화한 비디오테잎을 매주 1회(2시간용 3개씩)우송 (7회과정 비디오 테잎 총 20개)
▶실습능력 점검 및 질의응답 등 보충교육을 위해 1회 본원에 출석수업
▶특전:수료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한국전생빙의연구회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교육비 : 200만원


원장 상담학 박사 임 재 형

주최 :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 전 화 : (042) 255-0734~5
• 장 소 : 대전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대전역에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무료공개강좌
※ 본 교육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거나 1만원을 송금하시면 공개강좌 비디오 및 안내 자료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8월 1일 오후1시~4시까지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치유목회 대학원 겸임교수
SBS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KBS 무한지대Q, MBC TV특종놀라운세상, iTV,CMB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과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 공무원 연수원. 기업체 등에서 강의

일주문



'분쟁없는… 포럼' 에서 축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7월 21일 서울 중구 세실세미나실에서 열린 '종교인이 본 분쟁 없는 사회 모색 학술포럼' 에 참석, 축사를 했다.



예비 교화스승 교육

진각종 교육원장 경정 정사는 7월 25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총인원에서 교화스승 양성을 위한 제5기 예비교화스승교육을 실시한다.



동방불교대 합동득도 교육생 격려

동방불교대학장 법장 스님(태고종 중앙 사정원장)은 7월 19일 태고총림 선암사를 방문하고 행자교육중인 동방불교대학 합동득도 교육생을 격려했다.



청소년 차문화 교실 개설

자비신행회 이사장 현장 스님은 7월 27~30일 광주 자비신행회 교육관에서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차문화 교실' 을 개설한다.(062)234-2732



신임 조계종 포교국장에

조계종 교육원 前 연수국장 재현 스님은 7월 19일자로 신임 포교국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경산 안흥사 주지, 의성 옥련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김진태 검사 초청강연회

우리는선우 성태용 이사장은 7월 23일 서울 우리함께회관에서 <물속을 걸어가는 달>의 저자 인천지검 김진태 검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자비복지타운 건립 기금 전달

(재)보덕학회 윤용숙 회장은 7월 4일 '자비복지타운' 건립 기금으로 승가원 이사장 종범 스님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

김유혁 총장 '숨은 명장 20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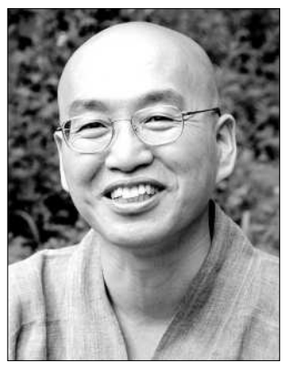
천태종 금강대 김유혁 총장(사진)은 7월 26일 '숨은 명장 20인' 중 교육분야를 대표하는 '숨은 명장' 에 선정됐다. '숨은 명장' 은 노동부에서 부여하는 타이틀로서, 매년 교육과학 경영 의료 등 9개 분야 주요인사 중에서 업적과 인품, 활동이 뛰어난 사람을 선정해 널리 알리는 제도.

김 총장은 2004년 3월 금강대 총장 부임 이후 개교 2년차의 신생대학이면서도 세계의 유수대학인 중국 베이징대학(세계 대학순위 17위), 요녕 대학, 상해사범 대학 등과 국제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미니홈피' 를 통해 사제의 벽을 허무는 등 훌륭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준 점이 높이 평가됐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통일 · 평화 화두는 대화로 풀어야죠"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 남남갈등해소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평화재단은 통일과 그 이후의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 3세계 난민 구호는 물론 '빈그릇 운동' 등의 대중적인 환경운동을 펼쳐온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사진)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7월 19일 서울 정토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법륜 스님은 "지난해 11월 평화재단을 설립했지만 지율 스님의 단식과 문경 수련원 환경 훼손 문제로 활동을 하지 못했었다"며 "구체적인 평화정착 방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월말 미국에서 디트라니 북핵 담당 대사를 비롯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던 법륜 스님은 "1년여 만에 개최되는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화가 잘되면 '호재' 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악재' 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륜 스님은 또 "남북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에서 기인한다"며 "북한 내부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법륜 스님은 불교계의 대북교류에 대한 조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스님은 "남북민간교류에서 불교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륜 스님은 하반기에도 강연을 통해 대중들과 함께 통일과 평화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주 기자

한 · 양방 협진의 새 전형 만들터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원철 한방병원장



"양 · 한방 협진 종합병원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7월 18일 개원한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원철 한방병원장(사진)은 "종립대학인 동국대 부속 불교병원의 한방병원을 이끌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가운데 양 · 한방 진료를 같이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일산불교병원처럼 한 건물 내 완전 통합된 진정한 개념의 양 · 한방 협진체계는 처음이다.

사실 양 · 한방 협진은 말처럼 쉽지 않다. 전공별로 세분화된 양방끼리도 진료영역을 놓고 서로 다투는 것이 예사인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양의와 한의가 협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료업계 통념이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일산불교병원과 한방병원은 한 건물 안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양 · 한방의 전산시스템까지 모두 통합되어 있다"며 "양방 25개, 한방 8개 진료과가 오직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봉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산불교병원 양 · 한방 협진으로 대한민국 의료계의 혁신적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진료분야의 특화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일산지역의 특성에 맞춰 부인질환, 소아질병, 정신치료, 노인클리닉 등 한방의 강점을 살린 의료서비스로 지역주민과 불자들을 감동시키겠다"고 말했다.

100여명이나 되는 한방 의료진들에게, 늘 환자들을 부처님처럼 섬겨 달라고 주문한다는 이 원장은 "병원이 잘되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부족한 것은 지

해병대 250여 신병 수계법회



해병 제1000기와 999기 신병 수계법회가 7월 15일 포항 해병대 신병교육단 해룡사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법회의 계사인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해병 신병 250여 명에게 계를 내렸다.

이 행사에는 해병대 해룡사 주지 일각 법사, 포항사암연합회장 난승 스님 등 포항사암연합회 소속 사찰 스님과 신도 500여 명이 참석했다. 포항사암연합회는 그동안 매월 해병 교육대, 해항사와 공동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해 오고 있다. 배지선 기자

동국대, 국립극장과 공동협약 조인식



동국대(총장 홍기삼)와 국립극장(극장장 김명곤)은 7월 19일 서울 국립극장 회의실에서 '아시아 문화동반자 사업' 공동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협약은 교육현장과 공연 예술 현장의 상호협력 발전을 목표로 체결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홍기삼 동국대 총장, 김명곤 국립극장 극장장 등이 참석했다.

(사)보리, 전통문화 발전 주제 세미나



사단법인 보리(이사장 김재일)는 7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재일 이사장, 민족문화연구소 주강현 소장, 문화방송 윤영관 편성실장, 한국방송 백능영 PD,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황평우 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전 개원식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는 종로구 견지동 선일빌딩에 새로 사무실을 마련함에 따라 7월 19일 이전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진해 해군 군법당 영월스님, 생명나눔 이혜숙 사무총장, 생명나눔 후원회 이만석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 사업보고, 하반기 사업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 해광사, 부산 금강사 등 불사회향



미륵종 울산 해광사(주지 마하) 산신탱화 점안법회가 7월 18일 봉행됐다. 이날 미륵종 화엄회 회장 월산 스님을 비롯한 2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미륵종 부산 금강사(주지 혜경)은 7월 17일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밀양 극락정사(주지 혜안)는 7월 16일 부처님 봉안법회를 각각 봉행했다.

호국상승사 법우회 창립



육군 7군단 호국 상승사(주지 오성 법사)는 7월 10일 군종병 모임인 호국 상승사 법우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신도회원 40여 명과 국군장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성 법사는 "법우회 창립에 도움을 준 7군단 발전협의회, 수원 미타회, 서월농원 원장님 등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성 명 서

우리 통도사 대중은 영축총림 정상화에 있어서 방장스님과 집행부의 행보에 대해, 대단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바 "통도인 화합을 위한 모임"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사부대중의 이해를 구하고져 합니다.

03년 12월 4일 월하 방장스님 입적 후 백일재도 채 모시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집행부는 04년 2월 4일 후임 방장스님을 초우스님으로 결정 총림임회서 만장일치로 추대하고도(당시 산중총회는 생략이 가능하다 생각 했음) 중앙종회에 추대 동의 요청을 구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동년 3월 임시종회에서 개정 총림법이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초우스님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당시 고불총림 백양사의 경우, 통도사보다 더 늦게 총림임회와 산중총회에서 현 방장 큰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도, 구 총림법으로 고불총림을 정상화시킨 경우가 있으며, 당시 통도사 집행부가 같은 시기에 중앙종회에 영축총림 정상화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현 집행부의 천려일실, 우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신 총림법이 즉시 발효함과 동시에 구 총림법의 임회규정이 일년의 경과 과정을 두고 있었든 바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으면 영축총림의 정상화는 또 한 번 구 총림법으로 가능한 상황이였음에도 일년 동안 총림정상화에 덧셈, 뺄셈만 하다가 구 총림법을 사문화시키는 우를 다시 범하고 말았습니다.

신총림법을 도입 산중총회를 개최했으나 05년 2월 28일 1차 산중총회 역시 유회, 05년 4월 20일 2차 산중총회 역시 유회로 끝나면서 총림정상화는 요원해지고, 설상가상으로 주지 임기만료(05년 9월 6일)가 다가오면서 집행부의 의중이 총림대중의 의사를 무시하고, 총림 정상화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 총림법의 발효 이후 초유의 준총림사고 사찰이 진행중이고 총림대중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이는 현 시점에서, 현 통도사주지스님께서 공식모임에서의 '입장표명'이 미루어지고 현 주지임기가 '05년 9월 6일로 차기 주지 품신 절차가 다루어져야 함에도, 합법적 방장부재상태의 지속에다 총림임회의 기능이 사실상 와해된 현실에서, 현 주지스님에게 거듭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당시 부방장에 계셨고 방장위를 승계한 현 방장스님께서도 영축총림의 비정상적인 상태의 지속과 주지스님의 계속적인 실정에 대해 법적, 도의적인 책임이 없는지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방장스님 부재와 주지임기 말에 즈음하여 비상대책위원회(집행부 포함, 노천문도 및 경봉문도 동수와 "통 화 모")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뒤늦게나마 방장스님과 주지스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마지 않으며, 방장스님과 주지스님에게 불은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통 화 모"의 입장을 밝힙니다.

불기 2549. 7. 16(2005년 7월 16일)

"통도인 화합을 위한 모임"

수석 공동대표 **인산**, 상임 위원장 **명신**, 간사장 **동주** 외 발기위원 107명



불자 세상보기

김 용 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통일을 여는 백두산관광

해방 60년을 맞은 올해 백두산 관광길이 열린다. 우리 땅 밟고 민족의 성산을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제의 침탈과 분단으로 얼룩진 20세기 민족사를 뒤로 하고,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준비하는 한민족에게 이 소식은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다. 중국땅을 통해 오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했을 것이다. 왜 그 먼 길을 돌아서 올라야 하는 지 말이다. 그리고 언제쯤 우리땅을 딛고 오를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이다. 바로 8월말 시범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땅 백두의 가을 천지와 단풍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자는 지난 6월 세 번째로 백두산에 오를 기회가 있었다. 그날 따라 천지는 운무에 싸여 그 청량한 쪽빛을 보여주지 않았다. 중국쪽 정상에서 남쪽을 바라보며 다음에 오게 될 때는 꼭 우리땅 개마고원 끝자락 백두를 오르고 싶다는 소망을 부처님 전에 빌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 될 날이 멀지 않을 거라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소망이 현실로 다가선 지금 설레는 마음 가눌 길이 없다.

백두의 언덕을 오르는 모든 이들은 '마음 속의 통일'을 곧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민족에게 백두산은 단순한 등산 코스가 아니라 그 이상의 숭고한 대상이다. 우리에게 백두산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민족의 수난과 영광을 묵묵히 지켜봐 온 큰 언덕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두산 관광길이 열린다는 것은 민족의 수난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금강산관광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맛보고 있다. 수많은 남녘 사람들이 금강산에 족적을 남기고 있다. 아름다운 산하를 보고 그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뭔가 허전하다. 이제 백두산을 오르면서 우리는 온전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김포공항을 떠나 북녘땅 순안, 삼지연공항을 거쳐 백두밀림을 북녘의 동포들과 오르내릴 때, 민족의 동질성은 좀 더 완결적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 개개인 분단의 상처는 새살이 돋아나 말끔히 치유될 것이다.

백두산관광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한 두 가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다. 우선 금강산관광에서도 경험했지만, 남북간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관광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백두산관광 자체가 북한 내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니 만큼 북한체제가 갖는 부담은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백두산관광은 관광 자체를 넘는 의미가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남북한 당국이 소중히 가꿔가야 하는 자산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삼지연공항 시설 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가능성 또한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북한은 식량난 속에서도 백두산을 자연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민족 최고의 자연 자산을 관리한다는 자부심으로 최소한의 조심스런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향후 민족생태공원으로 유지시켜 남북한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키우는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백두산관광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남북한 당국은 금강산관광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백두산관광에서 되풀이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시간이 많지 않지만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교류협력사업의 모범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백두의 언덕이 분단의 상처를 아우르는 평화와 통일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해방 60년을 맞는 지금, 백두산관광 실현은 분명 최고의 낭보이다. 8월의 태양 아래 발길은 벌써 천지에 가 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동화사 계율대법회의 의미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며, 계율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계율을 수지하지 않고 깨달음을 구한다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는 모든 것을 낱낱이 경계의 말씀을 일러주시고 일깨워주셨으며, 열반하실 때 "계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계율을 부처님 모시듯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수계산림은 출가와 재가의 계단법에 따라 개설되어 왔다. 출가와 재가의 공동체적 대중법회로 시행되는 '동화사 계율대법회'는 매우 귀한 자리다. 이번 법회가 대중에 중요시되는 몇 가지 의미를 짚어보자.

첫째, 불교의 교단사적 입장에서는 매우 값진 법회라 할 수 있다. 한국불교가 1700여년의 오랜 전통을 가졌다고 하지만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교단사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사실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따라서, 불교교단은 율장정신에 따라 출가인 비구 · 비구니와 재가인 우바새 · 우바니로 구성되어 상호의존하면서 수행과 교화를 통한 깨달음의 길로 함께 정진하는 공동체적 신행단체임을 인식하고 교단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계율의 성립과정과 남 · 북방 율전에 담긴 계율의 참뜻을 이해하여 불자로서의 긍지를 높일 수 있다. 사실 재가불자라고 하지만 불자가 되는 첫째 조건은 계율의 수지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차에 율전을 통한 출가와 재가의 위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계맥은 법통이다. 부처님으로부터 우바리존자에게 전수된 계맥이 오늘날까지 전수되어 오늘날 불교를 수행하는 모든 불자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 불교의 계맥을 확실히 인식한다는 것은 한국 불자로서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계율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정화운동이다. 불교의 계율이 출가자만의 계율이 아니라 사회의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계율을 수지한다면 깨달음의 성취로 정토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화사 계율법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산(동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비만과 과식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도 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잡아함 천식경〉

국제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병균 없는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국민의 60%가 과체중이고 이 가운데 25% 이상을 비만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생활의 서구화와 운동부족으로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이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 비만은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에게까지 전염되어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뇌졸증 등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만병의 근원이다. 따라서 나라마다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

2500년 전, 인도 코살라의 파세나디 왕은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뚱뚱한 왕은 기원정사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았다. 이때 들려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음식의 양을 조절하라'는 것이었다.

그 후 왕은 시종에게 식사 할 때마다 부처님이 들려주신 게송을 외우도록 했다. 공양게의 시작이라 하겠다. 그때부터 왕은 조금씩 식사의 양을 줄이고 과식을 피했다.

몇 달이 지나자 살도 빠지고 용모도 단정해졌다. 다시 부처님을 찾은 왕은 "음식의 양을 조절케 해서 살을 빼도록 하여 현세에 이익을 주셨고, 중도의 법을 알게 해 현세와 후세의 이익을 함께 주셨다"며 감사드렸다.

결국 비만탈출은 자신과의 싸움이자 수행이다.

갑자기 늘어나는 체중으로 헐떡거리는 자신을 바라보며 공양게 외우기를 다짐해본다.

■이준엽(취재부장 · 호남주재)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 대안 없나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동의한다. 문화재 관람의 대가로 관람료를 받는다는 아이디어에는 국민 모두의 재산인 문화유산을 하나의 관람대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깔려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찰 문화재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신심을 느낄 수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당연하다.

그렇지만 무조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사찰 혼자서 수많은 불교 보물과 유적들을 가꾸고 지켜낸다는 것은 무리이다. 특히 문화재 관람료는 그동안 문화재를 보호 수선하는 주요 재원이 돼 왔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면서 문화재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 관람료만 폐지한다면 문화유산을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재원 마련 방안을 세웠다면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문화재 보수 유지비용을 투명하게 집행할 때 한국 '문화의 보고' 불교가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심재석(서울 반포동)

불교계 군 포교에 전력 기울여야

원불교가 군부대 내에 교당을 설립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현대불교신문 붓다뉴스에서 이를 다룬 기사를 보았다. 나는 두 기사를 보고 군 포교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정말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원불교는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통해 군 포교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불교계는 자기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만 걱정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군부대 내에 교당 하나를 세우기 위해 원불교가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다.

개신교에서는 비전 2020운동을 통해 군불자의 75%를 신자로 만들겠다는 호언을 하고 가톨릭은 군종교구를 세워 매년 수많은 청년들을 신자로 만들고 있다. 원불교가 군 포교에 가세하고 여기에 대순진리회 등등 신흥종교들도 가세할 태세다.

이런 시점에 7월초까지 발족한다는 군종특별교구의 성립은 '꿩 구워먹은' 듯 소식이 없다. 왜 이렇게 불교계가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청년 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가슴 아플 따름이다.

과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후대에 전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긴다.

불교계는 이제라도 청소년 청년 포교를 위해 정말 새로운 서원을 세워야 할 것이다. 조계종 군종교구는 조계종만의 기구가 아닌 모든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하고, 군 포교를 위해서라면 누구나 팔을 걷어 올릴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제발 다른 종교가 청소년 포교에 노력하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탁연정(안동)

불사 체계적 시스템 있어야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최대로 만드는데 애쓰는 불사문화가 미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윤범모 교수의 주장을 들었다. 윤범모 교수가 〈불교평론〉 23호에 발표한 글에 따르면 전통성에 바탕을 둔 장인과 현대성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가가 서로 협력하면서 제3의 창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장점을 서로 외면하는 것이 지금의 풍토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창의성과 시대정신이 담긴 불교미술의 발전은 요원하다.

아직 바탕이 없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으니 그런 것이다. 불사를 발주하는 주체나 그걸 수행하는 장인이나 의욕만 앞섰지 그걸 담아낼 근기나 소양이 없는 탓일 것이다.

문제는 동국대가 미술학과 사학과 조경학과 건축학과 전반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빨리 정신 차리고 달라져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다. 과도기(붓다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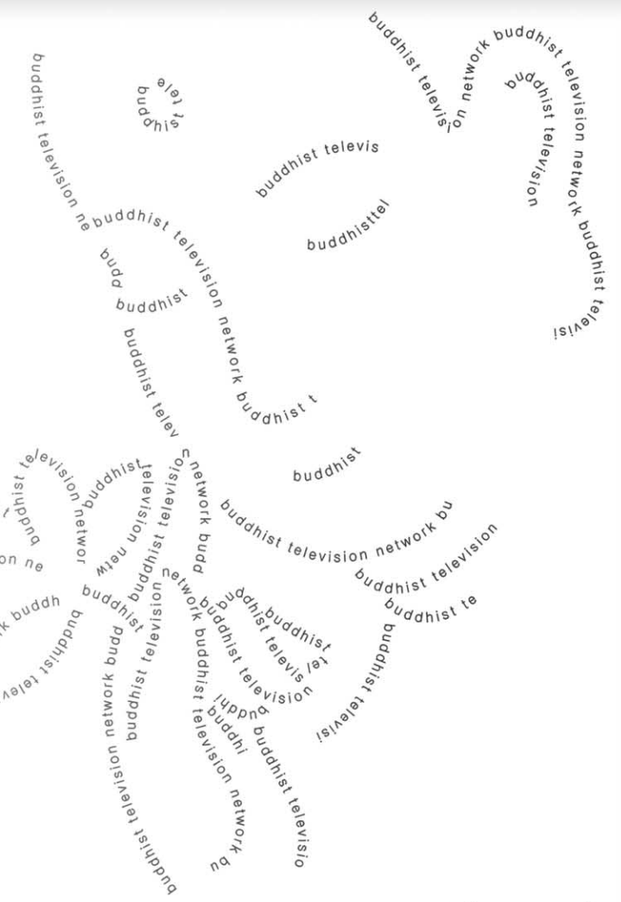
'현대' 만평 심 민 섭



Btn 불교TV

향기나는 TV, 불교TV

솔향 가득한 큰 스님의 말씀은 삶의 지혜를 밝혀주고
이야기로 풀어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그 곁에 불교TV가 있습니다.



代) 02-3270-3300 www.bt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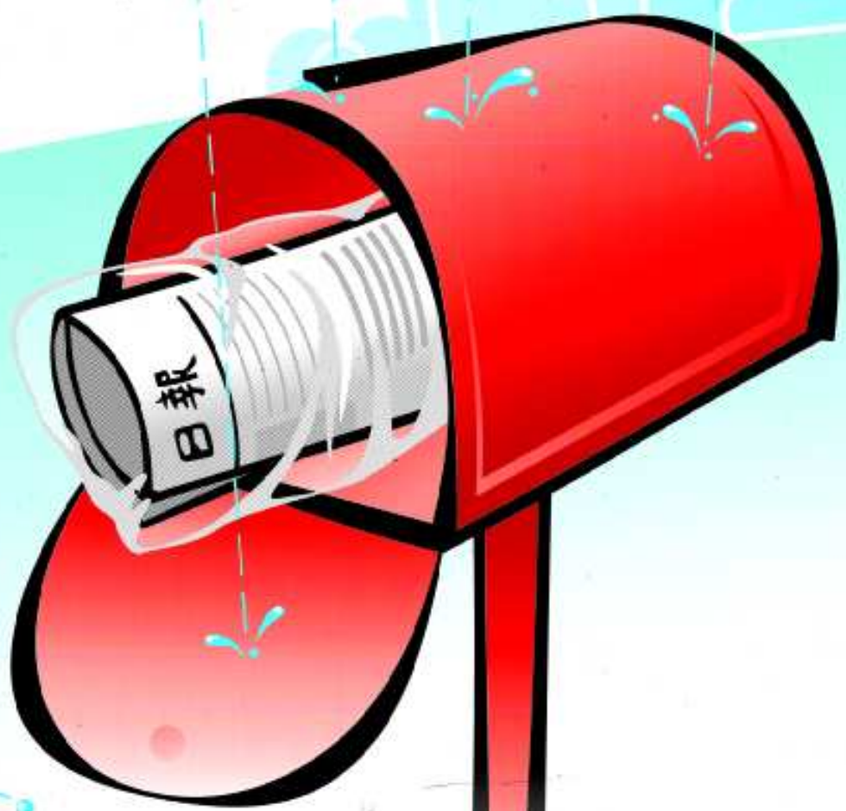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ISO 14001 획득

국제표준화기구가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제정한 규격에 따라 환경친화적 경영을
시행하는 기업임을 증명해주는 인증획득

보워터의 종이는

언제나 당신에게 꿈과 기쁨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읽는 종이, 마음을 듣는 종이
보워터한라제지가 시작합니다

최고 품질의 신문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워터는 미국 South Carolina, Greenville에 본사를 두고, 한국의 **보워터한라제지**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등에 있는 10개의 공장에서 연간 300만톤의 신문용지를 생산, 유럽, 일본, 중남미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여개 신문사에 신문용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워터漢拏製紙株式會社
BOWATER-HALLA PAPER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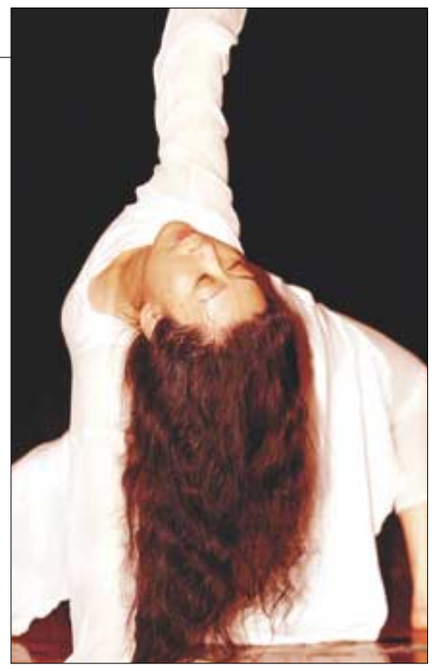
- 본 사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1664-1 TEL.(061)460-6114 FAX.(061)460-6158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1 홍우빌딩 TEL.(02)567-1576 FAX.(02)3401-2581

나 · 너 일체 이뤄야 진짜 춤

산문밖의 禪

한국무용협회이사장 · 한양대 교수

김복희



올 1월, 한국무용계에는 대 이변이 일어났다. 14년간 장기집권한 조흥동씨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새 무용협회 이사장에 김복희 한양대 무용과 교수(57)가 선출됐다. 그것도 절반이 넘는 득표율로 무용계는 새 사령관을 맞았다.

현대무용가 출신으로는 40년 무용협회 사상 첫번째인 김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그동안 한국무용이 독주해온 무용협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 한국무용협회 주최로 열렸던 서울무용제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심사위원 추첨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고, 광화문 댄스페스티벌에 2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점은 김 이사장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은 작품 기획과 협회의 행정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김 교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신이 만든 작품에 직접 출연할 정도로 무용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 '영원한 현역' 김 교수의 첫 무대는 197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교수는 이화여대 1년 후배인 김화숙씨(현 원광대 교수)와 '김복희 · 김화숙 무용단'을 창단했다. 그리고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첫 작품으로 '법열의 시'를 무대에 올렸다.

"자아 찾기 과정을 그린 불교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이었죠. 목탁과 범종, 목어와 운판을 무대위로 동원했어요. 당시만 해도 종교적인 소재를 가지고 처음 시도된 현대무용 작품이라 "저게 무슨 현대무용이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주위의 냉혹한 평가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김 교수는 '서양에 현대가 있으면 우리에게도 현대가 있다! 비록 서양적 형식을 빌어 왔더라도 우리나라 춤꾼은 한국적 정서를 담아야 한다. 현대 무용에서도 우리의 몸놀림을 찾아야 한다' 며 계속 자신의 작품 세계에 불교적 정서를 끊임없이 주입했다. 이것은 불교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불교적 소재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 대구 관음사를 창건할 정도로 불심이 돈독했던 어머니의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받고 자란 그에게 불교는 단순히 예술적 소재를 넘어선 하나의 삶 그 자체였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방학때면 자신의 고향인 대구 동화사 염불암에서 대부분을 보냈을 정도로 김 교수는 불교를 일찍부터 접했다.

그래서일까. 35년동안 무대에 쏟아낸 60여편의 작품들 대부분이 불교와 무관하지 않다. '춘향이야기'에서는 절 마당에 고요히 서 있는 탑이 이야기하는 것을 몸짓 언어로 옮겼다.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만든 '호곡'에서는 무대에 끊임없이 향을 피워댔다.

<화엄경>의 이야기를 춤으로 옮겨본 '흙으로 빚은 사리의 나들이'는 한 시간이 넘는 대작으로 정중동의 움직임을 현대적으로 잘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김 교수는 춤에 여러번 무용수들의 육성도 섞었다. 김 교수는 몸의 움직임만이 춤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소리까지도 넓은 의미의 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때론 그의 춤에는 인간의 울음과 절규도 등장한다. 원효대사 이야기를 그린 '요석, 신라의 외출' 또한 수작으로 꼽히는 김 교수의 대표작이다. 원효 대사와 주인공 달래가 꿈속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고 이튿날 아침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환'에서는 희미한 영고성쇠의 잔영속에 구음 살풀이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김 교수가 맨 앞에서 정중동의 춤사위를 흩날린다. 밖으로 퍼져나가는 동작대신 움직임을 안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이 대변해 주듯 김 교수의 춤은 인간의 연(緣)을 뿌리로 한 불교적 무용소설이다. 35년의 춤작업은 불교문학 더 나아가 한국전통 문학을 춤무대로 고스란히 불러낸 만행이었다.

"진정한 춤은 제가 밤을 세워 해인사 백련암에서 3천배 철야정진을 했던 것처럼 피나는 인고와 정진의 정신이 있어야 잉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름과 느림의 차이는 있겠지만 몸 동작이 내 자신과 일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마해야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편안한 춤사위가 나오지요. 그래서 기교를 부리기 보다는 모든 잡념을 떨쳐 버리고 무아의 상태에서 출 때 대중들도 비로소 함께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지에 오르기 위해 김 교수는 춤 연습이외에도 서울 법련사를 다니며 절수행과 참선도 열심히 한다.

35년동안 김 교수가 우리 무용계에서 이룬 기념비적인 작업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한국적인 현대춤 만들기, 남성 무용수 육성, 한국현대춤협회 발족(86년), 안무자의 작가정신을 강조한 '춤작가 12인전' 창설(87년), 무용인 최초로 체육대학장 부임 등.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그의 도전은 결국 하나씩 실현됐다.

"모든 춤은 내 자신을 찾아가면서 타인과 만나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선입니다. 따라서 관객 즉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조화되지 않으면 춤이 될 수 없으며, 시대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일찍 서양 무용의 한계를 동양적 정서, 제 삶의 일부인 불교에서 찾으려 했던 것 뿐입니다."

앞으로 은퇴 전에 대여섯 작품 정도의 대작을 남기고 싶다는 김 교수는 "어떤 사람이 그립디다. 춤은 일회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인데 허전하지 않느냐고, 문학이나 회화처럼 축적되는게 없질 않느냐고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남는게 어디 있겠노? 어차피 사라질 거라면 금방 팍 사라지는게 더 안 낫나. 그랬더니 곧장 긍정 하던군요."라며 자리를 떠났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흔들림 없이 꼿꼿한 자태에서 한국무용의 희망이 물씬 느껴졌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35년간 불교문학 등을 춤으로 승화
작품 기획 · 협회 행정 · 무용가 '1인 3역'
현대춤협회 발족, 남성 무용수 육성 등 실현
서양 무용의 한계 삶의 일부인 불교서 찾아





몸동작이 자신과 일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마해야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편안한 춤사위가 나올 수 있다는 김복희 교수.

사찰건축 전문시공업체 ■ 서도건설(주)



사찰, 단청, 문화재, 건축, 토목...

불교문화재 보존과 완성에 앞장서겠읍니다



미래를 계획하고자 하면 과거를 돌아 보아야 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그렇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옛 도시 ..

서원경에서 문화재 공사의 새로운 기운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瑞都建設株式會社 代表 曺奉鉉

忠北 淸州市 上黨區 龍岩洞 1558 1층 • 전화 : 043)294-6700 • 전송 : 043)294-5434 • H·P : 011-463 -1718

나의 수행법

이미옥 (中)



정림사 주지 일행 스님은 법신진언 할 때 대중이 내는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 속에 자신의 소리를 분명하게 들으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 스님의 말처럼, 대중의 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총 24회 중 처음 3회는 잘 됐다. 별로 아픈 곳도 없고 비교적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무릎도 너무 아프고, 합장한 팔은 천근만근이어서 도저히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합장 자세는 마치 로봇자세와도 같았다. 양 팔이 '一'자로 보이듯 팔꿈치를 들고, 합장한 양 손은 주먹이 들어 갈 정도로 가슴에서 떨어져야 한다고 하셨다.

선배보살들도 손이 가슴에서 떨어져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양 손은 자꾸만 가슴으로 달라붙고 내려갔다. 30분이 너무나 길었다. 시계 보는 습을 들이지 말라 했지만, 난 계속해서 시계 쪽으로 눈이 갔다. 무엇보다 토할 것 같아 법신진언도 할 수가 없었고 장궤합장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 30분 중 5분 정도 남겨 놓고 주저앉고 말았다. 내리 두 회를 그렇게 5분 정도 남겨 놓고 주저앉았다. 그런데 힘들어 주저앉은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아비라 기도를 하는 분이 몇 분 더 있었는데. 입승 보살께서 아비라 기도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5분을 참는 동안 기도가 다 된다고 하면서 참으라고 했다.

둘째 날, 한 회를 끝내고 쉬는 시간에 울컥 울음이 솟구쳐, 얼른 화장실에 가서 혼자 실컷 울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견디는데 난 왜 이리 힘들어할까?' 힘든 기도라고는 했지만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의 문제라고 들었다. 또 체력 또한 한꺼번에 힘쓰는 건 못해도 뭐든 끈기 있게는 한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평소에는 절하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이때에는 108배 끝나는 게 무서웠다. 장궤합장하고 법신진언을 외는 아비라 정근이 너무 무서워 한없이 절만 하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정림사는 가운데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양쪽으로 관세음보살과 성철 스님이 모셔져 있다. 이제까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기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단지 부처님과 스님을 보며 나도 저 분들처럼 됐으면 하는 생각만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1회를 시작 전에 삼배할 때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성철 스님, 저 이번 회를 잘 끝내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아마 다른 보살들이 모셔져 있었다면 그 보살님들 명호도 다 부르며 이번 회를 잘 끝내게 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4회째 5분 남겨 놓고 끝내 주저앉아 가볍게 생각했던 오만함 부끄러워

1회가 끝날 땐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성철 스님, 이번 회를 무사히 끝나게 해 주셔 감사합니다'란 말이 절로 나왔다. 아무 생각도 없고 오직 한 회 한 회 무사히 끝나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랬다.

첫 아비라 기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힘든 기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체력이 아닌 정신력의 문제라니 가볍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웠다. 또 기도는 해 본 사람만이 그 만큼 느낄 수 있다는 선배 보살의 말을 절감했다.

그 때가 절에 다닌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그간 느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생각하게 한 5일간이었다.(계속)

■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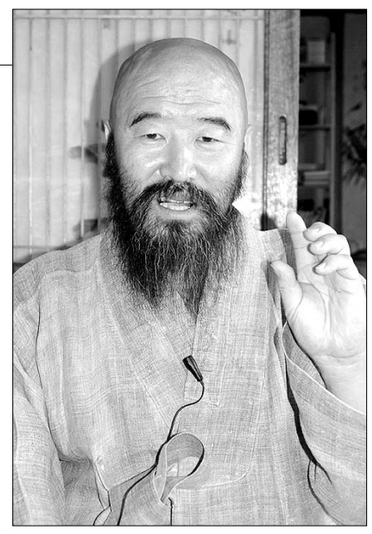
업장 녹이지 않으면 깨달음은 멀다

일우 스님이 말하는 '염불선경'의 가르침

"염불선의 소의경전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전을 찾지 못했으니, '정토삼매부경'을 통해서라도 염불선을 해야 한다."

최근 〈염불선경(念佛禪經)〉 음역본을 발간한 경주 다담선원 회주 일우 스님(사진)은 한국불교계에 처음으로 염불선 수행을 주창한 청화 스님의 말부터 인용했다. 그간 명확한 경전적 근거 없이 지도자에 따라 그 행법이 달랐던 염불선 수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우 스님의 말이었다.

그럼 〈염불선경〉은 어떤 경전이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또 여기에 나타난 염불선 수행원리는 무엇일까? 7월 16일 경주 다담선원을 찾아 일우 스님에게 물었다.



▲〈염불선경〉을 구해온 경위가 궁금합니다.

-〈염불선경〉은 10년전 중국 소림사를 참배했을 때 발견했습니다. 당시 소림사 지하 석가굴 나한당 사고에서 수만 권의 경전 틈에 껴있던 〈염불선경〉을 찾았지요. 마침 소림사 방장 융씬(永信) 스님과 인연이 돼, 소림사 복원에 일조하면서 〈염불선경〉 복사본을 얻게 됐지요. 아마도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 불교계에 〈염불선경〉이 공개된 적이 없을 겁니다.

▲〈염불선경〉은 어떤 경전인가요?

-우선 〈염불선경〉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에서 빠져 있어요. 일본의 속장경에는 있는데요. 이런 〈염불선경〉은 염불선이 선수행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경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전의 구조는 18개의 분경(分經)으로 돼 있어요. 1~7분경까지는 업장소멸법을 단계별로 소개하고, 8~17분경은 염불선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지막 18분경은 다라니로서 염불선 수행을 회향하는 구조로 구성돼 있지요.

▲〈염불선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염불선경〉은 전생에 탐진치 삼독심으로 지은 업장을 녹이지 않는 한, 간화든 묵조든 상관없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업장을 무너트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지요. 아무리 출가해 용맹정진을 해도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깨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불선경〉은 업장을 소멸하면서 염불삼매에 빠져들면, 크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업장소멸'과 '염불선삼매에 드는 법'이라 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염불선경〉은 수행자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염불선이란 것을 알리고 있는 거지요.

▲〈염불선경〉에 나타난 염불선 수행의 구체적인 행법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 〈염불선경〉을 독경을 해야 합니다. 7분경까지는 소리를 내어 업장소멸의 염불을 하고, 8분경에서 17분경까지는 소리는 내지 않으면서 경전을 읽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본래부처임을 자각케 하는 수행법으로 염불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염불선 수행으로 본인이 본래성불돼 있음을 확인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럼, 염불선을 정의하신다면?

-입으로 소리 내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지장보살과 여타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는 것이 염불선이지요. 염불하는 소리에 모든 생각이 끊어지고 그 소리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염불삼매를 체험하게 됩니다. 번뇌가 소멸되고 텅 빈 상태에서 공(空)을 체득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염불선입니다.

▲왜 염불선 수행이 중요한가요?

묵조선-간화선-염불선, 셋이면서 하나 근기상관없이 선 기초 다지는 선수행법 염불소리에 모든 생각 끊어지고 空체득

-염불선은 선의 기초입니다. 돈오(頓悟)를 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선수행법이지요. 간화선과 묵조선은 돈오로 가기 위한 수승한 단계부터 제시해요. 때문에 초심자에게는 힘든 수행법이 됩니다.

반면 염불선은 선의 기초를 다지는 선수행법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집을 잘 지을 수 있지요. 첫 단계부터 잘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점수(漸修)가 필요해요. 그래야 돈오(頓悟)가 따라옵니다. 그런 점에서 염불선은 돈오 중심의 간화선 수행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염불선의 수행원리는 무엇인가요?

-간화선과 같습니다. 말길과 생각의 길을 끊은 화두가 의심과 일념이 돼, 어느 순간 툭 터져 견성하는 간화선의 수행원리가 바로 염불선의 그것입니다. 염불삼매에 빠지면 염불을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일념회광(一念回光)'하는 거지요. 오직 한 생각에 빛이 번쩍 나 본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불선과 간화선, 묵조선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원래 선(禪) 자체는 묵조선입니다. 간화선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염불선이든 간화선이든 묵조선의 방편이에요. 좀더 선수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간화선, 염불선입니다.

때문에 묵조든 간화든 염불선이든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면서 셋입니다. 모든 번뇌 망상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깨달음에 가기도 전에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는 분별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묵조선은 '회광반조(回光返照)', 간화선은 '일념회광(一念回光)', 염불선은 '적적심광(寂寂心光)'이 핵심입니다. 즉 묵조선은 깨달음을 진여당체로 그대로 돌이켜 비추는 것이고, 간화선은 화두와 일념이 돼 한 생각이 순간 진여당체를 비추는 것이며, 염불선은 고요함 속에서 진여당체의 빛을 밝히는 수행법입니다. 결국 깨달음을 비추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요.

그래서 깨달음을 비춘다(光)는 점에서 하나고, 비추는 방식이 달라서 셋인 것입니다.

▲염불선 수행이 수행자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수좌들이 간화선 자체에 너무 매달려 있지 말고, 단 한 찰나 순간만이라도 염불선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청량제가 될 것입니다. 또 재가자들에게는 간화선 자체가 상당히 어려우니 먼저 염불선을 권합니다. 염불선은 남녀노소 모두가 근기와 상관없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염불선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 1시간씩 염불선을 하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하루 종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일정한 시간만 할애하면 됩니다. 굳이 선원이나 절에 가서 할 것 없이 집에서 해도 되지요. 시간 날 때 마다 하면 됩니다.

글 · 사진/경주=김철우 기자

10년전 중국 소림사서 '염불선경' 구해 국내 소개

일우 스님은 1943년 경주에서 출생한 스님은 13세에 백운사 백운암에서 구월산 선문의 화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춘광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대에서 한국 고조선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시카고 에일리 주립대학교 동양학과에서 7년간 강단에 섰었다.

염불선 수행은 10년전 중국 소림사에 갔다가 〈염불선경〉을 접하게 되면서 시작했으며, 이번에 음역본 〈염불선경〉과 재가자들의 독경수행을 위해 〈염불선경 예불문〉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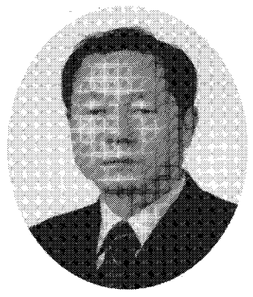
스님은 또 중국 조사들의 공안과 오도송(悟道頌)을 선원의 청규(淸規)로 삼는 한국 선방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여년간 한국고승들의 문집과 선종사 관련 문헌들을 섭렵했다.

고구려 고승 화정국사에서 조선말 경허선사에 이르기까지 37명의 선사들의 오도송과 선문답, 행장들을 정리해 〈선사들의 오도송〉을 발간한 스님은 한국 선사들의 화두는 무엇이고 수행방법은 무엇인지를 밝힌 바도 있다.

최근에는 20여년간 번역한 〈중국선종전서〉 120권의 발간을 앞두고 있으며, 저서로는 〈초극〉 〈반야〉 〈한국역대 고승의 다시〉 등이 있다.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운(大吉運)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소설<운명>은 50%의 충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소자본으로 대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 등록
ISO 9001:2000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문의전화 02)521-4453
오행쑥뜸기, 음양 쑥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찜질방 및 사우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www.moxa4u.com 오행쑥뜸 좌훈기/음양쑥뜸기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삼열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⑨

– 대구 반월당 보현사 보현선원

대구시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곳 반월당, 하루 종일 수많은 자동차와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이곳에서 수십년 세월과 세속의 번잡함을 뚫고 재가선객들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도량을 찾았다. 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주지 원일)가 운영하는 시민선방 보현선원이다.

50년 전통 이어온 깨달음의 공간

탁! 탁! 탁!

무더위가 시작된 7월 18일 오전 9시 보현선원. 입승보살의 죽비 소리에 이십여 명의 재가선객이 일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 속에 들어갔다. 푹푹 찌는 더위도 세상의 시끄러움도 이들에겐 전혀 통하지 않는 듯 고요하기만 하다.

#50여년전 보문 선사가 설립

보현선원은 한암, 만공선사와 더불어 당대 3대 선사였던 보문 선사(1906~1956)가 세운 재가선방으로 50여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그래서 보현선원에는 20~30년을 한결같이 화두참구에 매진해온 재가선객이 많다. 젊은 시절 참선수행을 시작해 수십년 세월이 흘러 80, 90을 훌쩍 넘긴 것이다. 보현선원의 최고령 수행자인 이진보행 보살은 92세의 세수에도 여느 젊은이 못지않은 수행력을 보인다. 여기에 후배 보살들을 슬며시 이끄는 모습에서 오랜 삶의 여정 속에 밴 어머니의 지혜가 엿보인다.

25년 전 입승을 맡아 보현선원을 이끌고 있는 문선덕화 보살(86)은 "30년 전 보현선원에 처음 방부를 들일 때도 선배 수행자들이 지금처럼 수행정진을 하고 있었다"며 "선이란 세월에 따라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행에는 출 · 재가 따로 없으니

보현선원은 재가불자들의 선방이지만 동안거와 하안거를 철저히 지키고, 산철에도 2월 초하루부터 3월 보름까지 8월 초하루부터 9월 보름까지 수행정진기간을 갖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음력 12월 8일 부처님 성도일을 앞둔 1주일은 용맹정진 기간으로 24시간 정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재가자이기 때문에 승가와는 달리 갑작스런 한계상황이 닥치기도 하지만 모든 재가선객들은 이 기간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동안거 하안거 결제와 해제 때는 동화사에서 조실 진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안거기간이 끝나면 동화사로부터 안거증을 받는다. 연초에는 진제 스님을 찾아가 점검의 기회를 갖고, 산철에는 사찰 순례나 선사를 찾아가기도 한다.



30여명의 재가선객들이 대구 보현사 보현선원에서 화두 참구를 하고 있다. 사진=배지선 기자

#자율적으로 지켜지는 엄한 수행체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보현선원은 오랜 세월동안 정착된 엄격한 체계 속에 수행정진을 이어간다. 특히 보현선원에 발을 들이는 순간 몸가짐부터 정갈히 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보현선원에서는 누구나 정갈하게 법복을 갖춰 입고, 한걸음 한걸음을 수행의 연속으로 생각한다. 묵언은 흐트러진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챙기는 수행자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 웬만한 일에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웃는 법이 없다.

시간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정진시간, 공양시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선방에 들어 올 수 없다. 이렇게 보현선원에서 지켜지고 있는 엄한 규칙들은 일일이 설명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다. 새로 방부를 들인 선객들이 선배 수행자들의 여법한 몸가짐을 본받아 자연히 따르게 돼 있다.

즉 보현선원의 하루일과는 엄한 전통 속에서 자율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보현선원의 수행정진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지고, 한 시간마다 포행을 한다. 오전 11시에 사시 예불을 봉행한 뒤 발우공양을 한다.

20~30여년 화두참구한 노보살들이 중심

승가와 똑같이 동안거·하안거·용맹정진

#사과 맛은 먹어봐야 안다

보현선원에서 수행정진을 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포행 시간 공부과정에서 느낀 변화들에 대해 물었다.

"입만 벌렸다면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인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지 선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한다면 다 헛깨비이니 경계해야 합니다."

입승보살은 단호한 한마디에 선공부에서 자주 닥치는 경계에 대한 주의도 곁들였다.

"그래도 실생활 속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시 방향을 바꿔 물었다.

"선 공부의 으뜸이 하심(下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수행에 몰두하다보면 어느샌가 매사에 부드러워진 자신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는 힘도 얻게 됩니다."

이보현심(67)보살이 말을 이었다. "공부를 하다보면 모든 것이 다 나의 스승이라는 말이 참으로 와 닿습니다."

이어 전기석(57) 거사는 "퇴직을 하고 마음이 복잡해 3주전 보현선원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한보산(65) 거사도 "선방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행복은 사회생활을 통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그런 것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 재가선객들의 결론은 '사과 맛은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 것'이었다.

#선배는 이끌고, 후배는 따라 배우고

그렇다면 누구든지 보현선원에 방부를 들일 수 있는 것일까? 오랫동안 수행정진을 이어온 재가불자들 사이에서 초심자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입승보살은 "누구든지 진제 스님에게 화두만 타 오면 방부를 들이고 함께 수행정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초심자라도 먼저 수행을 시작한 선배불자들을 따라하다 보면 쉽게 공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 방부를 들인 젊은 보살들이나 거사들을 보면 반갑고 감사하다"는 문선덕화보살은 이제 40대인 무념해 보살의 정진하는 모습이 그저 대견하다. 또 얼마 전에 방부를 들이고 참여한 거사들의 수행정진도 눈여겨보고 있다.

보현사 주지 원일 스님은 "보현선원 운영에 있어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재가불자들이 수행정진을 잘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잘 알려진 선승을 초빙해 소참(小參)법문을 듣고 점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053)254-5371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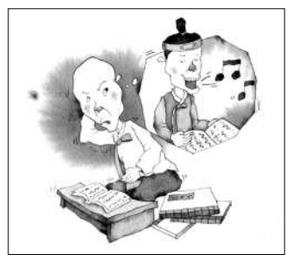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27> 처음처럼

한 때 '처음처럼'이라는 제목아래 늘 한결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이미지로 강조한 공익광고를 대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다. <화엄경>의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은 처음마음 같이 늘 한결같을 수만 있다면 깨달음은 이미 떼놓은 당상이라는 말이다.

얼마 전 모 대학 총장이 취임하면서 '무월급으로 4년을 재직하겠다'고 주변에 선언한 것은 초심을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자기다짐이라고 했다.

'작심삼일'이라고 했던가? 그래도 그게 어딘가. 보통 근기는 삼일에 한번씩 작심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근기는 '작심세시간'일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얼마나 자기와의 약속을 스스로 기만하면서 살아가는가.



성철 선사는 불기자심(不欺自心)을 강조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이다. 올 초에 다짐한 계획들이 한 해가 반쯤 지나버린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그게 두려워서 아예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런 다짐을 하지 않는다는 그것도 하나의 다짐이다. 어찌 보면 제일 못난 다짐일 수도 있다.

올 초 다짐한 계획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한해 절반을 훌쩍 넘긴 지금 한번 돌아보자

한 해의 결심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다가 보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자기도 모르게 요령만 늘어가기 마련이다. 누구라도 '적당히' 형(形)이 되기 십상이다. 그게 현실이니 '뭐 그까이거 대충~' 이라는 유행어에 모두가 쓴 웃음을 지으면서도 공감할 수 밖에 없다.

출가인들 예외겠는가? 그래서 옛 어른들은 아침마다 삭발한 맨머리를 만지면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라고 후학들에게 가르쳤던 것이다. 출가할 때 그 마음을 정말 얼마나 견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볼 일이다.

천목중봉(天目中峰 1263~1323) 선사의 회상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납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난 날 세속에 있을 때는 <법화경> 7권 중 4권을 외웠습니다. 출가 후 나머지 3권도 반드시 외우겠노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년이 되었는데도 나머지 세권을 외우기는커녕 이미 외우고 있던 네 권마저 잊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보나마나 그 이유는 방편(方便)이라는 미명하에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았거나, 중도(中道)라는 명분으로 원칙을 적당히 포기한데서 연유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납자와 같은 질문이 자기를 향해 칼끝을 겨누어온다면 별로 마음 편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중봉 선사의 답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집에 있을 때는 세속을 벗어나야겠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매양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그 생각에 4권이라도 외울 수 있었다. 이윽고 출가의 목적이 이루어지자 마음이 방일해져 외워두었던 것 까지 모두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사실 그렇다. 하지만 출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집을 나오는 것이 목적인 것은 출가가 아니라 가출이다. 모든 것은 출가 이후의 역할로 평가받는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행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출가자로서 처음처럼 초심을 유지할 수만 있었다면 20년 세월에 <법화경> 7권이 문제가 아니라 덤으로 모든 선어록을 거꾸로 외우고도 남았을 것이다.

'국립선원(?)'에서 오래 수행한 신영복의 시 '처음처럼'은 현대판 선시(禪詩)라 하겠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려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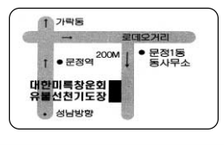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54)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금강경>의 별기(別記)를 마치며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나

이제 서론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강의를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시간에 쫓겨 밀리다 보니, 어느새 한 해가 훌쩍 갔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 귀한 지면을 내 멋대로 썼다는 미안함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금강경>을 말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자 대중들께서는…. 제 강의가 그동안 <금강경>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반대로 이제까지 <금강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쓸데없이 장황하게 했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선사들이 옆에 있었다면, 몽둥이로 두들겨 맞거나 아악하는 고함소리 몇 번은 착실히 들었을 망발을 저질렀으니 말입니다.

<금강경>은 한 마디 말로도 이미 넘치고, 또 팔만의 장경으로도 다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을 알면 불교의 근본 소식을 깨우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선법(禪法)과 교학(敎學)의 두 극단 가운데서 중용쯤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금강경> 나아가, 불교가 가르치는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그 핵심 골격에 대해 제가 엿보고 들은 바를 대강 적어드렸습니다.

이는 물론, 정통의 방식이 아닙니다. 다들 <금강경> 하면 소(疏)의 방식을 익숙히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이 시대는, 소(疏)보다는 이를테면 별기(別記)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별기(別記)의 방식을 택했나

제가 이런 별기(別記)의 방식으로 <금강경>을 해설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의 장경이 어느 곳을 펼쳐도 불교의 소식을 알려주기는 하나, 그들 각자가 표현하는 방식은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불교는 근기(根基)론 위에 서서 방편(方便)론을 말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듣는 사람을 위한 배려인데, 역시 진리는 듣는 자의 성격과 자질, 문화와 교양, 시대와 상황 등등을 고려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보다는 별기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적어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금강경>이 설해지던 당시의 독자는 기억하십시오,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상승의 불교를 설하고 있는 점에서, 진리를 자신의 전부를 바칠 각오로 오랫동안 수련해 온 이를테면 골수 불교수행자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르침은 매우 고차원의 것입니다.

2) 상황: 둘째는 <금강경>의 '말씀'은 불교의 역사를 통해 습득된 어법과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맥락과 환경은 지금의 현대인들에게는 생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언어는 진실의 일면, 빙산의 일각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어는 사실을 보여주기에는 불충분하고, 그래서 언제나 오해와 왜곡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수면 위에 잠긴 빙산의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3) 언어: 셋째는 그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해설하는 언어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소통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제일 취약하고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금강경>의 맥락과 상황은 여러 주석들이 이러저러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발전된 수많은 주석들이 바로 그 잠긴 빙산을 드러내주기 위한 보조도구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채용하고 있는 언어가, 인도 아니면 한문으로 씌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한문에 답답한 분들이 지금 인도나 남방에서 옛적의 불교를 배워오시는데, 불교의 다양화와 변증을 위해서는 장려할 일입니다마는, 그거나 그 언어 또한 한문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소통되지 않는 '낯선 비의적 언어'임을 아셔야 합니다.

제 강의는 이 세 부면의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보겠다는 기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하여 1) 최상승의 경지보다 그것이 타파하고자 하는 장애의 현실에 대해 장황하게 논의했고, 2) <금강경>이 말하는 언어보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과 맥락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3) 무엇보다 이 모든 이야기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적 언어의 지평 위에서 언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별기(別記)의 방식입니다. 저는 현대인들에게는 경전의 언어를 축자적으로 충실히 따라가는 소(疏)의 방식보다, 오해와 헛디딤의 위험은 크지만 과감한 해석과 체계를 제시하는 별기(別記)의 방식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지요.

다시 길을 나서며

그렇지만 제 강의가 이 기획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는 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보여준 것은 제가 불교와 만난 흔적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많이 틀렸을 것인데, 혹은 근본적으로 틀렸을 것이고, 때로 무책임한 소리를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보이게 해놓았으니, 그리하여 자신의 체험으로 제 망발을 비판하고 반증할 수 있으리니, 별다른 위험에 빠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위안해 봅니다. 부디 제 혀끝을 따라오지 말고, 스스로의 길을 가십시오. 장자가 말하는 대로, 길은 누구에게나 같은 길이 아니라, "각자 걸으면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道行之而成)"이니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그만 접는 것이 순리이고 당연합니다. 1000여 매를 끌어오느라 지친 붓을 쉬기도 해야 하고, 제가 몸담은 연구원에 일도 하나 맡은 터라, 처음의 공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바도 있습니다. 그런 뜻을 표했더니, 현대불교의 국장님 이하, 몇 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니,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도 않고, 연재를 그만둔단 말이오."

마친 것은 겨우 서론이니, 이제부터라도 본문을 쫓아가며 해설을 해 주어야하지 않겠느냐는 주문인데, 제 생각에는 소(疏)에 관한 한, 시중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시중의 서점에 불교책 서가의 거의 한 코너 전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금강경>의 주석들 아닙니까.

곰곰 생각한 끝에 여기 다시 하나를 더 보태기로 했습니다. "역시 별기는 소와 더불어 있을 때 완전해지는 법이겠지"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말입니다. 짐짓 외람되게 원호를 삼자면, 원효 스님께서도, <대승기신론>의 별기(別記)만으로는 흡족하지 않아서 다시금 소(疏)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무릇 총론과 더불어 각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금강경>의 근본취지를 강(講)했다 할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그 세부적 내용을 현대적으로 써 나가 보겠습니다. 1년 전 처음 시작할 때의 예고대로, 구마라습의 한역 <금강경>을 축으로, 오가해(五家解) 가운데 혜능 스님의 구결(口訣)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가끔 야부(冶父)의 촌철살인도 정문의 얼음처럼 청량하게 찍어드릴 텐데, 다시 시작되는 긴 여행이 모쪼록 지루하거나 짜증스럽지 않았으면 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소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⑯ 아누룻다의 '졸음'

조태호



아누룻다(阿那律, ?~?): 석가족 출신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한사람. 천안(天眼)이 열려 천안제일로 불린다.

네티즌 교리문답

무진장이란?

문 일상 속에서 흔히 '무진장 많다'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불교용어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양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함부로 써도 되는 말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궁금이)

답 1 : 불교문화가 우리 역사의 줄기이듯 우리 말 가운데는 불교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는 그 본뜻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본래의 뜻은 보존되어 있으나 이해가 깊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지요. 생활 속에 용해되어 있는 불교용어를 바르게 이해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저절로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무진장(無盡藏)'이란 말은 다함없는 무한자비 보시행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양과 질이 엄청나게 많다는 의미입니다. (대답꾼)

답 2 :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줄 것인가"의 명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일상언어 속의 불교용어가 '무진장(無盡藏)'입니다. 양적 질적으로 다함이 없이 엄청나게 많음을 표현할 때 "무진장하다"고 말하지요. "재물이 무진장 많다"는 말은 물질의 양적인 무한량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무진장 넓다"는 표현은 덕성(德性)의 광대무변을 비유한 말입니다. (불교박사)

답 3 : <유마경> '불도품'의 무진장에 대한 해석은 훨씬 사회적입니다. "빈궁한 중생을 돕고 이롭게 함은 무진장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이 경우는 불교의 자비사상과 무진장을 동일시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비사상의 실천적 표출은 결국 보시(布施)가 됩니다. 최상의 보시는 무주처(無住處)보시이고, 이 보시는 무진장한 숫자의 중생에게 무진장한 연민을 갖고 무진장 오랫동안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과학시대와 달라서 옛날에는 재난이 많았을 것임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스님들과 부자들이 보여준 빈민 구제사업은 실로 무진장했던 것으로 많은 기록이 전합니다.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서민을 돕기 위해 절에서 실시한 장기 저리 무담보 사설금융이 곧 '무진장'입니다. 무진재(無盡財), 무진장원(無盡藏院)이라고도 불리었죠. 오늘날의 무진회사는 불교의 자비심이 푸근하게 깃들여 있는 사설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래하고 있습니다. 무진장의 자산금은 신도들이나 장안의 큰 단월주(檀越主)가 내는 시주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때 스님들은 재가 신도들이 시주한 금액을 그렇게 알뜰히 그리고 법다웁게 썼습니다. 고려말 조선초까지도 이 무진장원의 운영은 꽤 활발했던 것으로 기록에 전합니다. 그 때처럼 무진장 주고 베푸는 사회로 돌아갑시다. (회향맨)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1			2	■	6	4
	■	■		■	■	
	■	■	■	7		
8			3	■	■	
	■	■	9			■
	■	10		■	■	5
	■	■	11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모시는 당우(堂宇) 6. 사람에게 어떤 길한 일이 생김을 미리 알려 준다는 새 7. 부엌을 맡고 있는 신 8. 한 하늘 아래서는 같이 살수 없다는 뜻 9. 아들을 낳고 한턱내는 일 10. 섣달 그믐이나 정초에 하는 인사, 세알이라고도 함 11. 평범한 남녀를 이르는 한자성어.

세로 1. 화엄경의 정식 이름 2. 병영 생활을 함께하는 동료 군인 3. 하늘이 맺어 준 배필 4. 일간신문 가운데 아침에 펴내는 신문 5. 남편과 아내.



‘혜초따라 5만리’ 낸 화가 김규현 씨

1300여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혜초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한 후 <왕오천축국전>을 새롭게 재해석한 김규현 티베트문화연구소장.

“혜초, 위대한 탐험가이자 세계인 ”

‘왕오천축국전’ 여정따라
10여년간 12개국 20여차례 순례
“혜초 열반지는 中 오대산 금각사”
기존 학설 뒤집는 주장 눈길

“혜초 스님은 처음 아랍 제국을 다녀온 동양인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인입니다. 비행기도 자동차도, 아니 자전거조차 없던 서기 720년대의 먼 옛날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다시 중국에서 인도로 가서 그 전역을 도보 순례한 혜초 스님은 정말 위대한 탐험가이자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김규현(58 · 티베트문화연구소장)씨가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에 나와있는 여정을 그대로 다시 순례하며 재해석한 <혜초따라 5만리>를 펴냈다.

<왕오천축국전>은 신라 승려 혜초(704~787)의 인도 기행문으로, 1908년 둔황석굴에 두루마리 형태로 축약본 일부가 남아있던 것을 프랑스의 탐험가 펠리오가 발견했다. 원본은 현재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상태.

김 소장이 이번 책 출간을 위해 둘러본 곳만도 12개국이 넘는다. 무려 10여년간 20여회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책도 순례 여정에 맞게 로드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 책은 각주마다 ‘가이드 포인트’ 코너를 두어 지은이가 순례한 여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순례 도전용 가이드북으로도 손색이 없다.

이 책 속에는 기존의 학설을 뒤엎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순례중에 혜초 스님의 열반지가 건원보리사가 아닌 중국 오대산 금각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동안 혜초 스님이 <천발대교왕경>을 번역, 서문을 쓰고 여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오대산 건원보리사(乾元菩提寺)는 금각사(金閣寺)의 별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 책에서 “‘건원’이란 당나라 8대 황제인 숙종의 연호”라면서 “건원보리사는 고유명사라기 보다는 건원황제의 명복을 비는 원찰이라는 상징적 보통명사”라고 덧붙였다. 또 “황제와 연관이 있는 사찰의 경우 중국에서는 이름대신 황제의 연호를 대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1300년이 지난 지금, 혜초 스님의 순례지를 따라가며 지은이가 재해석한 흔적은 책 곳곳에서 살아 숨쉰다. 인도의 라즈기르와 쿠시나가르 사이를 통과하려면 나란다대학을 거쳐야 하는데 혜초 스님은 이 대학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지은이는 혜초 스님이 나란다대학의 입학 시험에서 낙방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혜초 스님의 은사가 나란다대학 출신의 불공 삼장 스님인데 은사의 대학을 지나가면서 책 속에 이 대학을 한줄도 소개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에 나란다대학의 입학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만큼 힘들다고 돼 있어 분명 스승의 영향을 받은 혜초 스님이 입학 시험을 치렀으나 떨어져 소개하지 않았다고 재미있는 해석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그동안 순례를 하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 아프카니스탄 바미얀 석굴을 여행하다가 총탄 세례를 받기도 했으며, 중국과 인도에서는 강도를 만나 소지품을 강탈당하기 일쑤였다. 또 아프카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국경에서는 비자문제 때문에 다시 3만리를 되돌아가 항공편으로 우즈베키스탄 순례를 다시 하기도 했다.

“순례를 마친 뒤 책을 쓰면서 우리 민족의 빼어난 문화적 습기를 많이 느꼈어요. 19살의 나이로 이국으로 떠난 혜초 스님은 4년 간 서역을 여행하면서 서정성 짙은 여행기를 남겼습니다. <왕오천축국전>은 민족의 숭문정신과 문화적 긍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여시아문 펴냄 | 상 · 하 각권 1만8천원

글=김주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김규현씨는 성균관대학교와 해인불교 전문강원을 나와 북경중앙미술대에서 수인목판화를 전공했으며, 라싸의 티베트대학에서 만다라와 탕카를 연구했다. 저서로는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 <티베트 역사산책> <티베트의 사계> 등이 있으며 올 가을에는 티베트의 이상향을 주제로 한 <샴발라>를 출간할 계획이다. 또한 김규현씨는 <왕오천축국전>과 관련된 로드다큐멘터리와 음반 제작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김규현씨는 남양주 봉선사에서 7월 23일 <혜초따라 5만리>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전문가 서평



저우언라이 평전
리핑지음 | 허유영 옮김
한얼미디어 | 2만5천원

<저우언라이 평전>은 사후에도 ‘영원한 인민의 벗’으로서 중국 인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저우언라이의 일대기를 충실하게 담아낸 역작이다. 지은이는 풍부한 문헌자료와 당대 저우언라이와 교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물들을 통해 저우언라이의 일생을 밀도있게 재구성했다.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애국자였다. 국공내전 시기 충칭에서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가 그에게 “중국인과 공산당원이라는 신분 가운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라고 질문하자, 저우언라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야 물론 중국인의 신분이지요.” 라고 답한다. 이념이나 권력에 앞서 인민과 애국을 앞세운 그의 자세는 공산혁명 시기부터 1976년 사망할 때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지속된다.

그의 혁명 이력은 청년 시절 5 · 4운동 참여, 광저우 코뮌 조직, 대장정 참가, 국민당과의 항일연합전선 구축 등으로 이어진다.1949년 중국 정권 수립 경제의 근대화, 자주적인 외교, 지식인들과 문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 소수민족 문제 등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야는 없었다.

영원한 중국 인민의 벗

문화대혁명 기간중 그는 홍위병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건국 이래 17년 간, 당과 정부의 업무는 과오보다 성과가 많았다. 설령 방향과 노선을 잘못 제시한 과오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혁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반혁명이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저우언라이는 당시 혁명 지도자들중 유일하게 실각하지 않고 살아남아 중국 현대화를 이끈다. 덩샤오핑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4대 현대화’ 노선은 이미 저우언라이에 의해 주창된 것들로, 저우언라이는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해 중국 현대화의 초석을 깔았으며, 마오쩌둥 이후를 준비했다. 결국 1976년 저우언라이와 마오쩌둥의 죽음 이후 중국은 실용과 개방으로 나아가며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중국의 경제성장 하면 덩샤오핑 이후 모든 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사실 저우언라이가 총리로 재직했던 1949년부터 1975년까지 덩 이후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물질적 기초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식량 생산량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철강재와 전력 생산량은 각각 50배, 45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저우언라이를 향한 중국인들의 존경심은 이같은 외양보다는 그의 절대적 청렴 · 봉사 · 희생정신 때문이라고 지은이는 강조한다. 그는 평생 자신의 옷을 수선해 입었으며,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인부들과 함께했다. 군용기를 타고 가다가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이 메고 있던 낙하산을 벗어 울고 있는 아이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임종시엔 자신을 화장해 고향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남으로써 단 한 뼘의 땅도 자신을 위해 쓰이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청렴결백한 그의 정치철학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도 충분히 귀감이 되고 남을 것 같다. ■양익 (광운대 중국학과 강사)

소원성취



신비한 영험
부엉이
길상도

구암 합장

불초 소승은 영흥도 토굴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승려로써 부처님 법과는 십만팔천리나 어긋나는 행위인 줄 알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바 소승이 도움이 되고자 부엉이(길상도)를 소개드립니다.
소승은 법화경을 토굴에서 10년 동안을 수행 주력한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승이 원력을 세운 달마도도 첫번째 방송에 소개된 바 많은 분들의 호응이 컸었고 지금 부엉이(길상도)를 처음 소개하려 합니다. 부엉이 길상도의 원력은 늘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며 집을 갖고자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자식 걱정 하시는 분, 시험을 앞둔 취업과 학업성취 등의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길상도이므로 벽에 걸어 놓으면 3년안에 원하시는 일들이 나날이 번창하여 성공 하실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주소, 나이, 생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FAX로 보내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달마도도 한점 무료 보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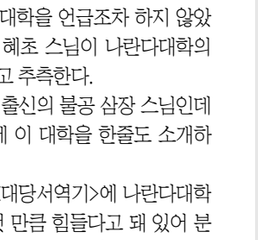
TEL : 032)886-3586 H·P : 011-9458-6616
FAX : 032)886-3587
계좌번호 : 우체국 201103-02-149423 예금주 김금수

서래달마원 원장 석구암 합장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옴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 부처님 진신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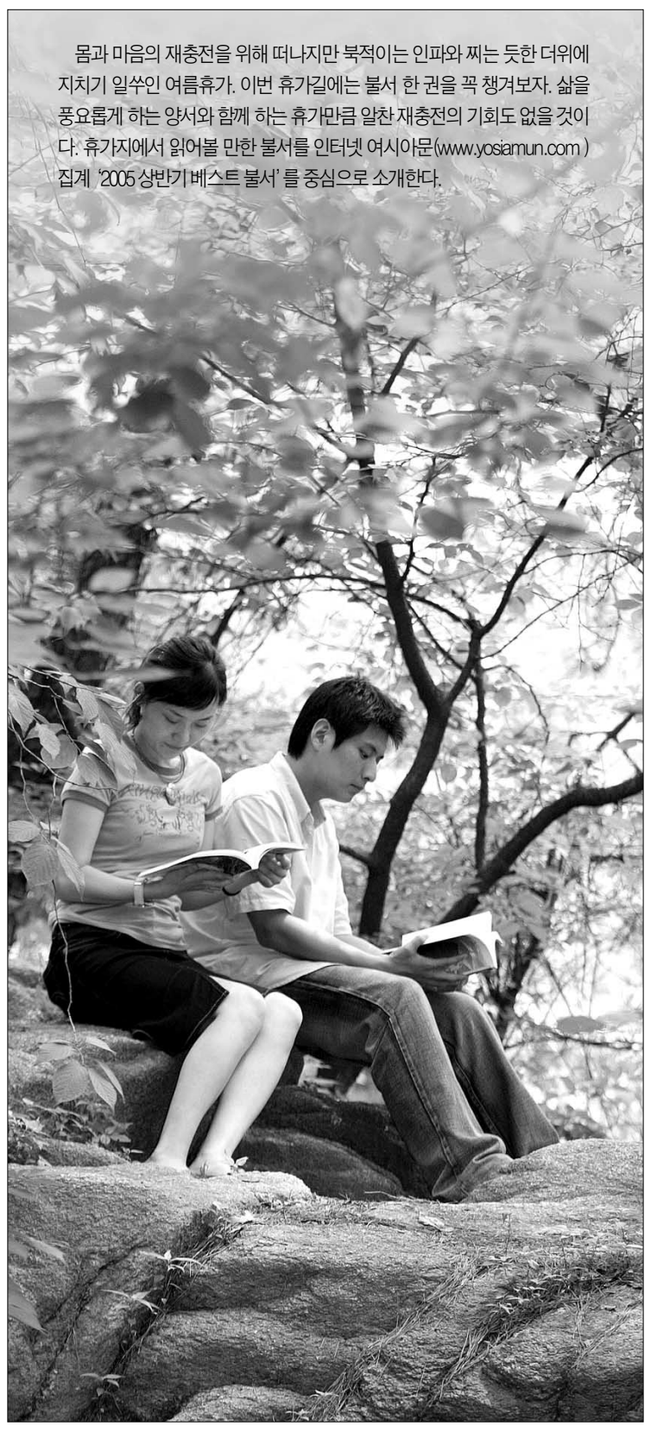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불서 한권 챙겨가면 휴가길이 즐겁다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위해 떠나지만 북적이는 인파와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치기 일쑤인 여름휴가. 이번 휴가길에는 불서 한 권을 꼭 챙겨보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양서와 함께 하는 휴가만큼 알찬 재충전의 기회도 없을 것이다. 휴가지에서 읽어볼 만한 불서를 인터넷 여시아문(www.yosiamun.com) 집계 '2005 상반기 베스트 불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휴가 기간, 시원한 계곡이나 산사에서 읽는 한권의 불서는 마음을 살찌우는 양식이 된다. 사진=박재완 기자

산사의 향기를 찾아

올 상반기,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것이 바로 단기출가와 템플스테이다.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산사에서 마음의 휴식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출가>와 **<마음으로 떠나는 산사체험>**은 각각 단기출가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하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출가>는 지난해 말 처음 실시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월정사 단기출가를 TV 다큐멘터리로 만든 윤영관 프로듀서의 제작기와 단기출가생 이민우씨(카피라이터)의 체험기를 담은 책이다. 한 달간의 출가 과정이 생생히 담겨 있어 단기출가 프로그램 참가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된다.

<마음으로 떠나는 산사체험>은 여행전문가 유철상씨가 전국 21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의 특성과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서로, 사찰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발우공양 순서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아직 휴가지를 결정하지 못한 독자라면, 풍부한 사진으로 산사의 향기를 전해주는 여행서를 펼쳐보자. 사람들의 발길이 잘 미치지 않는 암자나 산사, 혹은 폐사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조용헌의 사찰기행>과 소설가 정찬주씨의 **<나를 찾는 암자여행>**은 10여년이 넘게 산사와 암자를 순례해 온 지은이들이 들려주는 산사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볼 수 있는 책이다.

<장지현의 잊혀진 가람 탐험>은 장지현 시인이 4년간 발품을 팔아가며 전국 35곳의 폐사지를 찾아다닌 기록으로, 건물은 없어지고 절터만 남은 곳에서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펴는 '텅빈 충만'을 느껴볼 수 있다.

또한 **<마음으로 먹는 밥>**에는 호산 스님(서울 달마사 주지)이 풀어 놓는 '밥'에 얽힌 추억이, 운서주굉 스님의 수필 <죽창수필>을 번역한 **<산색>**에는 깨달음을 향한 서릿발 같은 글귀가 담겨 있어 더위를 식혀준다.

경전을 알기 쉽게

휴가 기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차게 배우고 싶다면 경전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들을 골라보자.

<인도로 간 붓다>는 현대 인도불교의 중흥자이자 불가촉천민의 해방자로 추종 받는 암베드카르가 쓴 부처님 일대기다.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나 국회의원과 법무부장관까지 지냈으며, 인간 평등과 신분제 해방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인물. 인간 해방의 길을 불교에서 찾았던 암베드카르는 인간 해방과 깨달음의 실천이라는 큰 틀로 부처님 가르침을 재해석했다.

불교 입문서로는 **<유쾌하게 읽는 불교>**가 눈에 띈다. 조계종 포교원 고명석 포교연구과장이 쓴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불교입문서를 지향하고 있다. 딱딱한 교리 해설이나 피상적인 설명 대신 생활 속의 체험이 묻어나는 '일상의 언어'로 초심자들을 불교의 세계로 안내한다.

<임제록 강설>은 조계종 교육원장을 지낸 대강백 무비 스님이 30여 년간에 걸쳐 완성한 <임제록> 강의서다. 눈 어두운 불자들을 위해 경전을 한 구절씩 해석하고 그 뜻을 자세히 풀어주고 있다.

동국대 교수 계환 스님의 **<대승불교의 세계>**와 유마선원 이제열 원장의 **<원각경>**, 부산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의 **<선으로 읽는 신심명>**, 홍익대 김원수 교수의 **<크리스찬과 함께 읽는 금강경>** 등도 올 상반기 출판시장을 풍요롭게 만든 교리 해설서들이다.

수행의 등불

2005년 상반기, 불교 출판계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종단 차원에서 발간한 수행서일 것이다. 전국 선원장 스님들이 2년 반에 걸쳐 집필한 **<간화선>**과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펴낸 **<수행법 연구>**는 체계적인 수행 방법에 목말라했던 불자들에게 한여름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지난 5월 출간된 <간화선>은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과 전국선원수좌회 편찬위원회(위원장 혜국)가 엮은 것으로, 종단 차원에서 발간된 최초의 간화선 수행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발간 한 달 만에 1만3천여 권이 판매됐을 만큼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화랑)가 펴낸 <수행법 연구>는 그동안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들쑥날쑥했던 제수행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염불과 주력 절 간경 사경 위빠사나 등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들을 망라하고 있다. 무려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지만, 자신이 그동안 해 왔거나 관심을 두었던 수행법을 중심으로 읽어나간다면 실제 수행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은 **<내 안에서 찾는 붓다>**에서 '자비명상'의 길을,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자비수관'을 소개해 집에서도 차근차근 수행의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휴가지에서 읽을만한 불서 30선



수필 기행서

제목	편·저자	출판사
공부도 놀이도 신나는 아이로 키워라	서광 스님	북폴리오
마음으로 떠나는 산사체험	유철상	랜덤하우스중앙
마음으로 먹는 밥	호산 스님	북로드
산색	연관 스님	호미
소똥 줍는 아이들	최시선	아름다운인연
나를 찾는 암자여행	정찬주	마음향기
음식이 사람을 만든다	전재근	종이거울
장지현의 잊혀진 가람탐험	장지현	여시아문
조용헌의 사찰기행	조용헌	이가서
맨발의 붓다	정운 스님	무우수
출가	윤영관 외	동아시아

교리 해설서

제목	편·저자	출판사
대승불교의 세계	계환 스님	운주사
만해 한용운의 풀뿌리 이야기	효림 스님	바보새
부모은중경	월운 스님	지영사
선으로 읽는 신심명	김태완	침묵의향기
유쾌하게 읽는 불교	고명석	동숭동
원각경	이제열	여시아문
인도로 간 붓다	암베드카르	청미래
임제록강설	무비 스님	불광
크리스챤과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공경원

수행서

제목	편·저자	출판사
간화선	편집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	장휘옥 외	더북컴퍼니
내 안에서 찾는 붓다	마가 스님	무한
도심 속의 도인 석주 큰스님	김현준	효림
마음 밭을 가꾸는 불자	보성 스님	효림
물 속을 걸어가는 달	김진태	학고재
수행법 연구	조계종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자기를 속이지 말라	정찬주	열림원
참선일기	김홍근	교양인
깨달음으로 가는 길	지운 스님	법공양

전등록 전 30권을 5권으로 완간!
전강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의 번역.
기존의 학술적 번역과 달리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른 법을 밝게 밝혀주는 <바로보인 전등록>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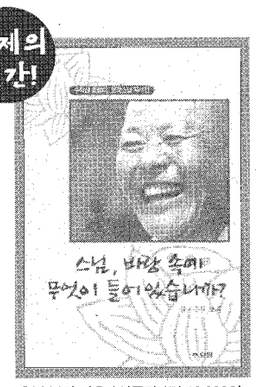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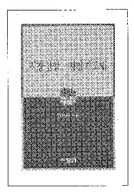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선(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수락산 호랑이, 보각스님 자서전
스님, 바랑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화제의 신간!

이 책에는 반세기를 승려로 살아오면서 경험해야 했던 보람과 난관, 소신과 좌절, 그리고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행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한 노비구니의 삶의 편린들이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문장이나 특별한 기교는 없어도, 잔잔하게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적은 것이 어찌 보면 자신의 수행담 같기도 하고, 다시 보면 오늘의 세태를 후일에 증언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달리 보면 자신이 신세진 모든 이에게 허리를 깊숙이 굽혀 감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월운스님 추천사 中
휴봉 보각 지음 / 신국판 / 값 10,000원
정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던 어수선한 시절에 출가해 강원의 학인으로 선방의 납자로 지내던 시절 이야기들,
은사 상인스님과 효봉 · 동산 · 경봉 · 법회 · 운허 · 성철스님 등 당대를 호령했던 선지식들과의 인연담,
폐허가 된 수락산 석림사를 30년에 걸쳐 중창한 눈물겨운 스토리,
그런 와중에도 아이들과 노인들 20여 명을 보살피며 자비를 실천하는 이야기며,
여성의 입장에서 불교계의 오랜 관습인 남녀차별을 질타하는 일침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법보신문
◆ 8월 5일(음력 7월 1일) 오전 10시에 수락산 석림사에서 출판기념회가 있습니다. (전화 031-873-6516) ◆
백중기도 · 천도의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영가천도 우룡큰스님 지음 / 4×6판 / 값 4,0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였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 · 독경 · 사경의 천도, 49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궁금증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4,000원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참문)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 그리고 지장염불을 할 때,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성큰스님 법문집"
마음밭을 가꾸는 불자

간절히 남을 따라 찾지 말라
점점 나하고 멀어진다
지금 내가 스스로 가니
가는 곳마다 만나는구나
· 천도재 및 백중 기도법을 비롯하여
· 기도성취의 기본원리와 참회법
· 부처님께서 오신 뜻, 불자의 길
· 내가 나를 다듬는 방법
· 주인 노릇하며 사는 법
· 지혜롭게 공부하는 방법
· 생활 속의 불교수행법
· 업장을 녹이는 공부 등에 대해
· 큰스님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보성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3 · 팩스 : (02) 586-9078

세계 시인들
설악·금강산서 평화 읊는다






위부터 월레 소잉카, 로버트 하스, 로버트 핀스키, 지디마쨔.



만해 스님을 기리는 문학인들의 향연이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펼쳐진다. 2005 만해축전은 8월 2일 시조문학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그 막을 올린다. 올 해는 특히 전 세계 유명 시인을 비롯해 국내·북한 시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2005 세계평화시인대회가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국내 문인 천 명이 함께하는 한국문학 심포지엄 등 광복 60주년을 맞은 문학 심포지엄도 다수 계획돼 있으며, 시인학교와 백일장 등의 문학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2005 만해축전의 주요 행사들을 정리해 본다.

2005 만해축전 어떤 행사들이 있나

남북·해외 시인 150여명 '평화' 자작시 낭송

▽2005 세계평화시인대회

8월 11~15일 열리는 2005 세계평화시인대회는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전 세계 시인들·남북한 시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이번 해 만해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월레 소잉카(198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나이지리아) 시인을 비롯해 로버트 하스, 시리세나 반다 헤티아랏치 등 세계 각국의 유명 시인 60여 명이 참가한다.

또한 김지하, 신경림 등 1970년 이전에 등단한 국내 시인 50여 명도 동참의 뜻을 보내왔으며, 북한의 대표 시인 30여 명은 현재 초청 섭외 중에 있다.

이들 국내외 대표시인 150여 명은 12일 만해축전 개막식에 참석한 이후 북한의 금강산을 찾아 '평화'를 주제로 한 자작시를 낭송한다.

세계평화시인대회 준비위원장 권영민 교수(서울대)는 "남·북한 시인들이 함께하는 자리도 흔치 않았지만, 전 세계 유명 시인들과 남북한 시인들이 '북한'에 집결해 '평화' 주제의 자작시를 낭송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낭송된 평화의 시는 '2005 세계평화의 시'로 묶여 발간된다. 시인들의 자필 작품 원본은 만해박물관에 보존 전시되고, 원본을 동판으로 제작해 평화의 시벽(詩壁)을 세울 계획도 있다.

14일에는 각 언어권별 시인들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인의 평화 선언'을 갖는다. 자신들의 시 세계를 소개하고 평화를 주제로 함께 토론을 나누는 자리다. 같은 날에는 미국의 계관시인 로버트 핀스키 교수가 기조강연과 함께, 월레 소잉카의 특별 강연 무대도 예정돼 있다.

▽해방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이번 만해축전에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펼치는 학술세미나가 다수 마련됐다.

그 가운데서도 문인 1천여 명이 참여하는 광복 60년 맞이 한국 문학인 대회 제44차 한국문학 심포지엄이 눈길을 끈다. 한국문인협회 주관 하에 8월 12~13일 '광복 60년 한국문학의 좌표'의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어령, 조동일, 임헌영 등의 문인 및 문학평론가가 발표·토론자로 참석해 광복 60년 한국문학의 이정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종교문학 관련 심포지엄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월 11일 열리는 종교문학 심포지엄에서는 개화기의 불교 및 기독교 문학·천주가사·유가사상 등이 발표된다. 특히 김윤식 명지대 석좌교수가 '이광수와 불교사상'을 발표하기로 해 이목을 끌고 있다.

8월 13일 '불교사상과 문학의 습합' 심포지엄에는 법화경의 문학적 연구(박찬두), 불교사상이 박상륭의 소설에 미친 영향(임금복), 한용운 시에 나타난 님의 특성(맹문재) 등의 발표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문학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한국문학 심포지엄(8월 9일)과 한민족문학 심포지엄(8월 11일), 21세기 시조문학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조문학 심포지엄(8월 2~3일), 민족문학 발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민족문학 심포지엄(8월 14일) 등도 예정돼 있다.

▽시인학교 및 백일장

고은, 김남조, 이상국 등 유명 시인들이 참여하는 만해·고은 청소년 시인학교가 8월 3~5일 문을 연다. 시인들이 시, 소설 등을 지도하는 창작 워크숍과 함께 고은 시인의 '민족 정신의 계승과 새 역사 창조의 주역', 김재홍 만해학술원장의 '만해의 생애와 문학 박물관 견학'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11일에는 고등학생·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해축전 시인학교가 시작된다. 고은·이문재·함민복 등 30여명의 시인들이 벌이는 시창작 이론 및 실습 강좌가 준비돼 있고, 시인과의 대화 및 산사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13일에는 시인학교 백일장도 계획돼 있다.

전국고교생 백일장도 함께 열린다. 12일 전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시, 시조, 산문 부문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같은 날 청소년 사생대회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2004 만해축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만해 시인학교. 올해는 만해·고은 시인학교와 만해축전 시인학교가 함께 열린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광복 60주년 기념 문학 심포지엄도
'이광수와 불교사상' 발표 이목 집중
승무 불교무용 선화전 등 문화행사

▽만해대상 시상식 등 문학·예술분야 시상식

최근 제9회 만해대상 평화부문에 티베트 망명정부 수반 달라이 라마가 선정되면서 달라이 라마의 방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결국 달라이 라마는 참석하지 못하며 동북아 사무소 쵸페 팔조체링 대표가 대리수상할 예정이다.

문학부문의 월레 소잉카·학술부문의 지관 스님·실천부문의 함세웅 신부 등은 이날 상을 받게 된다.

제3회 유심 작품상·신인문학상 및 격외시단 시상식(13일), 전국 음악 콩쿠르 수상자 연주 및 시상식(12일), 님의 침묵 서예대전 시상식(11일) 등도 축전 기간 동안 함께 진행된다.

▽기타 문화행사

각각의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보이는 문화행사도 다채롭다. 세계평화시인대회의 시낭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는 동안 이애주 교수는 승무와 화관무 시연을 보이고 동국대 손재현 무용단은 불교무용 무대를 펼쳐보인다.

또한 범주스님 선화 초대전과 시서화 소장전, 통일시전 등이 만해축전 개막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축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문화행사 등도 다수 마련돼 있다. 인제군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리는 청소년 재즈댄싱 경연대회(13일), 인제군 축구협회가 관장하는 대동축구대회(13일), 인제군 생활체육협회와 함께하는 백담 계곡 걷기대회(14일)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MBC 대학가요제 수상자 모임이 주관하는 7080 대학가요 콘서트(12일) 등도 계획돼 있다. (033) 462-2304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마하몰이 쿨~ 하게 바뀌었습니다.

불교용품전문몰 에서 종합쇼핑몰 로...

염주,목탁에서 선풍기... 속옷까지 마하몰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어요 ~



M 주간베스트 상품

베스트상품은 상하로, 세일상품은 좌우로 엑티브하게 움직이는 화면으로 편리하게..



마하몰 홈피 새롭게 단장

M 테마상품을 한눈에

연실악세서리 / 불교카렌더 / 봉축행사용품 / 시계방 / 희담석 건강용품 / 달마도



M 스님용 추천상품

스님들께 엄선하여 선정한 스님용 추천상품



M 마하몰 카페

고객들의 편안한 쉼터로 고객들만의 카페 신설

M 강력한 불교정보 검색서비스

불교인물검색, 불교용어사전, 불교단체주소록을 마하몰에서 검색하세요..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02-2004-8218~9

Mahamall.co.kr 02-732-1520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2>



지팡이의 노래

부처님께서 탁발하러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가셨다가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밥을 빌러 다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집에서 편히 자식들의 부양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찌하여 지팡이를 짚고 걸식하러 다닙니까?"

부처님의 질문에 노인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일곱 있습니다. 다들 장가를 들었고 저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게는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들들은 한결같이 저를 부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밥을 빌러 다닐 수밖에요."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들으신 부처님께서 그에게 제안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노래를 한 곡 들려주겠습니다. 잘 외웠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대중 속에서 꼭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알겠지요?"

노인이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곧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칠 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자기 일곱 아들이 다 와있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노래 한 곡 부르리다. 한번 들어봐 주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곱 아들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온 노래를 듣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제야 똑똑하게 알아챘던 것입니다. (별역잡아함경 제13권)

경에는 그 뒷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다 예전의 자리에 앉혀드렸습니다. 아주 질 좋은 천으로 옷도 해드렸습니다. 예전의 행복을 되찾은 노인은 아들들이 만들어준 옷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부처님께 들고 가서 공손히 바쳤다고 합니다.

자식 여럿 있는 어머니는 버스에서 죽고, 아들 하나 있는 어머니는 현관문 밖에서 죽고, 딸 하나 있는 어머니는 싱크대 앞에서 죽는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제 어머님 세대 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일곱 아들에게 버림받고 걸식하던 노인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가

아들을 낳고서 너무나 기뻐
오직 그를 위해 재산을 모으고
모두 장가를 들였더니 이제는 나를 버리는구나.
말로만 부모 위한다 할 뿐
죽을 때 되니 나를 버리는구나.
말구유에 보리와 곡식이 가득한데도
양보하려는 마음이 없어
늙은 말을 밟아서 쫓아내는 젊은 말과 뭐가 다른가.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아비를 버리고 구걸하게 만드는 내 아들들은
나를 사랑하는 이 지팡이만 못하구나.
이 지팡이 있으면 개와 염소도 다루고
다닐 적엔 나를 도와주고
어둔 밤에는 나의 벗이 되네.
개천 지날 때면 깊이를 알려주고
넘어지면 지팡이를 붙잡고 일어나니
못된 자식들보다 말없는 지팡이가 낫네.
이 지팡이만이 나를 아껴 주고 생각하네.

노인은 노래를 완전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며

자식이 여럿 있으면 서로 모시지 않으려 하니 이 집 저 집 떠돌다 길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아들 하나 둔 부모는 자식 눈치 보느라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딸 가진 부모는 마지막까지 딸내미 살림살이 살아주느라 허리가 휜다는 뜻이겠지요.

그런 희생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라고 간단히 치부된다면 자식의 마땅한 도리도 올곧게 지켜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항상 자식은 부모의 도리에 기대기만하고 스스로의 의무는 외면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님은 어떻습니까?

행복은 생사의 거친 흐름을 건너 저쪽 언덕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번뇌요, 먼지 뿐이라며 어서 건너가라고 부처님은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처님이 사람들 품에 안겨준 행복은 그들이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어서 찾아가 당연히 누려야 할 끈끈한 정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노인은 젊은이들로 북적대는 가정으로, 버려진 아이는 푸근한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피안의 행복임에 틀림없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나를 떠나 道가 있겠는가

지상 백고좌

대정 스님

(범어사 선덕)



범어사 휴휴정사 앞에 선 대정 스님.

시간이 정말 흐르고 있는 것일까? 몇 년 만에 대정 스님을 가까이 찾아뵈면서 갖게 되는 의구심이다. 3년 전 뵈었을 때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으로 반겨주시는 스님을 뵈며 수행 앞에 힘을 잃고 멈춰버린 시간을 실감한다.

세수 일흔 다섯. 시자를 두고 따로 공양상을 받을 만도 하지만 대정 스님은 지금까지도 대중공양방에서 공양을 한다. 아침 6시, 대중들과 함께 비빔밥 한 그릇, 점심엔 냉수 한 그릇, 그리고 저녁엔 또 다시 비빔밥. 공양을 위해 하루 두 번 휴휴정사를 나가는 일 외엔 스님의 방문은 좀체 열리지 않는다. 찾아오는 이도 없고 찾아갈 이도 없다.

대정 스님이 화두가 되고 화두가 대정 스님이 되어 묵연히 앉아 있을 뿐이다.

내가 요즘 사람을 잘 안 만나요. 내가 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큰스님이라고 하면서 무작정 한번 만나겠다고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는 공부에 아무 도움이 안돼요. 화두(話頭) 공부를 지극하게 하는 중에 꽉 막혀버린 분들이 와야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은 분은 와도 도움을 못 받아요. 그리고 만나더라도 선(禪)은 말이 아니니까 선의 참뜻만 가지면 내 모습을 보고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지, 그게 다예요. 여기에 선지(禪旨)가 다 숨어 있으니 그것 이상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도(道)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떠나서 별도로 없습니다. 도나 화두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이때까지 눕고 앉고 자고 볼 일을 보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도와 함께 있었지 도를 여의고는 한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로서 인간의 근본문제를 해결 지었고 도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뭐 하나 빠진 것이 없는 종합적인 종교로서 인류의 정신문화를 창조시켜 왔거든요.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 도인데 그걸 모르고 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큰 지혜와 큰 자비 원력으로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통달이 안 되고 스스로 확립이 안 되니까 막혀 버리고 이 부작용으로 탐, 진, 치 삼독에 현혹이 돼 가지고 각종 업을 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고 확립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화두만 하면 됩니다. 화두가 바로 내 자신이니까 화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두는 선의 원동력이고 정수고 중추신경입니다. 화두가 없으면 선이 안 됩니다. 이처럼 화두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좀 어렵고 잘 되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화두를 조금 해 보다가 잘 되지 않으면 금방 딴 거 찾아요.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화두를 익히려는 노력이 없단 말입니다. 화두가 내가 되고 내가 화두가 되는 것이 하룻밤 반짝 참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도 법회 후에 잠시 참선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참선이라기보다는 명상에 가깝고 또 그 명상마저도 법회 때만 잠시 하고는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일년이고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사는 경우가 많으니 참다운 화두가 될 리가 없지요.

나의 경우도 잘 잘 때도 화두가 성성하게 살아있기 시작한 것이 화두 공부를 시작한 후 5년이 지난 뒤부터입니다. 그 때가 스물 세살이었는데 9월경 모악산에 흙으로 얼기설기 3평정도 되는 토굴을 짓기 시작했는데 10월이 되니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가슴까지 차올라 결국엔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어요. 인적도 없는 산속에서 쌀, 보리쌀, 잡쌀을 갈아 만든 가루와 물, 그리고 솔잎가루 만을 먹으며 5개월 정도를 지내며 화두 공부를 했는데 그 때부터 화두 공부에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아파서 몸을 조복 받겠다는 생각으로 문 걸어 잠그고 밤새도록 한번도 일어나지 않고 견뎠더니 다리에 쥐가 나고 풀리고를 대여섯 차례 반복하더니 괜찮아지더군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아무리 오래 앉아있어도 끄떡 없어요. 그때는 한번 앉으면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날 때 말고는 일어날 일이 없고, 잠시 앉으면 해가 지고 또 잠시 앉으면 해가 뜨는데 화두는 역력했죠. 들쥐 한 마리가 내 변을 먹고 함께 살았고 새 한 마리도 늘 일정한 시간에 날아와 내가 주는 가루를 먹고 날아가곤 했을 뿐 인적이라곤 없었어요. 아침에 나가보면 한 줄로 난 호랑이 발자국이 토굴을 한바퀴 돌아보곤 간 흔적이 나 있곤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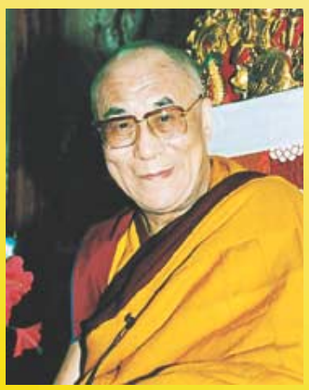
눈이 녹기 시작하자 도반이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굴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나고 몸에 살이 붙어서 환골탈태(換骨奪胎)를 했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화두에는 부처가 되고 도가 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화두가 살아 있음으로

나를 아는 것이 불교
道는 인간성이자 양심
오계 지키면 나를 알게 되고
수행하면 마음 밝아져

해서 도가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화두입니다. 알기 쉽게 말을 하자면 철학의 원조 소크라테스가 했던 '너 자신을 알아라' 했던 것이고 역대의 조사 스님들은 '너를 잊지 말아라' '너를 지켜라' 했습니다. 결코 복잡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깨쳐라'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근본은 뭐냐? 그 대답은 바로 우리 모두가 똑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있으니 모든 것이 있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부처님도 있고, 주님도 있고, 신도 있지 내가 없는 여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성립이 된다는 간단하고 쉬운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을 모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내 자신을 아는 것이고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 바로 나 자신이고 인간입니다. 그래서 계행을 근본으로 했지요. 사회에서도 윤리와 도덕 예의범절이 없으면 금수 같아요. 인간이 인간다울 때 도의 그 모습이 나타나지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도는 모습을 감춰버려요. 도는 인간성이고 인간의 근본이니까 이것이 바로 계행이 되는 것입니다. 계행으로 인해서 선정, 수행이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 불자들을 위해
티베트 불교의 원전인 입보리행론(깨달음에 드는길)
을 5일동안 설법합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5년 12월 12일 - 12월 16일 (5일간)
■ 장소 : 인도 티베트 망명정부가 위치한 다람살라
■ 주관 : 여수 석천사 石泉寺 (진옥스님 061-662-1607)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샨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
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복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A팀 기간 : 12월 3일~12월 18일 16일간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샬리-
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설법)-찬디가르-델리-인천
B팀 기간 : 12월 9일~12월 18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C팀 기간 :12월 10일~12월 19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 출발일 :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왈핀디-
탁실라-페샤와르-스와트(마애불)-
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
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카슈카르-
쿠차(키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대정 스님은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바르게 깨닫는 지름길이고 그 길은 계를 지키는 생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나옵니다. 화두 공부에 있어서도 계행은 아주 중요합니다. 살생을 하지 않아야 자비심이 충만하게 되고 도둑질을 안해야 복덕을 구족하게 되며, 삿된 음행을 안해야 청정심이 나오고, 남을 헐뜯지 않아야 진실하며, 술을 먹지 않아야 지혜가 나옵니다. 이게 안 되고서는 화두도 안돼요. 근본계인 오계를 잘 지키면 자신을 절로 알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니까 그렇습니다. 계행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 다음은 수행입니다. 수행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염불, 주력, 참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두는 좀 어렵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하다보면

완전한 인간성을 갖춘 분이 부처이고 성인이고 참사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마음의 안정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자신이 밝아집니다. 이게 바로 반야인데요, 입으로 반야, 반야 해봤자 반야가 안 됩니다. 직접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이 밝아올 때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게 진짜 반야입니다. 이 반야로 인해서 견성성불은 저절로 됩니다. 견성성불이 뭐냐? 완벽한 인간, 손색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성을 갖춘 분이 바로 부처고 성인이고 참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참사람은 뭘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알고 보면 참 쉬워요. 앞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불자뿐 아니라 인류가 대오각성하면 인간이 인간다워 질 것이고 그렇게 될 때만이 세계 평화도 있고 행복도 있고, 또 안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남을 이겨야 하겠다, 내가 앞으로 나서야 하겠다는 명예에 현혹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뜬구름 같고 허무한데 이것을 모르고 진실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의 원인은 내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짜고 헛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온통 허깨비 세상이 된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정화해서 부처님을 다 만들고 부처님 국토로 만들어 다시는 인간이 지어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보자는 것이 부처님 자비이고 원력입니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때가옵니다. 우리는 세세상행보살도(世世常行菩薩道) 구경원성실바야(究竟圓成薩婆若) 마하반야바라밀(摩訶般若婆羅蜜)이라는 발원을 많이 합니다. 세세상행보살도라는 것은 부처님 원력입니다. 보살행은 곧 자비행을 행하는 것이고, 그 자비행으로 인해 불법이 살아나고, 불법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성이 살아난다는 말과 똑 같습니다. 자비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가장 쉬워요. 초등학교 책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직 사랑과 이해와 양보, 인내,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자리이타의 대승보살심입니다.

크고 넓고 좋은 이 마음이 그대로 도심입니다. 보살의 정신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안 될지언정 남을 승화시키는 이와 같은 마음이 그대로 사랑입니다. 말은 쉬운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사랑은 그만두고 절대 양보할 수가 없고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보살도 정신입니다. 사부대중 즉, 승속남녀노소를 떠나서 이것이 불교의 근본정신입니다. 수도(修道)와 전법(傳法)을 행하는 것이 구도자의 근본이며 우리 불자들이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는 것이 바로 보살도이고 묵묵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대정 스님 법문집 출간

대정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화두 공부에 전념해온 대명화보살이 스님 모르게 발간한 법문집이 세상에 나왔다. 7월에 세상에 나온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은 대정 스님이 범어사로 오신 이후의 상당법문, 금정선원 결제 법문 등 17년 동안 모아왔던 법문에서 선과 화두의 핵심을 가려 뽑아 엮었다.

스님 방 마루에 몰래 책을 올려놓고 돌아온 날, 대명화보살은 혼쭐이 났다. 그러나 만 16세에 화두 공부를 시작해 지금까지 일편단심 화두로 살아온 대정 스님의 수행력에서 나오는 향기를 전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일이었으니 멈출 수는 없었다.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요, 선의 기능이라고 대정 스님은 이 법문집에서 설파하고 있다. 깨끗함은 계행이고 고요함은 선정이고 맑은 것은 지혜라는 가르침이다. 이 법문집이 두문불출하며 묵언정진 중인 대정 스님의 음성이 되고 모습이 되어 세인들을 만나게 됐다.

대정(大定) 스님은 1931년 대구에서 태어나 1946년 백양사 운문암으로 출가, 3년 뒤 금산사에서 유재환 스님을 은사로 보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1959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모악산, 지리산 등지에 토굴을 짓고 생식하며 수행 정진해오다 1989년 이후 범어사 휴휴정사에 주석중인 스님은 '누가 나에게 도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나는 한번 웃음으로 그 답을 대신하겠노라'는 게송처럼 공부의 길을 묻는 구도자들에게 한번의 웃음으로 그 길을 열어 보이고 있다.



로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현음 스님

사물은 존재하고 존재하면서 존재하는 자리를 차지한다.

그 자리가 비면 또 다른 것으로 차지하지만 공간일 뿐 시간은 지속적인 자리 차지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다르다.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다. 변한 것 같으면서도 늘 그대로다. 이러한 마음은 늙어가면서 더욱 애틋하게 느끼는 것이다. 몸은 늙었으면서도 마음은 늘 이십대에 머물러 있다. 느려진 몸을 보면서 나이를 먹었나 하지만 넓어지는 경험적 지식이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듯 마음 안에서야 생로병사가 어디 있겠는가마는 마음 밖에서는 생로병사가 있다.

부처님과 역대 선지식, 천하 종사들도 그렇게



그림 · 문병성

오셨다 가셨고, 현음 스님 또한 이렇게 왔다 가는 것을 보았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갈 것이다.

현음 스님은 1973년 3월 송광사 보조종재일에 구산수연 스님을 은사로 수계를 했다. 행자 때에는 상행자로 우리에게 염불과 목탁 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수계해서는 사숙이 되었다. 스님은 늘 고민이 있었다. 스님의 고민은 개인의 것이기보다는 우리들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현음 스님은 늘 상설수련원 운영을 말해왔다. 부처님 곁에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선 수행법을 찾아 헤매곤 했다.

우리는 한국의 대승선이 일반 불자들이 실천 수행하는 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안다. 말하자면 돈오돈수, 불립문자, 언어도단, 심행처멸, 이심전심, 일초직입여래지 등을 강조함으로써 사상적 이해보다 언어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현음 스님은 다시 생각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로 한 것이다. 일반 불자들이 선 수행을 하기 쉽도록 단계와 차제를 찾기로 했다.

당시 송광사에서는 학교 교육을 받는 것은 속퇴하는 지름길이라며 금했었다. 그러나 현음 스님은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스리랑카로 유학하여 팔리어를 배우고,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수행법을 습득했다. 스리랑카로 유학을 가서 그곳의 수행법에 자리를 잡고 잠시 들릴 때였다. 어느 때와 같이 무소들의 뿔 장난처럼 서로 밀고 당기는 장난을 치다 말고 문득 같이 스리랑카로 가지 않겠느냐고 내게 물었다. 차를 마시는 방으로 왔다. 요지는 스리랑카로 유학하는 길을 알았으니 혼자 하는 것 보다 같이 하는 것이 공감대 형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빠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나는 아니라고 했다. 나이 삼십 넘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초 학문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운 어린 스님들을 선발하여 유학을 시키고 그 학문을 활용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웃으면서 훗날 여건이 되면 시간을 뛰어넘는 도보 성지순례를 하고 싶다고 했다. 현음 스님은 이해하는 듯 눈으로 그렇다는 대답을 했다. 곁에 계시던 나의 은사스님이, 이놈이 호강에 겨워 그렇다고 현음 스님의 힘든 유학 생활을 달래주셨다.

나중에 현음 스님이 귀국해 송광사 수련회를

현대적 수행법 고민하다가 스리랑카 · 미얀마서 유학

맡아 대승선에 위빠사나 수행법을 통한 점차적인 차제적 선수행을 가르치는데 혼신을 다하였다. 수련생들도 호응이 크고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선방의 납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의 수행법인 간화선은 선 수행의 최극치로서 수행득력과 수행법이 완결된 것이라며,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합친 단계적 차제 수행으로 수행력을 얻는 방법에 일퇴를 가하였다.

그래서 현음 스님은 자신의 수행이 부족하다며 좀더 많은 경험과 수행력을 쌓기 위해 미얀마 유학을 강행하였고, 미얀마 유학중 간염에 걸려 결국 귀국하여 간경화로 이 세상살이가 마음 밖에서 오고가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스님은 고인이 되었다, 십년 전에.

가끔 생각이 난다. 늘 생각하다 가끔 잊는 것은 마음의 기쁨이자 아름다움이지만, 늘 잊었다 가끔 생각날 때는 생각하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다. 멍하니 생각하다가 그 생각하는 마음이 아프다.

한 여름 날 불일폭포에서 함께 하던 수영,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나 호탕하게 웃는 얼굴, 잘못 했을 때는 시끄러운 말보다 눈빛으로 일깨워 주고, 늘 '수행자'이기를 고집했던 그 꼿꼿한 자존심. 육신이 무너진 그날도 놓지 않고 있던 단단한 정신력, 마음의 흔적만 남기고 존재하지 않는 현실은 작은 부도라도 있었으면 했다. 내일의 할 일로 마음을 되잡는다.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막막하지만은 않다. 한편으로는 스님의 원력이 컸기에 인도환생 했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 가평 아가타 보원사 주지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종 정관변경공고

민법 제42조 및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4월 16일에 허가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은 정관 변경승인절차를 거쳐,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종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고 신규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시설설립추가승인을 취득하였으며 이 법인의 모든 법적 권한이 조동선종, 종헌(宗憲)에 귀속되었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1. 허 가 번 호 : 2004-3(04-4-16)
2. 명 칭 :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종(社團法人韓國佛教曹洞禪宗)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 총본산 원효사
4. 기 본 재 산 : 901,116,000원(9억1백11만6천원)
5. 목 적 : 종헌 제20조 규정, 조동선맥복원 불교발전에 기여함
6. 사 업 : 1) 조동선(曹洞禪), 선학(禪學)의 연구계발
   2) 불교포교 및 사상연구
   3) 국내외 학술교류
   4) 조동선학의 교서출판 및 정기간행물 발간
   5) 법인재산 출연, 사회복지법인, 시설 설립운영
   6) 기타 본법인 발전에 필요한 사업

조동선종(曹洞禪宗)의 법통(法統)은 구산선문(九山禪門), 수미산 광조사(須彌山廣照寺) 개조(開祖), 이엄진철(利嚴眞澈)선사의 조정(祖庭)인 중국강서성(中國江西省) 운거산(雲居山) 진여사(眞如寺), 조동적통(曹洞嫡統)인 조동종(曹洞宗) 49대 해음등료(海音鐙了)선사로부터 사법전등(嗣法傳燈), 창종선포(創宗宣布)하고 서천(西天) 87대 동토(東土) 60대 조동(曹洞) 50대의 혈맥(血脈)과 1천여년간 단절되었던 선맥을 복원하였다.

불기 2549년 7월 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종 이사장/총무원장 今禪鶴峰 합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 TEL : 02) 704-8065, 713-0475 FAX : 02) 704-8064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칼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칼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26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기 2549년
7월 27일 수요일 제 536 호


엄마와 함께하는 '미술치료'.


어린이들이 아크릴을 이용해 자신만의 거울을 만들고 있다.

방학(放學). 배움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방학이 시작되기 무섭게 또 다른 무엇을 배우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그래도 방학은 역시 쉬어야 '맛'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쉬자니 뭔가 개운치 않다. 여기 즐기면서 배우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보고 배우는 방학.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백번 듣느니 한번 해봐!

놀면서 배우는 여름방학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나만의 거울 · 옷 만들기 패션쇼 · 수학놀이 장승만들기 등 풍성

● **어린이 가나아카데미의 '체험' 프로그램=**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어린이 가나아카데미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8월 21일까지 진행한다.

아크릴을 이용해 자신만의 거울 작품을 만들어보는 '반짝 반짝 예쁜 내 얼굴!'은 매주 목 · 금 11시~12시 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옷 만들기 공작소+어린이 패션쇼'는 전시장을 둘러보고 나만의 옷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주말 포함 매일 하루 2~3 차례씩 개최된다.

이와 함께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미술치료사 이병희씨가 진행하는 미술치료는 8월 2~17일 사이 6차례에 걸쳐 열린다. (02)379-4864


장승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는 관광객들.

● **서울 능동 어린이회관 '수학놀이 체험전'=** 독일 수학 체험 박물관 '마테마티쿰'을 국내에 들여온 '수학놀이 체험전'은 누구나 직접 교구를 만져보면서 수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평면도형과 입체도형', '비누방울과 함수', '거울과 대칭', '생활 속의 숫자', '마당퍼즐', '수학의 응용'등의 코너로 구성돼있다. 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 (02)2204-6028

● **경기도박물관 '영화상영'=** 경기도박물관은 여름방학 특선 영화를 상영한다. 7월 26~31일에는 '안녕, 형아'가, 8월 2~7일에는 '스타워즈 에피소드3'가 각각 상영될 예정이다. 매일 낮 12시와 오후 3시에 상영되며, 상영기간동안에는 '경기도 사람, 경기도 이야기' 특별전도 함께 열린다. (031)288-5300

● **국립광주박물관의 '고인돌학교'=** 국립광주박물관은 어린이들이 고대 선사시대 우리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16회 엄마와 함께 해요-신나는 박물관 고인돌학교'를 7월 28~29일 개최한다. 학예연구사 선재명씨가 '고인돌의 모든 것을 알아볼까요'를 주제로 강연을 하며, 화순 고인돌 공원과 목포자연사박물관도 답사할 예정. (062)570-7020

● **전주역사박물관 '우리옷 바로 알기'=** 전주역사박물관은 8월 2~5일 오전 10시~오후 3시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우리옷 바로알기'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구를 이용한 '수학놀이 체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우리옷과 관련한 내용을 공부하고 직접 만드는 시간이다. 도시락과 필도구만 준비하면 된다. (063)228-6485

● **갈촌탈 박물관 '장승학교'=** 경남 고성 갈촌탈 박물관은 7월 29일부터 3일간 '여름장승학교'와 장승축제를 개최한다. 장승학교에서는 장승의 유래와 의미, 장승 만들기와 그리기, 장승춤 등을 체험하며 마지막날 진행되는 장승축제에서는 '장승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와 장승꾼들이 장승과 관련한 노래와 춤 등을 선보이는 '장승 8괘마당' 등이 펼쳐진다. (055)672-2772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게시판



사찰 어린이 여름캠프 강릉 성원사(033-661-5736)는 7월 29~31일 어린이 여름캠프를 실시한다. 초등학생반과 유치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여름캠프는 어린이농장 가꾸기, 자연과 호흡하기, 계곡 물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강릉 현덕사(033-661-5878)도 7월 29~31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여름불교학교에서는 우리 꽃 · 나무 · 풀 알기, 별자리 찾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사 어린이교사 모집 조계사는 어린이 불자들과 함께 할 20대 교사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어린이 교사는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와 여름불교학교 지도를 담당한다. (02)732-2115

동산불교대 불교학과 신입생 모집 동산불교대는 2년 과정의 불교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수업 장소는 동산불교회관이며 입학식은 8월 6일 열린다. (02)732-1206

선우 청소년 여름캠프 우리는선우는 7월 29일~8월 1일 충주 선재학교에서 '선우 청소년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참가비는 3만원.(02)2278-8672

이전 대한불교 조동종(총무원장 심월)은 총무원 사무실을 서울 둔촌동 용천사 정각원 1층으로 확대 이전했다.(02)2062-0725

20면 상식 퍼즐 정답

대	적	광	전		길	조
방			우			간
광				조	왕	신
불	공	대	천			문
화			생	남	례	
엄		세	배			부
경			필	부	필	부

전시

세밀화로 본 신비의 나라 인도

국립광주박물관7월 28일~8월 28일


샤 자한과 뭄 타즈 마할의 초상.

국립광주박물관과 대원사 티벳박물관은 7월 28일~8월 28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인도 세밀화 특별전 '사랑과 꿈, 신비를 찾아'를 연다.

세밀화란 인도 · 페르시아 문화권에서 이뤄진 독특한 회화 양식으로, 작은 화면에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이 돋보이는 그림.

이번 특별전에서는 대원사 티벳박물관이 소장한 500여 점의 세밀화 가운데 엄선된 50여점이 일반에 선보인다. 가장 널리 알려진 힌두신인 '크리슈나'와 '라다'의 사랑이야기, 코끼리 형상을 하고 있는 지혜와 행복의 신 '가네샤' 등을 화폭에 담은 작품이 대표적이다. 인도를 대표하는 무덤 타지마할에 안치된 뭄 타지마할 왕비의 초상화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궁전생활과 사냥 등의 주제로 채워진 작품들도 함께 전시된다.

전시 외에도 '인도의 세밀화(8월 5일 오후 2시~4시)', '인도의 전통 춤과 노래(7월 29일 오후 2시 30분~오후 3시 30분)', '인도의 문양 함께 그리기와 노래(8월 23일 오후 2시 30분~3시 30분)' 등의 강연이 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052)570-7002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북한 국보급 고구려 유물 공개

서울역사박물관 '대륙의 꿈, 고구려'


영강7년명금동광배.

서울역사박물관은 8월 21일까지 '대륙의 꿈, 고구려' 특별전을 연다. 그동안 열렸던 고구려 관련 전시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북한의 국보급 고구려 유물 40종 54점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의 국보인 해뚫음무늬금동자식, 돌아가신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며 제작한 영강7년명금동광배 등의 진품 유물을 비롯해 의상 · 악기 · 무기류 등의 복원유물 150여 점, 북한의 역사학자와 인민예술가들이 실물크기로 복원한 진파리 1호 무덤과 벽화 모사도 30여 점 전시된다. (02) 724-0148

강신재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5일 06:00 불교강좌
26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27일 11:05 아름다운 초대
28일 07:05 아침저널
29일 09:05 행복한 미소
30일 14:05 진시몬의 낭만라디오
31일 10:00 라디오 법회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5일 05:50 한국의 명찰
26일 11:20 특선다큐
27일 15:50 열린마당
28일 17:30 산중대담
29일 07:00 조선불교탄압사
30일 22:10 왜 붓다와 노자인가?
31일 20:00 또 다른 수행 '사경'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진시몬의 낭만라디오(7월 30일 14:05~15:00) 304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를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나른함이 밀려오는 오후 2시. 진시몬이 준비한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충전(7월 28일 15:50~16:50)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엄앵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연실(蓮實) 고급합장주

옛 선조들은 연꽃 열매를 연실(蓮實)이라 부르며 몸에 지니고 있으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얻는다고 했다. 특히 연실은 착용했을 때 느껴지는 질감이 부드러우며 시간이 지날수록 짙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꽃씨앗은 몸의 노폐물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등 건강에도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장점을 지니고 있는 연실 합장주는 굴릴 때마다 느껴지는 질감이 뛰어나고 사용자가 잡념 없이 염불에 전념할 수 있도

이영화 어때요?

증오는 복수를 낳고, 자비는 행복의 씨 뿌리고

친절한 금자씨 감독: 박찬욱 출연: 이영애, 최민식 상영시간: 110분 등급: 18세 이상



출옥한 30대 아이 엄마 '금자'가 잔인한 복수에 나선다는 내용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 단아한 외모의 이영애와 불같은 성격의 최민식이 앙숙으로 만난다는 점과 지난 1989년 전대협 대표로 방북했던 임수경씨가 교도관역으로 카메오 출연해 영화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친절한 금자씨'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에 이은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의 완결편이다. 연작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성의 복수를 다루고 있다. 영화의 내용적 측면을 들여다본다면 송강호가 주연을 맡았던 '복수는 나의 것'의 원작과도 비슷한 구석이 보이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인 금자는 스무 살에 유괴범으로 몰려 감옥에 가게 된다. 그러나 13년 동안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보내는 금자. 출소하는 순간, 금자는 그 동안 자신이 치밀하게 준비해온 복수 계획을 펼쳐 보인다. 그녀가 복수하려는 인물은 자신을 죄인으로 만든 백선생(최민식 분). 금자와 교도소 동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수를 감행하는데…. 이 영화를 비롯해 '복수는 나의 것' '시스의 복수' 등 '복수'를 소재한 한 영화가 유독 많고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영화적 흥미에 빠진 무조건적 관람보다는 부처님의 '자비법문'에 감응해 아라한이 된 앙굴리말라의 일화를 한번쯤 되새겨보고 영화에 대비시켜 봄도 영화를 백배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세세생생 보현행자의 길을 가리라 (상)

권혁위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이 진리처이니라.' (임제 선사)

위 게송은 내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조사스님의 말씀이자, 오늘날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불자들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현세의 많은 이들이 형상(명예, 권력, 돈, 여자 등)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각자의 축복된 삶을 영위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한 생을 끝낸다. 이는 마치 자기 자동차의 열쇠를 차 안에다 두고 바깥에서 차 문을 잠근 꼴이다.

나는 모태 신앙으로 불교를 만났다. 불심이 깊으셨던 나의 어머니는 나의 고향인 강릉시내에서 약 이십여 리 떨어져 있는 법왕사에 백일 지성을 드리고 나를 잉태하셨단다. 6 · 25전쟁이 치열하던 1950년 시월 중순 어느 날, 남하하는 북한 인민군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해 미군 비행기가 교량을 끊기 위한 폭격을 감행하던 한 그날이었다.

나는 파편이 난무하던 그때 난산 끝에 태어났다고 한다. 어머니를 비롯한 친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때의 그날을 생생하게 증언해줘서인지, 나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날의 사건을 뇌리에서 지우지 않고 있다.

나의 생가를 가로 질러 건너편에는 오대산 월정사의 포교당인 관음사가 있었다. 나는 자라면서 그 절의 부설 유치원에 다녔으므로, 절마당은 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나와 내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의 운동장이었다.

그곳은 만해선사께서 공부하셨던 곳이기도 하다. 법당의 불상과 관음보살상은 내 어린시절의 신비한 대상 그 자체였고, 그 자애롭고 친근한 모습은 내 가슴속에 이미 깊이 각인돼 버렸다. 관음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모든 강릉인들이 평안을 기원드렸던 귀의처이자,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면 몸과 마음을 맡겼던 피난처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시내에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물난리가 시내를 휩쓸 때에도 그곳은 묘하게도 침범되지 않았던 성지였다. 몇 년 전 사상초유의 태풍 '루사'와 '매미'가 연이어 강릉지역을 강타했을 때에도 그곳만은 안전했던 것을 보면 그야말로 수월도량임을 알 것 같다.

나는 관음사를 마음에 담으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연스레 불교학생회에 입문하게 됐다. <반야심경>을 암송하는 것부터 시작해 지도스님께 법문을 듣기도 하고 수련회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것들은 내게 매우 흥미로웠다. 여러 학교 교우들과 함께 활동하며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당시 불교학생회 회장이었던 전보삼군이 생각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학교를 다닌 그는 현재 신구대학교 교수이자 만해기념관장직을 맡고 있다. 오래전 사재를 털어 남한산성 한 켠에 만해기념관을 짓고 민족정기와 만해사상을 천하에 선양하고 있는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나와 가장 뜻이 맞고 같은 길을 가는 도반으로서의 우애를 다졌던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학에 진학하면서 많은 주변의 인연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도시환경에 물들면서 불교와 담을 쌓게 됐다. 캠퍼스에서 사귀게 된 팔도 사나이들과 만나면서 세간옥락에 빠지게 됐고 잠시 부처님을 여의었던 것이다. 그러다 학기 초부터 사귀게 된 같은 과 동기였던 이전 아내와 캠퍼스 커플로 4년간 연애 끝에 졸업 후 바로 결혼했다. 12년 동안 인생의 반려자로 함께 했으나, 그는 1984년 4월 청천벽력같은 암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2년여를 투병하다 86년 4월 어느 날 아내는 사바의 인연을 훌훌히 털고 이 땅을 떠났다. 당시 내 나이 서른 일곱. 직장에서 한창 인정받고 조직의 중심에 서서 이제 좀 재미나게 살만할 때가 됐을 때 아내는 무정하게도 나와 세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세상인연을 달리 했다. 나와 아이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당시 큰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4학년, 둘째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막내 녀석이 겨우 다섯 살이었으니, 4월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도 잔인한 달이었던 것이다.

꿈인지 생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억장이 무너져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다. 견딜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나는 절을 찾게 됐다. 암선고를 받은 아내와 주위의 안내로 잠실에 있는 불광사 · 불광법회에 처음으로 발을 붙이게 됐다. 투병생활 2년 동안 병원 치료는 물론 기도와 정진을 열심히 했으나, 전생업과 시절인연 때문이었는지 이생에서의 고통과 번뇌를 쉬는 쪽으로 마음을 놓고야 말았다. 남게 된 나는 황망한 마음을 놓을 수 없었으나 아내의 명복이나마 열심히 빌어야 하는 것이 못난 나의 몫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 건성으로 아내를 따라 절을 찾았던 사이비 불자의 너울을 벗고, 그날 이후부터 지심참회하며 기도도 공부도 열심히 했다.

먼저의 아내를 떠나 보낸 후 약 1년여 동안은 그야말로 나에게는 지옥이었다. 어린 자식 셋을 거느리고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나로서는 참으로 슬프고 막막했다. 강릉의 부모님께서는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던 이모님을 서울로 급파하셨다. 의식주는 이모님의 수고로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아이들의 학습지도와 보건관리가 전혀 되지 않기에 아이들의 숙제와 준비물을 내가 직접 챙겨줬고, 아이들 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찾아가지도 않던 담임선생님을 수시로 만나기도 했다. 녀석들의 '엄마가 없는 목마름'을 옛날 양반이신 이모님은 돈으로 때우셨다. 아이들은 찬 빙과류를 매일 먹어대다가 허구헌날 감기를 앓아 병원을 번갈아 들락거리곤 했다.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매일 밤을 숨죽여 울었다. 오지 않는 잠을 수면제로 청하기도 했다.

아내의 암 선고에 충격과 눈물의 나날
사별후 어린 자식들 키우며 기도 정진
아이들 생각에 직장 동료와 재혼 결심

난 그때 지옥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살아있는 생에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는 가운데 용기를 내서 잊었던 저녁기도를 시작했고, 염주와 반야심경 책자를 가슴에 안고 잠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다. 나무 반야바라밀.

고향의 부모님께서는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으시며 나를 걱정하셨다. 주위의 지나친 염려도 나를 힘들게 했다. 핑계에 불과하게 들릴지 몰라도, 아내의 3년 상은 치르고 재혼을 생각할까 했었다. 그러나 정말이지 아이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계속)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snoopy@buddhapia.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 山寺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山寺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기청량 조청 (품절) 1.2kg —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山寺 청미래 조청 1.2kg —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일광스님의 신행수기, 기도발 이야기
기도발 祈禱發
<<출판기념법회>>
· 장소 : 서울 영등포구 탑사(塔寺)
· 날짜 : 2005년 7월 14일
· 시간 : 오전 10시 30분
· 전화 : 02)2635-2611

부처님의 가피력은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불자에게 발현된다.
해가 중천에 뜨면 온 세상을 비추어 세상의 만물을 생성 존재하게 하지만 해가 먼 바다에서 떠오를 때 가장 높은 산 봉우리를 비추는 것 같이 지극히 기도하는 불자에게 부처님의 기도발이 있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기도하는 불자가 아름답다.
사바세계 자력(自力)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탐진치 삼독의 결정체가 인간이요 사람이다.
여기에 자력이란 실로 어리석음의 극치요 무지의 소산이다.
겸손과 하심을 배워라. 불보살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불자가 아름답다.



신광사 홈페이지 : www.kidobal.com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용은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구입문의 : 일광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신광사 (051-442-6556) 도서출판 현대북스 (051-244-1251)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주)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윤·기치유 명상 수련원
기치유?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기를 이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요법으로서 마사지, 척추교정 등 물리적 요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요법 입니다
이 치유법은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삼차신경통, 간경화, 통풍, 암, 류마 티스, 당뇨등 난치, 불치병 외에 도 수술 직 후의 빠 른 회복이나 유아, 애완 동물에도 광범위 하게 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련지도 : 윤한흥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주)명상신문 논설위원
기치유사 수련생 모집
교육 기간
일반반 : 8월 11일(목) 오전 10:30~12:30(12주과정) 8월 12일(금) 오후 7: 00~9:10
속성반 : 8월 20일 오후 2:30~5:30(한달 4일과정)
교육 내용 : 기초이론 및 명상법 기를 강화하는 수련 치유기 개발하기위한 특수명상 자신 기치유 실습, 타인 기치유 실습
참고 서적 기치유와 기공수련/기치유학(윤한흥 지음)
문의하세요 WWW.gi-clinic.pe.kr • 에너지힐링.kr
후원 한국 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02-3482-5032

방학때 다닐만한 다도교실은?



우리 아이 의젓해졌네

생활 예절 익히는 어린이 다도교실 인기
기다림 · 여유 배울 수 있어 인성교육에 효과



"찻잎을 찻숟가락으로 떠서 다관에 넣습니다. 다관에 물을 따르고 뚜껑을 덮은 후 두 손을 무릎에 모으고 잠시 기다리세요."

한 시라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산만한 아이들. 그러나 다구와 차가 가지런히 놓인 찻상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소곳해진다. 목마를 때면 벌컥벌컥 마시던 음료수와는 달리, 찻잔을 정돈하고 차가 우러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다림'과 '여유'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차기 때문이다.

다도(茶道)를 통해 생활 예절을 익히게 하는 어린이 다도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 단체나 지역 다회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학을 맞은 자녀들이 다도를 배울 수 있는 강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오랜 교육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강좌를 여는 차 문화 단체들의 어린이 다도교실을 들 수 있다.

가천문화재단과 한국차문화협회는 방학 때마다 어린이들에게 차 문화와 전통예절을 가르치는 어린이 예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 강사진이 다도뿐 아니라 절하기와 탈춤, 전통놀이 등을 가르친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11시부터 14시까지 인천시 연수구 가천인력개발원에서 열리며 7세 미만의 어린이가 참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7천원. (032)460-3460~2

명원문화재단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생활예절 및 전통예절과 다례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명원 다례교육을 하고 있다. 전통다례교실과 어린이 예절교실,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현궁과 삼청각에서 수시로 개최한다. (02)730-7191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가회박물관(www.gahoemuseum.org)은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12시까지 다도교실을 연다. 전라남도 나주 동원사에서 직접 가져온 야생차를 사용하며, 다도교실 후 2백50여 점의 민화와 7백50여 점의 부적을 포함한 1천5백여 점의 유물을 구경할 수도 있다. 참가비 3만원. (02)741-0466

차인들이 많기로 유명한 부산에서는 각 지역 차회가 운영하는 어린이 다도교실을 비롯해 부산여자대학 어린이도서관의 '엄마 아빠와 함께 배우는 다도교실', 부산시 여성문화회관(wcc.metro.busan.kr)의 '전통예절과 차예절 교실' 등이 눈에 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배우는 다도교실'은 부산여대 다도관에서 진행되며 5세 이상의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다도를 배울 수 있다. (051)850-3113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의 전통예절교실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과 차 예절, 다도기초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8월 8~12일, 17~22일 동안 매주 월 · 수 · 금 14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강료는 3,750원 (051)320-8380

지리산 청학동에서는 다도교육과 예절교실을 함께 운영한다. 유아에서부터 중 ·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1주일간 다도와 서예와 판소리 등 전통예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예절캠프'는 매년 참가자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 프로그램이다.

김봉곤 예절캠프(www.ichunghak.com)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5박 6일 코스를 8월 22일까지 운영하며, 청학동 옛날서당(www.chunghagdong.net)은 9월 3일까지 여름방학 예절교육을 마련한다. (02)775-0981, (055)884-1127

가족이 함께 다도를 배우고 싶다면 하동 삼신녹차마을(www.samsin.invil.org)의 체험 프로그램을 권한다. 삼신녹차마을에서는 1박2일 동안 찻잎 따기와 차 만들기, 다도수업 등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일코스와 선택형으로 나눠진다.

이 밖에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과 경기도 고양시 고양예절원, 경주 신라문화진흥원, 충북 청원군 강내농협 복지센터 등에서 어린이 다도교실과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충북 강내농협 지역문화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을 위해 생활예절과 다도체험교실, 어린이글짓기 교실, 1,000여점의 도서를 갖춘 열린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다도교실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제주 약천사는 7월 28~30일 한문 및 예절교실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5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3만원. (064)738-5000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우리 아이. 방학을 맞은 자녀에게 다도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떨까? 차에 대한 관심도 놓이고 생활 예절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진은 제주 약천사의 어린이 다도교실 수업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조선시대 ⑬



조선-병자호란 발생, 남쪽 차 생산지는 유지
일본-외국과 교류 확대, 다원에 방풍림 조성

임진왜란 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상흔이 가라앉고 차 생산이 차츰 궤도에 올라 국가의 의례나 개인의 제의에는 종전과 같이 차를 쓰게 됐다. 특히 일본과는 대마도를 통해서 교류가 잦아져서 차도구가 많이 거래됐다. 그리고 우리 차의 품질이 좋아 외국인도 그 향미(香味)를 높게 평가했다. 이 시기에 바로 천지차를 금에 보냈다. 또 다시 병자호란이 일어나 북쪽은 전화를 입었으나 남쪽 차 생산지는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중국은 계속 흉년이 들어 차의 생산량이 줄어서 수출에도 지장을 주었으나 국가적으로 차 생산에 힘을 기울였다.

일본의 차는 국내적으로 널리 자리 잡고, 한편 외국과의 교류에도 눈을 돌렸다. 우치가 도가노를 대신해 명성을 얻고 진경(津輕) 등지의 다원에는 방풍림을 조성했다.

① 심동구(1594~1660): 다시(茶詩) 몇 편이 〈청봉집〉에 전한다.

② 대마도주 평의지는 종벽산(鐘碧山)에 원당을 짓고 만송원으로 부르며 조선에 성심향화(誠心香火)를 다하겠다며 선적을 청하므로 조정에서 허락했다.

③ 유형원(1622~1673): 〈반계수록〉에서 다색(茶色)의 정리와 궁궐에 바치는 차의 양에 관해 썼다.

④ 양호는 명나라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남원 토산차를 마셔보고 임금께 그 품질이 상품인데 왜 상품화해서 나라살림에 보태지 않느냐고 말했다.

⑤ 숭정전에서 조사(詔使)를 맞는 잔치와 다례를 두 번이나 거행했다.

⑥ '삭일에 술과 과일을 쓰고 망일에는 차를 쓴다'는 기록이 있다.

⑦ 왜사(倭使) 현방 등을 만송원에 청하고 유방원 도서를 허락했다.

⑧ 월저대사(1638~1715): 〈화엄경〉 국역을 완성했고 다시가 전한다.

⑨ 중국 사신이 올 때 관소(館所)인 용만관에서 원접사와 영위사가 사신을 맞는 다례를 행했다.

⑩ 왕상진이 쓴 책으로 '다보소서(茶譜小序)'가 들어있다.

⑪ 청대 포승음(鮑承蔭)이 지은 전 7권의 책.

⑫ 이어(1611~1680): 청대 희곡 작가이자 차인이다.

두준(1611~1687): 호는 다촌(茶村). 하루라도 차가 없으면 안됐고, 다구(茶丘)의 일화도 남겼다.

모침(1611~1693): 〈개다류소〉를 썼다.

주양공(1612~1672):민차(閩茶)를 즐겨 '민소기(閩小記)'를 남겼다.

고염무(1613~1682): '다(茶)'자의 생성과 동악을 발굴하여 다사(茶史)에 공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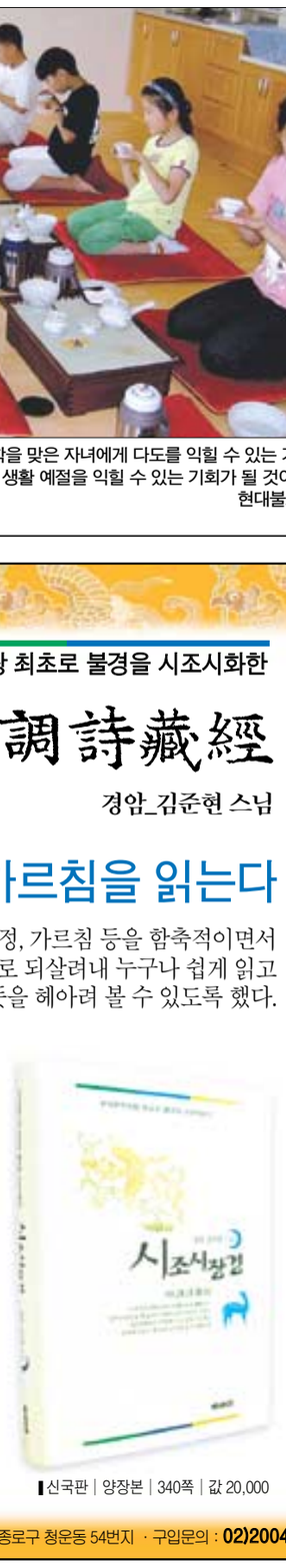
⑬ 쓰가루의 차밭에 방풍림을 조성했다.

⑭ 잎차를 끓이는 것에 관한 기록이 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 심동구의 활동 ① 1622 재정고갈로 전세(田稅) 공물(貢物) 납입 독촉 만송원송사(萬松院送使) ② 유형원의 출생 ③ @ 양호(楊鎬)의 진언 ④ 1625 조사맞이 다례 ⑤ 1629 남지기로회도(이기룡) 1932 〈가례언해(家禮諺解)〉 ⑥ 청사(淸使)에 행다례 1636 유방원 송사 ⑦ 병자호란 1638 천지차(天地茶) 작설차(雀舌茶)를 후금에 보냄 월저(月渚)대사 ⑧ @ 용만연향 ⑨	명대	1621 〈군방보(群芳譜)〉 ⑩ @ 순치연간 조선 사신들에게 차공급 인색(흉년) 1625 〈농정전서(農政全書)〉(서광계) 1627 〈남귀일록(南歸日錄)〉(소사위) 1630 매화초당필담(장대복) @ 〈다마정요(茶馬政要)〉 ⑪ 1636 청의 개국 프랑스의 차 수입 @ 이어(李漁), 두준(杜濬), 모침(冒寢), 주양공(周亮工), 고염무(顧炎武) ⑫	남북조	1624 차밭에 방풍림 조성 ⑬ @ 전다예장(煎茶禮狀) ⑭ 1632 우치채다사의 행사 1537 네덜란드에서 일본차 수입

한국문학사상 최초로 불경을 시조시화한
시조시장경 時調詩藏經
경암_김준현 스님
시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는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수행과정, 가르침 등을 함축적이면서도 운율이 살아 있는 시조시로 되살려내 누구나 쉽게 읽고 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했다.

부처님이 떠나시고 계시지 아니해도 보살이 간생(間生)해서 불법을 새롭게 홍포한다는 말씀이 경전에 있다. 이것은 보살의 시대적인 원력을 말씀하신 것이다. 경암스님은 이 시대의 한 인간, 한 사문(沙門)으로서 보살의 원력으로 『시조시장경』을 집필한 것이다.
- 이두스님(관음사조실 · 시인)
※ 전국 유명서점 판매 중

경암스님
월하(月河)스님을 은사로, 태허(太虛) 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후 고산사 금강암 보덕사 묘각사 등에서 수행, 장진했다. 1977년 법화유치원을 설립했으며 현재까지 17년간 불입종 총무원장으로 종무에 임하고 있다.
신국판 | 양장본 | 340쪽 | 값 20,000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 구입문의 : 02)2004-8220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목조건축물

서광사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래살충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전용(부식)방부제
• 방염제
목재 복원 시스템 (특허번호 특허 제 0476325호)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代) FAX. 031)451-6238
HP. 011-747-2111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근본에다 맡기세요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도반으로서 공부하는 것을 항상 즐겁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을 하는 것은 연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방편이자 진실이죠.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잘못되면 조상 탓을 많이 하시죠? 잘되면 조상이 잘해서 잘됐단 말은 적고 잘못되면 조상 탓을 상당히 하시는 걸로 압니다.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자기가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생시에도 부모 탓을 많이 하고 죽어서도 부모 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옛날에 사람을 공물로 바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제도보다도 세 동네 네 동네가 다 모여서 사람을 바치지 않는다면 큰 지네가 환토를 해가지고 도술을 부려서 동네 일판을 다 나쁜 악연이 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를 열네 살부터 스무 살까지 그렇게 항상 해마다 공물을 바치던 때 얘깁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절에 다니셨는데 '당신은 삼보에 귀의하라' 고 했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물이 흘러갈 때에 언덕이 이렇게 져서, 언덕이 진 거 있죠. 그러면 물이 지나갈 때면 구불렁하고 돌아서 또 넘고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거를 넘고 미래를 넘고 현실을 넘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성삼보에 귀의하라 하니깐 그분은 자성에다가 진심으로 관(觀)하고 참으로 지극한 정성을 들였답니다. 그건 왜냐하면 딸들이 지네 밥이 될 테니까는 그렇지 않게 하라고 지극하게 관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자재로 상세계에 오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딸을 위해서 두꺼비가 돼가지고 항상 딸이 밥을 지을 때면 추우면 거기 와서 밥을 받아먹고 그렇게 많이 컸단 말입니다.

딸들 세 자매가 있었는데 들은 바치고 하나가 남았는데, 어느 날 두꺼비가 슬슬 부엌으로 기어들어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쳐다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어머니는 자기 갈 곳을 못 가고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두꺼비가 된 거죠. 두꺼비가 돼가지고 항상 그저 밥을 조금 주면은 먹고 또 부뚜막에서 살다시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공출을 바치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 두꺼비가 말을 하더랍니다. "얘야, 내가 갈 곳을 못 가고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비의 허물을 가졌느니라. 그러니 너 들어갈 때 나를 치마 앞에 꼭 싸가지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어떠한 놀랄 일이 있어도 침착하거라." 하고선 두꺼비가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치마 앞에다가 싸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자세한 말은 예전에 했으니 생략해서 말합니다. 들어갔는데 큰 서까래만한 지네가, 오래 묵은 지네가 지붕에서 머리를 드러내더랍니다. 머리를 드러내서 나오니까 두꺼비가 두 다리를 딸의 무릎에다가 대고 위를 쳐다보고 두 손으론 딸의 가슴에 그냥 저거하면서 안개 같은 것을 뿜더랍니다. 그 안개 같은 걸 있는 힘을 다해서 뿜으니까 지네는 떨어져서 죽고 딸을 살렸답니다. 딸을 살리고 나서 너무나 지쳐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답니다. 그 모습을 벗은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자식이다 하면 부모는 절대로 망하게 하거나 고생시키거나 죽게 하거나 이런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죽어서 왜 자식들을 해롭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속의 다섯 가지의 문제, 항상 제가 말하죠. 영계성이나 유전성, 업보성 또는 세균성, 인과성이 주둔해서 거기에 잘못 산 사람들에게 인연이 돼서 있는 겁니다. 인연이 돼서 컴퓨터에 입력되듯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올 때가 되면 탁탁 나오는 겁니다. 그 나올 때는 의식 속에서 부모의 모습으로 나와야 달콤하게 들으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화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재주들을 모두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대로 나오니까 "아이구, 부모가 이렇게 꿈에 보였다", 부모가 모습을 보이고 집안이 언짢아지면 "아이구, 어머니 뵙고선 집안이 언짢다" 이러거든요. 그 의식들의 농간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못돼라고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마는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단 10%도 몰라요. 아마도 아들이 죽는다 이럴 때, 딸이 간다 이럴 때 내가 갈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갈 수 있을 텐데 하고 부모는 그런 말을 할 겁니다. 대신 할 수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로 이익하게 한다는 것, 살리려고 자기 갈 데를 못 가면서까지 돌봐준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절대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안 하실 때는 몰랐지만 이 공부를 하시면서는 그걸 절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그 뜻을 알고 있고 실천을 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더더욱 청소년들과 학생들 문제가 아주 다단하게 모두 일어나고 있죠. 기가 막힌 일들도 많이 생기구요. 그러니깐 여러분한테 부탁은, 여러분이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오빠, 내 동생, 이것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하시구요, 관할 때에 여러분이 또 그 생각을 관하시라 이겁니다. 그저 남녀를 막론하고 "학생들, 청소년들이 그런 일이 없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다. 그네들의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거늘 어찌 그것을 없앨 수 없느냐." 하고 그냥 간절히 모두 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날더러 그러겠지요. "왜 그렇게 원한다면 당신이 하시지, 왜 우리더러 하라느냐?" 이러겠지만 보이지 않는 데 손이 그 모두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보다 여러분의 생활이 교재라고 했죠. 그런 것도 하면서 만약에 80%, 90% 없어진다면 그 얼마나 여러분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도 좋을 뿐 아니라 자식을 둔 부모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한마음이 된다면 그까짓 것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있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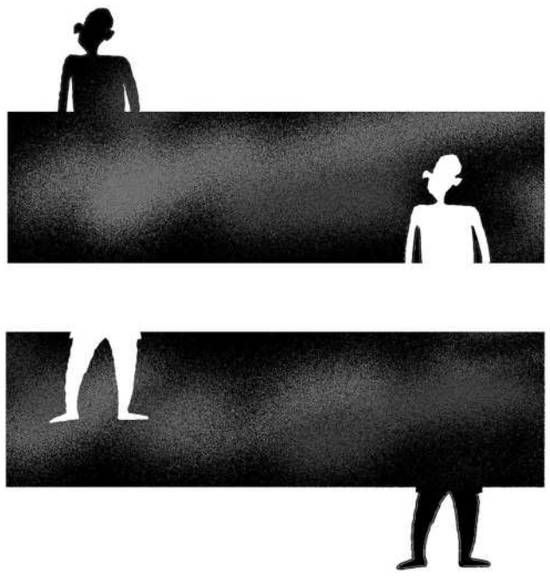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며 오직 이익되게 한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도님들 자손이 그렇게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런다고 할 때, 그건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때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욕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니까, 마음과 마음을 이끌어주는 힘이 있어야만 그냥 몸뚱인 저절로 끌려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짓을 안 하게 되는 것도 관하니까, 가 조금 조금 연관돼서 보이지 않고 보이고 이런 굴곡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요런 것은 여러분이 진짜 체험을 해서 알고 주장자를 잡고 나간다면 성불을 하는 거는 따 놓은 당상입니다.

우리가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해서 삼세라고 그러지만 삼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굴곡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과정을 표현해서 방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번 굴레, 또 한 번 굴레, 한 번 굴레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건 똑같습니다, 굴곡을 넘어갈 뿐이지요. 그러니까 생사가 둘이 아닌 까닭에 걔의 컴퓨터에도 들어가면 바로 그 앞서의 입력됐던 게 없어짐으로써 걔 마음은 좋게 차단돼 있습니다. 밝게 불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요런 요량을 다 잘 아셔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딘가가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많고, 못하는 분들이라고 하기보다 요량을 몰라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림 · 최주현

마음은 체가 없어서 크거나 작거나 어떤 것이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여튼 정신계라고 그러는 건 이 물질계의 몸을 이끌어가는 바로 주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자가 몸을 끌어가고 이 주장자만이 속의 생명의 의식들을 다 이끌면서 또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가는 원동력인 주장자에다가, 즉 주인공의 뿌리에다가 맡겨놓으면 그 다스리는 게 바로 주인공이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말로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한테 실천을 해보지도 않고 하라는 것은 참 어렵지만 실천을 해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라고 안되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언덕을 넘고 또 언덕을 넘고 또 언덕을 넘는다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거든지,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가 없다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대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고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아니고 현재의 길을 걷다가 길로 간다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 우리 오늘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렇고 또 요다음 법회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차원에 따라서 질문을 하신다면 딴 사람도 배우게 되고 또 여러분의 그 요량도 배우시고 그래서 질문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이렇게 십 년이든 얼마든 다니면서 스스로서 체험하신 거 스스로서 아는 거 이것을 전부 자세히 말하게 되면 우리 연구진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해나가면서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회장님들 한테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참, 꼭 그렇게 하세요. '저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그러한 부패적인 무슨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둘 아닌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구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한국만이라도 그렇지 않도록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빼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자1: 스님의 가르침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요즈음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 이상하리만큼 신들린 사람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신들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제 주위에도 실지로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옛날에 알던 사람 얘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원래 제 집이 진주인데 진주 시내에서 진주지원으로 가다보면 말티고개라고 있는데 그 동네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보면 눈에 확 뜨일 정도로 대나무 꽃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정이 생긴 게 과연 그렇게 신이 들린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들어온 신이나 그리고 그 신을 신내림굿 한 사람이나 어떤 인과, 또는 어떤 인연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한 집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으면서 대물림을 하는지 여쭙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스님: 그게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타의에서 오는 영계, 또 한 가지는 자신에서 생기는 영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람 자체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아무개다' 하고 말이 나와서 자기한테 들리죠. 그렇게 하면 그 아무갠 줄만 알고 거기에다가 정성을 다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당 노릇을 하는 것은, 그건 이런 공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죠.

이런 예가 많이 있죠.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말고 거기 있는 분, 그 모셔놓은 영가를 주인공에다 흡수해라. 흡수시키면 그분이 그대로 '내다, 내다.' 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본인이 없애게 돼 있다. 그래서 주인공에 항상 흡수해서 들이 아닌데 하고 관하십시오. 이거 보세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요 미친 사람과 성한 사람이 들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면 거기에서 모두 너와 나와 둘이 아닌데 하고서 이 관하는 데다가 흡수한다면 마음이 그렇게 알고 나면 그 영가도 그렇게 살 리가 없죠. 그렇게 유치하게 살려고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흡수하고 없애는데 어떤 집은 애들을 데리고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집이 있더란 얘기죠. 그건 그냥 뒀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식들을 키워야 하니까요. 그러나 자식들이 다 크고 시집보내고 장가들이고 그럴 때가 되면 문제가 될까봐 그 후에는 스스로 그만두게끔 이렇게 마음을 내줬죠.

그리고 어떤 집은 생계도 괜찮은데 그렇게 자식들한테 누가 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도 그냥 지금 현재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누적이 되고 윤회가 돼서 다시 돌아서 요다음에 자식들이 애를 낳아도 또 그런 지경

☞30면으로 계속

나쁜 것도 좋게 맡기면 좋아지는 겁니다

☞29면에서 계속

이 흐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간 무서운 게 아니죠. 그래서 생계가 괜찮고 그런 집들은 다 끊어주는 거죠.

어떤 집에서 뭘 모셔놨는데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거기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 뭡니까? 먼지도 닦지 못하게 하더랍니다, 모셔놓은 데를 말이죠. 그랬는데 그 며느리가 나한테 와서 그것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 말고 하는 법이 있다. 주인공에다 그냥 모든 걸 관해라. 관해라." 그랬더니 그냥 흡수해서 관하고 나니깐 자기가 볼 땐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물체만 모두 놓여있지.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보는데도 그냥 먼지를 총채로다 털고 그러면 "얘, 이거 큰일나겠구나." 이러고 시어머니가 펄쩍펄쩍 뛰더니 어느 땐가 한번은 그러더랍니다. "어머, 다 비었어. 다 비었어. 여기에 계시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갔어." 이러더랍니다. 그러고 치워달라고 해서 치워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드리는 건 누구네 어느 집에도 또 어느 사람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깐 해 안 가게 나쁜 일 안 생기고도 할 수 있는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관해서 아예 그 안에 모셔놓은 영가를 없애고, 또 생계를 못 잇는 집은 그냥 두고요. 어때요?

▲질문자1: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서양에서도 어떤 사람이 성모마리아상을 봤다, 허공에 있는 성모마리아상을 보면서 미래를 예언하고 그리고 허공에 떠있는 성모마리아상의 힘을 빌어서 사람의 병을 낫게 한다고 그런 게 TV에도 나오고 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 한국이나 동양 세계에서 무당들이 굿한다거나 하는 그런 거하고 또 신기(神氣)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똑같은 현상인지요.

▲스님: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서 의식 속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가 마리아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마리아 모습을 해가지고, 환상이 돼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깐 거기에 빨려들어서는 안 되죠. 즉 말하자면 거기에서 마리아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렇고 예수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렇고, 부처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렇고 관세음보살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렇듯이 부모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환상이 형상이 없어요. 형상은 바람과 같고 뜬 구름과 같고 꿈 같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한 데에서 나오는 환상, 그거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너무 박해도 안 되고 너무 물러도 안 되고 하니까 좀더 중심으로서 중도로서 "아! 나를 공부시키려고 자신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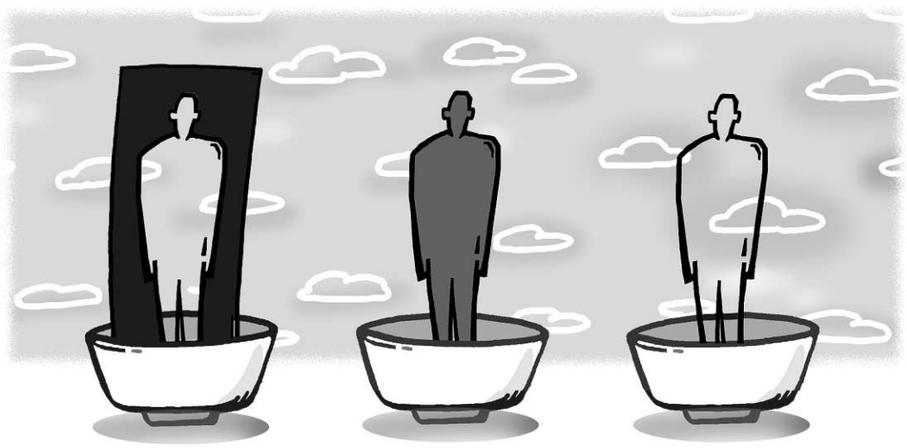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진짜 체험을 해서 알고 주장자를 잡고 나가세요!

화해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다 되놔야만 다시금 그게 농간을 부리지 않고 본심의 뜻이 가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타의에서 오는 것도 있고 자의에서 생기는 것도 있고 또 그 조상들 대에서 내려오는 유전도 그렇고, 그런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에 속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랑신이 내렸다 하면 집을 못 짓게 하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지금 당장 벌여놓고 집을 못 짓는다 하면 그건 큰 손해가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집집마다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겹쳐서 자꾸자꾸 나오죠. 삼재가 들어서 뭐 어떻다, 예언을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농락하는 게 되고 공덕이 되지 못하게끔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게 외려 귀신 노릇을 하게끔 만드는 작업이죠. 그러니깐 절대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오직 잘했든 못했든 어떠한 거든지 닥쳐도 서슴없이 거기다가 흡수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런 집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걸로 인해서 자식들이 피해를 보는 수가 많습니다, 장가들일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깐 먹고살기 괜찮은 집들은 아예 주인공에다 관해서 그냥 흡수해버리세요.

▲질문자2: 저는 심성과학원 의학부 소속으로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질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들 치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신과 영역에서 제일 환자가 많은 게 정신분열증입니다. 수도 많고 치료도 잘 안되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미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1%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환청도 있고 망상도 보이다가 갑자기 시작될 수도 있고 차차 시작이 됐다가 점차 황폐해져가서 나중에는 사람 구실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저는 서양의학을 한 사람인데요, 아직 원인도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고 증상은 좀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하는 치료는 주로 약물치료를 합니다. 약을 줘서 평생을 먹든가 또는 몇 년 정도 먹어라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요, 일단 약을 먹게 되면 환자가 굉장히 멍해지고 정신이 없어 하고 굉장히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십 년 이십 년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의욕도 없어지게 되는 것 같고 자기 주어진 역할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으로는 이것이 가장 좋다고 해서 저희가 환자들한테 "약을 먹어라. 십 년 이십 년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말하면서도 제 자신도 굉장히 확신이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책인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최선인지 이런 부분에서 늘 갈등을 해왔었구요. 그래서 저 개인 입장이라기보다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하고 이 병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를 대표해서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이 그것도 또한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것이 있고 타의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유전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볼 때는 다 똑같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약물을 먹여서 치료하면 그거는 하나도 낫는 게 아니라 외려 몸이 나빠지는 결과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놔두고라도 이것은 부모나 다른 식구들이 이 마음공부를 해서 항상 보이지 않는 데서 마음으로 마음을 주입해준다면, 그 병은 쉽게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약물만 투입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점차적으로 몸을 버리게 됩니다. 삶을 잃고 용기를 잃고 의욕을 잃고 아예 생각조차 하는 것도 모릅니다. 살았으니까 그냥 움죽거릴 뿐이지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아니 생긴 것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마음을 북돋아준다면 마음에 의해서 육신이 움죽거리는 걸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병이 낫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어떠한 아는 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관해주세요.

또 당신이 그러한 데 있다니깐 말인데, 시카고에 갔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범죄자들만 있는 데를 갔었어요. 그랬는데 유명한 범죄자도 범죄자지마는 그 좀 머리에 분열증이 있는 범죄자들은 큰 방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거 그냥 이러쿵저러쿵해서 철창에다가 아주 가둬놓은 셈이죠. 그래서 그 관리인더러 이렇게 말을 했죠. 거기에 글씨로 크게 써서 '주인공,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써서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붙이고서 나는 뭐를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거기다 선신 몇 분만 해놓고 왔죠. 어때요? 손 없는 손이 그네들을 위해서 해준다면 아마 지금은 반 이상 좋아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집이도 한번 그렇게 해보죠.

▲질문자2: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스님: 열심히들 하세요.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날 위해서 날 믿으란 말도 안 하고,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 믿으란 말도 안 해요. 당신이 이 세상에 생겼으니까 부처님도 계시고 나도 있었던 거죠, 당신이 없으면 그 모두 무효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누가 대신 살아주나? 대신 먹어주나? 대신 똥눠주고 대신 잠자주고 대신 아파주고 대신 죽어주는 사람 봤어요? 봤으면 손들어 봐요.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거기다 맡기고 나쁜 것도 좋게 맡기면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표현을 이렇게 했죠. 구정물이 나올 듯하는 그런 꿈을 꾼다, 구정물이 나올 듯하다 이런다면 새물이 나오게끔 바꿔서 써라 이랬죠. 이것이 바로 심성과학이며 심성의학이며 심성천체물리

※위 법문은 1997년 7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시)

▶ 지선법사 직강◀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컴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 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1Box(60포 ~20만원) 2Box(120포 ~35만원)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제49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첫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겸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랫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물론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은 즉시 이뤄집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7월 30일(토) 저녁 9시~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분당 이매역 하얀마음선원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 심 교 육 도 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오시는 길: 5,7호선 군자 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 문의전화: 02)456-4994, 0035(팩스겸용),
http://cafe.daum.net/sorisan

통증·근육통 완화
"관절 · 허리통증 · 어깨결림 각종통증"
적외선조사기(통증 완화) 탄생
1.먹고 2.바르고 3.찜질하고
123시스템으로 통증에서 해방
적외선조사기
통증, 근육통완화
1·2·3시스템으로 해결하세요
먹고 1 바르고 2 찜질하고 3
자생한 신비생기가활력
써바크림
적외선조사기
공동개발
(주)일신코리아
(주)고려생약
대리점모집 문의전화
080-521-6666

월·화·수·목·금 休~休(휴휴)

불자가족 휴휴(休休)일 알차게 보내기

주5일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된 지 한달이 되어 간다. 토·일 이틀의 휴일, 일명 휴휴(休休)일을 알차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과 함께 휴휴일을 잘 보내기 위한 휴(休)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노는 만큼 성공한다〉는 책을 펴내 잘 노는 법, 휴테크의 중요성을 역설한 김정운 교수(명지대 여가정보학과)는 "주5일 시대엔 노는 시간을 '경영'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부부끼리 얼굴 보는 시간이 늘어 이혼이 증가한 독일의 사례나 투잡스족의 증가, 아이 없는 부부가족 확대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저자는 여가문화에서 국가경쟁력이 나오므로 바람직한 여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불자 가족들은 어떤 휴테크 전략으로 불교문화와 함께하는 휴휴일을 보내면 좋을까?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가족단위의 템플스테이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원주 구룡사가 매주 주말 진행하는 가족 템플스테이 현장.
사진제공=원주 구룡사

마음을 다스리려면

불자들은 물론 비불자들에게도 템플스테이는 대표적인 주5일제의 인기 종목. 자신의 마음 다스리기만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주 신륵사(031-885-2505), 공주 마곡사(041-841-6226), 원주 구룡사(033-732-4800)가 가족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고 있다. 신륵사의 가족 템플스테이는 8월 24~25일 개최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참가비가 10만원이다. 공주 마곡사에서는 부부(8월 5~7일), 장애우 가족(8월 12~14일)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매월 셋째 주에는 서산 부석사(041-662-3824)의 탐조 템플스테이를 찾아가 보자. 서산 간척지에서 먹이를 주는 사람 손에 내려앉는 곤줄박이를 만나는 흥미 만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해남 대흥사(061-535-5775)가 매주 다른 주제로 꾸미는 새벽숲길 역시 가족이 즐기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특히 대흥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업이 없는 어린이 가족을 위한 테마 템플스테이를 마련해 인기를 끌고 있다.

구례 화엄사(061-782-7600)의 주말 산사체험, 경주 골굴사(054-744-1689)의 선무도 주말템플스테이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참가하는 어린이는 무료인 안동 봉정사(054-853-4181) 템플스테이는 둘째 넷째 주 주말에 만날 수 있다.

문화의 향기에 푹 빠져보자

매월 넷째 주 주말은 한국불교미술관이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불교미술의 세계에 빠져들어 보자. 한국불교미술관은 8월 3일 오픈을 준비 중인 티베트 탕카전과 연관된 내용으로 8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6월까지 매달 한 차례 진행되던 교육프로그램은 8월 이후 매주 토요일 진행할 계획이다. (02)766-6000

양평 용문산 야외극장에서는 산채정식과 함께 피에로 광대를 만날 수 있는 마임극 '리체데이'가 7월30~8월 1일 공연된다. 리체데이는 피에로 광대극에 음악 소도구를 이용해 인간의 기쁨과 슬픔을 표현한 세계적인 마임극이다. 가족 부부 연인들의 밤 나들이에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용문산 야외극장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낮에는 허브농장 장승마을 용문사 등에서 관광을 즐기고 산채정식을 맛보게 된다.

밤10시에 시작되는 '리체데이' 공연 후 인근 민박 펜션 등에서 1박하는 프로그램이다. 용문산 야외극장의 문화 프로그램은 3대(代)가 함께 가면 50% 할인 티켓 혜택이 있다. (02)525-6929

자연과 함께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에서 마련한

주5일 근무제로 인한 휴테크에 관심 급증
가족과 함께하는 사찰체험 인기몰이
전시·공연 보며 자녀와 공감대 형성

연꽃과 수련 전시회를 둘러보는 것도 부처님의 말씀에 잠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7월 19일~8월 20일 열리는 수생식물특별전시회는 학생들에게 수생식물의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과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연꽃과 수련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연구원은 이 시간대에 방문해 연꽃과 수련의 신비로움을 만끽하라고 조언한다. (033)249-5330

서울시가 서울 전역 11개 산에서 진행하는 '즐거운 숲속여행 프로그램'은 매주 일요일에 개최된다. 어린이들에게도 부담이 가지 않도록 2~3시간 코스로 마련된 숲속여행은 숲해설가로부터 산의 문화 역사와 자연생태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사에 들려서는 사찰의 역사와 기본적인 사찰예절도 가르쳐준다. 첫째 셋째 주에는 남산 관악산(안국사) 아차산 대모산 청계산, 둘째 넷째 주에는 인왕산 수락산 앵봉산 안산(봉원사) 호암산이다. 신청은 숲속여행 사이트(san.seoul.go.kr)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박물관 무료 강좌로 업그레이드

국립춘천박물관의 토요문화강좌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2시 국립춘천박물관 강당에서 열린다. △우리문화의 수수께끼(8월 13일)-주강현 소장(우리민속문화연구소) △아름다운 한국의 불화(9월 10일)-정우택 교수(동국대) △한국인의 사주팔자(10월 8일)-조용헌 교수(원광대) △동서미술교섭사(11월 12일)-권영필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등의 강좌가 마련된다. (033)260-1523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번 여름 세 차례에 걸쳐 준비한 '가족 어린이교육프로그램'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도자기 만들기는 7월 30·31일, 초등학교 고학년의 금속장신구 만들기는 8월 6·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참가신청은 국립중앙박물관 사이트(www.museum.go.kr)에서 받는다. (02)2077-9234

국립제주박물관이 7월부터 야심차게 선보인 토요박물관 산책은 화가 이왈종(9월 3일), 사진작가 서재철(8월 6일), 시인 나희덕(7월 30일) 등 각계 명사와 함께 음악 강연 전시 등이 어우러지는 축제마당으로 펼쳐진다. (064)720-8029

국립김해박물관에서 가야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박물관장과 함께하는 고고학 여행'은 7~8월 매주 토요일에 찾아간다. 김정완 박물관장, 임학종 학예실장이 들려주는 고고학 강의는 인기만점이다. (055)325-9333

레저 여행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데일리투어가 함께 마련한 경기도 체험학습 모니터 투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용문사,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등 지역관광지, 세계평화축전, 2005 안산챔프카월드시리즈 등 축제, 사찰음식 갯벌 국악 등 경기도만의 문화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참가비의 50%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번 모니터 투어는 8월 13일 인천과 강원지역에 이어 인천과 충남(9월 24일), 서울과 충북(10월 16일), 서울과 대전(10월 22일) 거주민 중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열린다. (031)259-6975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수태 발생 출산 단계로 인체 형성

인체 7대 구성성분의 마지막 하나는 재생액 곧 정액이다. 정액이 넘치면 성욕이 왕성하여 바람기가 그치질 않고 정액이 쌓여 요도와 신장의 결석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방사가 지나쳐 정액이 부족하면 출혈과 격심한 통증이 따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출기능 세 가지도 지나치거나 부족할 때 각기 여러 증상들을 초래할 수 있다. 먼저 변(便)이 너무 많으면 몸이 나른해지고 위가 부풀어 오르며 장에 통증과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게 한다. 변이 지나치게 적으면 만성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장에 가스가 꽉 차오르면 그것이 위로 올라가 심장과 늑골(갈비뼈)에 통증을 가져올 수 있다. 오줌(尿)은 너무 많을 때 남자의 경우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고 오줌이 자주 마려워진다. 부족할 때는 소변양이 매우 적고 오줌길이 시원치 않아 불편을 느끼며 오줌의 농도가 짙어진다. 마지막으로 땀은 양이 너무 지나칠 경우 심하게 흘리고 지독한 땀냄새를 풍기며 소양증(搔痒症, 가려움증)과 여타 피부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땀이 부족하면 살갗이 터서 갈라지며 체모(몸털)가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 신체의 기본에너지 구성성분 그리고 배출기능의 각 세부 요인들이 지나치거나 부족하거나 조화를 잃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병증들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티베트의학의 인체 해부 및 생리 이론들을 살펴보겠다.

티베트의서에서 인체의 형성은 수태(受胎임신) 발생(發生) 그리고 출산(出産)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수태 즉 임신은 두 가지 원인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젊은 남녀가 그저 몸만 섞으면 임신이 저절로 되는 것쯤으로 쉽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티베트의학과 불교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환한 대낮에 별보기 만큼이나 어렵고 대단한 인연이라고 하였다. 임신이 되려면 첫째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자와 난자는 조금의 흠결도 없는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 티베트의서에서는 수태가 어려운 9가지 경우와 그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룽병인 사람의 정액과 월경혈(달거리피)은 결이 아주 거칠고 색이 어둡다. 둘째, 티빠병의 정액과 월경혈은 누르스름하고 냄새가 진하다. 셋째, 베껜병의 정액과 월경혈은 희멀겋고 끈적거린다. 넷째, 혈액에 병이 있는 사람의 정액과 월경혈은 썩은 내가 나고 죽처럼 걸쭉하다. 다섯째, 베껜병과 룽병이 혼합된 정액과 월경혈은 뿔뿔이 흩어진다. 여섯째, 혈액의 병과 티빠병이 합병된 정액과 월경혈은 고름 같고 매우 흐리다.

일곱째, 베껜과 티빠가 뒤섞인 질환의 정액과 월경혈은 굳어져 엉겨있다. 여덟째, 룽 질환과 티빠병이 겹치면 월경이 멎게 되고 있더라고 양이 매우 적어진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룽 티빠 베껜 그리고 혈액의 병이 복합적으로 합병되면 정액과 월경혈이 변과 같이 굳는다. 월경이 멎거나 정액과 월경혈이 굳어지는 마지막 두 경우는 치료가 어렵지만 나머지 경우는 치료가 용이하다.

변·오줌·땀 세가지 배출기능 부족시 병 초래
정액-뼈 뇌 척수·난자-근조직 오장육부 만들어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정액과 난자가 온전해야 한다. 건강한 정액은 무색이고 걸쭉하며 넉넉한 양에 단맛의 벌꿀과 같은 질감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한 월경혈은 토끼피와 같이 붉고 씻으면 핏물이 쉽게 지워져야 한다. 티베트의학에서는 아버지의 정액으로부터 뼈 뇌 그리고 척수가 어머니의 난자로부터는 근조직과 오장(심장 폐 간 비장 신장) 육부(위 소장 대장 담낭 방광 생식기관)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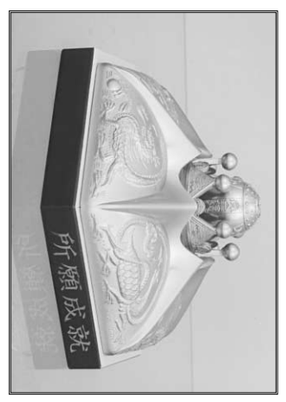
한편 오감(五感,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을 일으키는 것은 식(意識)이다. 바로 이 식(識)이 인간의 수태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인이 된다. 식은 티베트말로 남세(nam-shey)라고 하는데 죽음과 환생의 중간상태인 바르도(중음)에 혼령으로 떠돌며 업을 따라 태어날 내생(來生)의 부모를 찾는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중음을 헤매는 식과 그 내생 부모 사이를 연결해 줄 원인과 조건이 모두 성숙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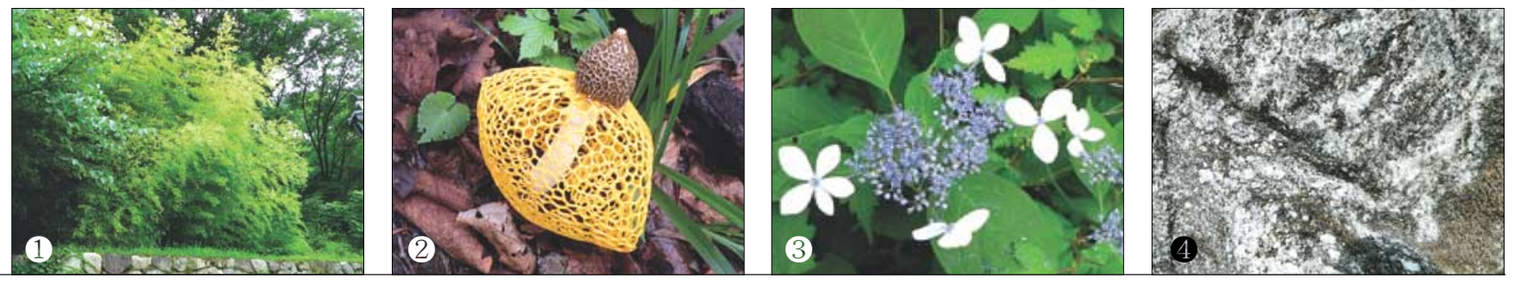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쇄. 태징, 북 등) 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영산범음집 한문본. 상용천도집. 범음범패집 카세트와 비디오를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간(肝)이 염간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氣덩어리 북덩어리 氣가막힌 북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44) 용문산 용문사



①대웅전과 삼성각 뒤에 있는 대나무는 기온 차이 때문에 따뜻한 남부지역에 비하면 크게 번성하지는 못하지만, 한강 유역에서는 희소가치를 지니고 있다. ②노랑망태버섯 ③산수국 ④편마암은 변성암의 일종으로 석영, 장석, 운모 등 입상광물이 많이 함유돼 줄무늬가 뚜렷해서 다른 암석과 구별하기가 쉽다.

천년 은행나무만 보아도…



의상대사가 평소에 짚고 다니던 지팡이였다는 용문사 은행나무는 현재 높이가 62m로 세계 최고령의 은행나무로 추정되고 있다.

잘못된 '국민관광지' 제도에 용문산 환경 훼손
상원사 경내 곳곳이 도롱뇽 살 만큼 건강
활엽수림 번성으로 임상 초본 다양성 떨어져

만물에 불성이 있다고 했으니, 나무에게도 업(業)이 있을 것이다. 그 업에 따라 나무도 종류별로 저마다 다양한 생태를 지닌다.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각기 처한 환경이 다르고 생사가 다른 것도 그 업 때문이 아니겠는가.

은행나무는 고생대 지층에서 화석으로 발견되는 화석나무이다. 동북아시아를 고향으로 하는 이 나무가 조경수로 서구로 건너간 것은 이제 200여 년에 불과하다. 은행나무는 장수목이다. 원산지로 알려진 중국에도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없다고 한다.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는 어쩌면 세계 최고령의 은행나무인지도 모를 일이다.

신라고찰 용문사를 보듬고 있는 용문산은 해발 1,157m로, 몸집이 커서 양평, 가평, 홍천이 모두 이 산에 기대어 있다. 장군봉(1067m), 문례봉(992m), 백운봉(940m), 도일봉(841m), 중원산(799m) 등이 모두 용문의 아우들이다.

용문산은 이름이 암시하고 있듯이 물이 좋은 산이다. 용문산의 큰 물줄기는 정상과 용문봉 사이에서 발원하여 용문사 앞을 흘러내리는 용문계곡, 정상과 백운봉 서쪽의 물을 받아 이루어진 연수계곡, 중원산과 도일봉 사이에 위치한 중원계곡 등이다. 흑천은 이 세 줄기 물이 합쳐서 이룬 강이다. 이 흑천의 물이 용문 너른 뜰을 다 적신다.

용문사 일대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다. 국민관광지는 1982년 정부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선정된 곳이다. 국민관광지 가운데는 당시 각 시군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타낼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신청해서 선정된 곳이 많다. 용문산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잘못된 국민관광지 제도가 용문산의 자연환경을 엄청 파괴시키고 있다.

공사장 굉음을 뒤로 하고 일주문을 들어서면 물줄기가 요란하게 내려온다. 장마철이라 한껏 불어난 물줄기는 잉어가 용으로 등천한다는 용문을 연상케 해준다.

시멘트를 깐 숲길 주변은 소나무와 각종활엽수가 뒤섞인 혼효림이다. 이제 막 이소를 마친 어린 동고비 몇 마리가 어미로부터 비행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의상대사가 평소에 짚고 다니던 지팡이였다는 용문사 은행나무는 현재 높이가 62m, 지난 1962년도에 조사한 수치보다 무려 7m나 높다. 그 사이에 7m나 자랐다는 이야기이다.

이 은행나무의 별호가 '화두목'이다. '불을 먹는 나무'라는 의미이다. 화재를 당했을 때 다른 나무들에 비해 소생율이 높은 것은 왕성한 맹아율 때문이다.

용문사 1000여년 역사 동안 여러 차례의 화재가 있었으나, 이 나무만은 온전했다고 한다. 은행나무 부근에 있던 천왕문이 소실된 뒤부터는 이 나무를 천왕목(天王木)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낙뢰를 막기 위해 은행나무에 옆에 피뢰침을 장치한 높은 철탑이 서 있다. 좀 흉물스럽긴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웅전과 삼성각 뒤로 대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기온 차이 때문에 따뜻한 남부지역에 비하면 크게 번성하지는 못하지만, 한강 유역에서는 희소가치를 지닌 대나무이다. 화재에 대비해서 대웅전 뒤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정지국사 부도로 가는 숲길은 찾는 이가 없어 제법 그윽하고 호젓하다. 활엽수림 속에 소나무들도 저마다 우람한 몸집을 자랑하며 숲 속에 서 있지만, 전성시대는 이미 끝이 난 것 같다. 모두가 하나같이 구불구불 피곤한 모습이다. 용문산에서 사라져가는 소나무의 마지막 순간들을 보는 것 같다.

계곡의 다리를 건너면 정상과 상원사(上院寺)로 가는 갈래길이 나온다. 상원사 길은 대체로 석경(石徑)이다. 용문산은 겉보기와는 달리 돌과 바위가 많은 암산이다. 전체적으로 호상편마암의 지질을 보이고 있으며, 편암과 충적층도 나타난다. 편마암은 변성암의 일종으로 석영, 장석, 운모 등 입상광물이 많이 함유되어 줄무늬가 뚜렷해서 다른 암석과 구별하기가 쉽다.

활엽수들이 너무 울울창창해서 임상 초본의 다양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꽃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는 산꿩의다리, 까치수영, 산수국, 석잠풀, 하늘나리 정도이다.

산꿩의다리는 전국의 산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줄기는 털이 없고 곧게 서며 우산살처럼 가지를 친다. 여름철이면 그 우산살 같은 가지 끝에다 작고 하얀 꽃들을 수없이 피운다. 꽃술이 꿩의 다리처럼 길다고 해서 그런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놓았다.

장마끝이라 숲 속 여기저기에 다양한 버섯들도 올라오고 있다. 그 가운데 노랑망태버섯이 군계일학으로 눈에 들어온다.

노랑망태버섯은 그물 모양을 한 버섯으로, 주로 활엽수림에 나타난다. 유균은 둥근 모양을 띠고, 노랑 망사를 치마처럼 두르고 있다. 대는 흰색이며, 무수한 반점이 있다.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냄새는 좀 역겹다. 그래서 냄새나는 기본체를 씻어버리고 중국에서는 수프에 이용한다.

마침 화사 한 마리가 바위에 걸터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용문산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뱀산'이다. 용문산에 어떤 종류의 뱀이 얼마나 많이 서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용문사 주차장 주변에 늘어선 뱀탕집의 숫자는 다른 절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많다.

상원사 용문선원에 열댓 분의 납자들이 하안거에 들어 가부좌를 틀고 있다. 계단 앞 샘가에 새끼 도롱뇽들이 기어 다니고 있다. 숲 깊고 으슥한 골짜기에서나 볼 수 있는 도롱뇽이 이곳에서는 경내 곳곳에서 관찰된다. 자연이 그만큼 살아있다는 징표이다.

황세줄나비, 긴꼬리제비나비, 뿔나비, 표범나비 등이 오랜만의 햇살을 받으며 경내 여기저기 날아다닌다.

절 앞에 큰 연못이 있어서 요사채로부터 생활하수가 흘러들고 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 때마침 요사채로부터 흘러나온 비눗물이 연못을 하얗게 장식하고 있다. 연못에 일단 가둬졌다가 계곡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수생식물들이라도 연못에 심어서 하수를 조금이라도 정화시켜서 계곡으로 내보내야겠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여시아문

본래면목이 완전한 황금빛 그대여

그대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쳐라!

재가자를 위한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의 게송집 '황금빛 봉황이' 출간

바닷물이 밀려간 뒤 아름다운 조약돌이 드러나듯 쾌활청량한 선어(禪語)들은 인위적인 문자냄새를 찾아볼 수 없다. 책에 담긴 실제의 묘용을 오득(悟得)해 모두 법계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
-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많은 이들이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구(死句)를 들고 어리석은 의심을 하고 있으나,
누구나 올바른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본인이 옳다고 고집하는 데야 별 수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성을 내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니 그 고집을 높이 살 만은 하나,
그렇다고 공부되어진 것은 또 무엇인가.



수불 지음
안국선원 선원장

황금빛 봉황이

신국판 / 358쪽 / 값 10,000원

통신판매 여시아문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Tel:02)2004~8220, 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